

미추홀, 살아지다  
안녕? 신기촌 사람들

미추홀, 살아-지다-

안녕? 신기촌 사람들

# 발간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미추홀, 살아지다1 - 안녕, 신기촌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신기촌 및 그 인근 신기시장의 형성 과정을 그 시기를 오롯이 살아내었던 주민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한 마을지입니다.

신기촌은 1960년대 후반 동인천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남구 주안동(현재 주안 2,3,4,7,8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신기촌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신기촌 인근의 신기시장은 1970년대 중반 도자기를 만드는 진흥

요업 정문 앞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푸성귀를 팔면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1987년에 현대시장의 꼴을 갖추면서 지금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미추홀구는 물론 인천광역시에서도 손꼽히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3~40년간에 걸쳐 진행된 미추홀구 당대의 역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기록의 역사가 짧고 부족합니다. 특히 전통과 향토의 기록과 보전이 주로 근현대 이전에 멈춰 있거나, 실증되지 않았거나 진본이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역사를 과거에 묶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는 마을지 <미추홀, 살아지다>시리즈를 통해 근현대 특히 당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소멸 생성하는 미추홀의 역사를, 주민들 구술을 통한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된 자료를 묵혀 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공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잣대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당대 기록을 위한 첫 번째 영역을 <재래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내 전통시장은 총 64개이며 그 중 ‘미추홀 구’에 20여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재래시장의 수가 많은 ‘미추홀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살아있는 시장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추홀, 살아지다1 - 안녕, 신기촌 사람들」을 시작으로 매년 미추홀 재래시장의 이야기들을 마을지로 발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 12.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이 회 만

## 신기촌의 역사

### 1. 신기촌의 1960년대 전후

- : 주안화장터와 공동묘지
- : 우리나라 도자기계를 이끈 중앙도자기회사  
(진흥요업)
- : 중국인의 전담
- : 신기촌에 마을이 들어서다

### 2. 신기촌의 1970년대

- : 진흥기업(진흥요업)에 인수된 중앙도자기회사
- : 변하지 않은 신기촌 마을
- : 노점상으로 시작된 신기시장
- : 인천남부초등학교 개교
- : 버스가 들어오다
- : 어렸을 때 놀던 추억

### 3. 신기촌의 1980년대

: 늘어만 가는 주민들에 또 다시 분동

### 4. 신기촌의 1990년대

: 이동수단 버스와 환경개선지구 지정

### 5. 신기촌의 2000년대 이후

: 여전한 신기시장 주변

: 재개발이 만든 골목집

## 안녕, 신기촌

### 1. 신기촌에 특별한 변화

: 마을금고 설립과 새마을 운동의 연계

### 2. 신기촌 역사 속에서

: 신기시장의 변천

: 비하인드 스토리

### 3. 신기촌의 미래를 읽다

: 지금 시장의 문제점

: 시대 변화에 맞서야

### 4. 마을에서 희망을 보다

: 대안공간<듬>과 <꿈>

: 예술동아리 <찾아가는 행복연주단>

: 마을공동체 활동 단체

## 구술기록 (10인)

“진흥요업 후문으로 하나들 생기게 된 게 신기시장이예요” \_김종린

“지금도 10평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_박옥균

“3대째 오는 손님이 계세요” \_유용호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그랬던 동네” \_김남순

“사미리가 주안3동, 주안2동은 문머리라고...” \_이태승

“5번 버스가 다녀서 신기촌으로 종점이었거든” \_고병선, 조영숙

“우물이 있었고, 그 밑으로 개울이 있었어요” \_최종철

“루핑 집도 많았고, 굴 파고 지은 집도 많았어요” \_조옥형

“저 어렸을 때... 중앙도자기 안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_한기순

## 부록

1. 주안2, 3, 4, 7, 8동 행정복지센터

2. 그 외 건물

3. 지도 및 그림 자료

---

### 일러두기

이 책자에 담긴 이야기는 주민들이 기억하는 신기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명이나, 역사적인 근거가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최대한 각색하지 않고 담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그림으로 새기는 우리동네 II

## ‘안녕, 신기촌 사람들’

작업기간: 2018.11.09. ~ 2018.12.15.

작품크기: 246cm × 121cm

제작기법: Wood cut (목판화)

만든사람: 백목련, 손은정, 윤진한, 이미숙,

이혜숙, 한선화 (주민공동창작)

지도강사: 윤종필, 윤연수



생활예술로서의 커뮤니티 판화, 주민들이 함께 만든 대형 판화작품

다른 구에 비해 재래시장의 수가 많은 미추홀구의 신기시장과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지화하여 판에 새기고 온몸으로 눌러 노동하듯 주민들이 직접 찍어낸 작품입니다. 진 흥요업(중앙도자기) 입구에서 푸성귀를 팔며 시작된 신기시장, 이주민들이 와서 살았던 10평 쪽방촌 그리고 현재의 신기시장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미추홀, 살아지다  
안녕? 신기촌 사람들

# 신기촌의 역사

주안 2, 3, 4, 7, 8동

1. 신기촌의 1960년대 전후
2. 신기촌의 1970년대
3. 신기촌의 1980년대
4. 신기촌의 1990년대
5. 신기촌의 2000년대 이후

# 신기촌의 역사

## (주안 2, 3, 4, 7, 8동)

주안에는 8개의 행정동(주안1~8동)이 설치되어 있다. 총면적은 6.2km<sup>2</sup>이며, 2017년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15만 4865명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법정동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 유래

주안이라는 이름은 산이 붉은 빛이라 하여 만월산의 서쪽 아래를 주안(朱岸)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주안면은 현재의 간석동, 구월동, 십정동 및 주안동 석바위 일대를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1908년 대한제국에서 십정리(현 십정

동) 일대에 제염시험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듬해 주안염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1909년부터 1918년까지 주안염전을 확장하면서 소금의 운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10년 10월 십정리에서 서쪽 1km 즈음이던 충훈부리에 경인선의 역을 설치하고 주안역으로 명명하면서, ‘주안’이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지역이 이동하였다.

충훈부리는 구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 사미리는 주안3동 일대에 해당하는 마을이었으며, 주안4동과 6동 일대의 지역을 석암리(石巖里, 석바위)·석촌(石村, 돌말)으로 불렀다.

신기사거리 주변 지역은 신기촌(新基村)이라고 불리는데, 인천도호부 청사가 있던 현 관교동의 관청말이라는 마을 뒤편에 새롭게 터를 잡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불린 이름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지명(地名)과 지지(地誌) 사항을 작성한 자료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신기(新基, 새터)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선시대에도 이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안3동에서 분동이 된 신기촌은 1968년 마을이 형성되기 전까지 전답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들 몇 채를 빼고는 마을이라 부를 수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사미리 밖에 없었다. 사미(土美)

란 ‘아름다운 선비’란 뜻으로, 구한말 이조판서를 지낸 이현경의 출신 마을을 뜻한다. 현재 주안2동 및 주안3동 일부 일원으로 1960~1970년대 지도에는 ‘사미’라고 적혀있다. 마을 사람들은 사미마을을 세미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연혁

광복 이후 일본식 동명이던 주안정은 1946년 1월 1일을 기해 주안동으로 바뀌었다. 그 후 주민수의 급증으로 1955년 주안1동과 주안2동으로 분동이 되었다. 그리고 1963년 10월 정부는 한국경제인 협회를 중심으로 부평과 주안에 70만 평에 이르는 수출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인천시는 1965년에 주안염전 지대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1967년에는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노동 인력이 유입되고, 도시화로 인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런 과정 속에 1970년에는 주안2동이 주안2 동부동과 주안2 서부동으로 분동되고, 1977년에 동부동은 주안2동으로 서부동은 주안3동으로 편제되었다. 1979년에는 주안1동에서 주안5동이 분동되었고, 주안2동에서 주안4동이 분동되었다. 1982년에는

주안1동에서 주안6동이 분동되었고, 주안3동에서 주안7동이 분동되었다. 이 주안7동에 신기촌과 신기시장이 들어간다. 1985년에는 주안3동에서 주안8동이 다시 분동되었다. 이렇게 주안동이 분동된 결과 토지구획이 순서로 되어있지 않아 주안을 찾는 외지 사람들은 동 순서가 차례대로 되어있지 않아 ‘무슨 동네가 이래?’ 하며 고개를 갸웃한다. 주안동이 주민수의 급증에 따라 분동한 결과이다.

- 1903년 8월 : 인천부 다소면 충훈부리(忠勳府里), 사미리(士美里)
- 1906년 5월 : 충훈부리를 충훈리(忠勳里)로 개칭하였다.
- 1914년 4월 1일 : 부천군이 신설되고 다소면과 주안면을 합하여 다주면으로 칭하면서, 부천군 다주면에 속하게 되었다.
- 1914년 11월 20일 : 충훈리와 사미리를 합하여 사충리(士忠里)로 칭하였다.
- 1936년 10월 1일 : 간석리와 관교리 각 일부를 편입하고, 인천부에 재편입하여 주안정(朱安町)으로 개칭되었다.
- 1946년 1월 9일 : 주안정을 주안동으로 개칭하였다.
- 1968년 : 구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남구 주안동이 되었다.
- 1970년 7월 1일 : 주안 2동이 주안2 동부동과 서부동으로 분동하

였다.

- 1977년 5월 10일 : 주안2 동부동은 주안2동 주안2 서부동은 주안 3동으로 개칭하였다.
- 1979년 1월 1일 : 주안2동이 주안 2동과 주안4동으로 분동하였다.
- 1979년 5월 1일 : 주안1동이 주안1동과 주안5동으로 분동하였다.
- 1982년 9월 1일 : 주안1동이 주안1동과 주안6동으로, 주안3동이 주안3동과 주안7동으로 분동하였다.
- 1985년 11월 15일 : 주안7동이 주안7동과 주안8동으로 분동하였다.

“주안3동이 원 사미리니까 섹터(sector)가 성덕교회부터 남부초등학교 초입까지가 원 동네예요. 거기가 원래 동산이었어요. 구릉지에서 마을이 형성됐죠.”

“그 동네가 옛날에 완전 시골이었죠. 전부 논밭이었어요. 거기에 조고만 야산 하나 있었잖아요. / 야산? 어디 어느 쪽에? / 주안 2동 쪽인데 그때가 어렸을 때라 거기 야산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산소도 좀 있고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었어. / 위치가 주안 2동에 야산이 없었는데 주안 2동이 아니고 주안 3동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세미산(사미산), 세미 마을, 세미 공원이 있어요. 주안 3동이야. / 그때는 다

주안동 이라고 통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되고 나서는 내가  
몇 동 인지를 잘 기억을 못해. / 세미산(사미산)은 주안 3동쪽이야.  
지금 어디냐면 명보주유소. / 명보주유소 맞아 명보주유소 쪽이야.  
/ 그쪽에 세미산(사미산)이라고 하나 있지 않나, 세미 놀이터(사미  
놀이터), 세미공원(사미공원).”

# 1. 신기촌의 1960년대 전후

---

신기촌에 마을이 형성되던 1968년 이전, 주안7동과 8동은 거의 중국인이 운영하던 전답과 주안 화장터·공동묘지, 그리고 중앙도자기회사 외엔 이렇다 할 특별한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무한 편이다. 그래서 1960년대 전후의 이야기는 1936년에 이전한 주안 화장터와 공동묘지, 1943년에 만들어진 중앙도자기회사, 1968년에 신기촌에 마을이 만들어지며 내몰린 중국인이 경영한 전답과 신기촌 마을의 형성과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 주안 화장터와 공동묘지

1900년대 초에 일본인들은 울목동 언덕배기에 9000여㎡의 공동묘지를 만들고 시내 곳곳에 흩어져있던 자국민들의 묘를 이장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장장도 있었다. 그 후 화장장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자 1930년대에 도원동으로 화장터를 옮겼다. 그러다 1920년에 만들어진 옷터골운동장이 1934년에 인천공립중학교가 들어서며 사라지고, 도원동 인천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1936년 도원동 화장터는 도화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인가가 없는 주안 신기리로 옮겨졌고, 부평으로 이전하는 1977년까지 41년간 존속했다.

대부분이 진흥요업이 있던 진흥아파트 자리가 화장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정확한 위치를 진술하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1947년과 1967년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진흥아파트 건너편 남인천감리교회와 아주아파트 일대가 화장터의 위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신비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여우고개라 불렀는데 이는 더 조사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도자기 앞에 지금 남인천교회요. 남인천교회라고 그 밑에가 화장터 자리에요. 아주아파트 있는 데요. 지금 터미널 가는데 삐죽하고 유리가게 있는데 그게 중국집 건물이었었는데 한의원 있는 데가. 그 중국집 앞이 화장터였어요. 그때 그 셋길로 이렇게 해서 신비마을 공동묘지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셋길로 중앙도자기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신비마을 아파트 그 길이 아직

도 살아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면 신비마을 아파트  
예요. 신비마을 있는 언덕이 이쪽으로는 예비군 훈련장이고, 안국  
아파트 지금 한신아파트. 그쪽이 높았었어요. 산이 높아서 다 공동  
묘지였어요. 주안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있는데 내려가면 다 산이  
고 공동묘지였어요. 그리고 유황공장이 있었고. 그쪽에 큰 화학공  
장이 몇 개 있었어요. 성냥이 아니고 황 같은 거 만들었어요. 유황공  
장도 있었고. 여기 산이 다 공동묘지였어요. 안국아파트(현재 한신  
휴플러스아파트) 다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여기서 묻어드  
렸고. 신동아도 다 공동묘지에요. 뒤쪽으로 다.”

“전부 다 공동묘지고 그 쪽에서 지금 진흥아파트 저쪽이 산이고  
묘지 쪽이었어요. 화장장도 여기 있었고 우리 집, 여기가 제일 끝이  
있고 이쪽으로는 전부 논이고 밭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살  
았으니까 내용은 알죠.”

“여기 한신아파트, 삼영아파트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신비아파트, 안국아파트 자리는 다 공동묘지였었어요. 이  
뒤로도요.”

“그 옛날에 있던 진흥요업하고 화장터 사이에 길이 있었잖아요. /  
네 작은 길이었죠. / 그게 인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  
면 신비가 있었어. / 신비 마을이었어요. / 외숙모가 인제 신비 사람

이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녁에 초저녁에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무서워 거기가 여우고개도 있었고. / 옛날에 거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 화장터에 지나가야 되지. / 여우고개가 지금은 어디예요? / 내 기억에는 저기 같아. 진흥요업하고 쌍용하고 그 사이길이 약간 언덕이 졌잖아요. 거기 같아. / 그랬겠지. 근데 거기가 화장터랑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 / 무서우니까. / 여우가 그런데 가있잖아. 공동묘지 같은데. / 신비마을이 산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 산소도 조금 몇 개 있을 거고.”

### **우리나라 도자기계를 이끈 중앙도자기회사(진흥요업)**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김중하씨는 주안의 중앙도자기회사와 대한연공업(주)을 경영하며 우리나라 비철금속을 이끌어온 기업인이다.<sup>1)</sup> 중앙도자기회사는 194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 도자기계를 이끌었던 회사였다.

이 회사가 1943년 공장을 세우고 조업하기까지는 일본인들의 방해로 어려웠으나, 지금의 주안8동 공동묘지 옆에 공장소재지로 자리를 잡고 나서야 허가가 났다. 일본인들이 허가를 내준 이유도, 공

---

1) 인천in, 김주희기자, 2011.11.03.

장의 위치가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으며 공동묘지 옆에 자리를 잡으니 원료로 쓰이는 흙을 운반하려면 운반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자연히 도산할 것이라 생각하고 허가를 해주었던 것이다. 종업원이 365명이나 되는 이 회사에서는, 연간 600t의 흙을 사용하면서 꽃병과 완구, 식기와 각종 위생용기 등 도합 1천만 개를 만들어 국내시장에 공급하였다.

해방이후 공장은 더욱 확장되어 터널 ‘요성노(堯成爐)’를 서독에서 도입하여 석탄과 장작에 의존하던 재래식 방법을 걷어치우고 경유를 사용해 도자기를 구웠으며, 품질향상과 섬세한 도안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전문기술자를 불러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 당시 종업원 수가 1천여 명이었으며 일본 도자기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독에 약 25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자운영의 출혈 등으로 가동,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1973년 서울 진흥기업에 인수되면서 진흥요업주식회사로 개명하여 제품생산을 지속하였다.<sup>2)</sup>

그런데 1967년과 1986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1984년 쌍용건설에서 분양한 쌍용아파트 자리는 정확하게 중앙도자기회사 자리와 일치한다.

---

2) 레트로 블로그, 주안도자기, 2010.07.15.

“중앙도자기였다가 진흥요업으로 70년대 후반에 바뀌었어요. 여기 행사한다고 하춘화가 왔으니깐. 그 때 하춘화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왔었으니깐. 창업 행사였을 거예요.”

“화장터는 현재 쌍용아파트 앞쪽으로 화장터 굴뚝이 있었구요. 쌍용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 있는 데가 중앙도자기였다가 진흥요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있다가 나갔죠.”

### 중국인의 전담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이 되었고, 다음해 1884년 4월 조선은 청국과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청국조계가 설치되는데, 면적은 대략 5천 평 정도로 현재의 북성동 일대이다. 이후 청국인이 급속히 늘어나자 그들은 삼리채(싸리채) 인근까지 조계지를 확장해달라고 조선정부에 요청한다. 결국 1887년 조선정부도 이를 허용한다.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조선과 청나라 간 모든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청국조계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고 1914년 일본에 의해 조계는 폐지된다.

그러나 1948년 우리 정부가 이민규제정책을 도입할 때까지 중국인들의 유입은 계속되었다. 이유는 중국 내부의 사정 때문이다. 자



그림1. 쌍용아파트 전경 드로잉

연재해에 따른 경작지의 유실, 의화단 사건 등에 따른 화북지역의 혼란, 군벌정치의 폭정, 열강의 침략에 따른 약탈과 실업이 산동사람들을 물설고 낯선 이곳 한반도로 거처를 옮기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인이 유입되어 그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동화되어 갔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도화동, 송의동, 용현동, 독쟁이고개, 학익동, 신기촌까지 농사를 지으며 정착했다. 신기촌에도 중앙교회 뒤로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의 밭이었다. 이들 중국인들은 당근, 마, 양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인천의 근교원예농업을 장악하

고 있었다. 그러나 신기촌에 있는 경작지는 국유지와 사유지인 관계로, 1968년 신기촌에 마을이 들어서며 이들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중양도자기, 화장터 있는 데로 신비마을을 넘어다녔어요. 미원상사도 있었고. 공장이 화장터 이쪽으로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광명아파트 그쪽으로 논이 있고. 밭은 광명아파트 이후로, 지금 쌍용아파트 맞은편 농협 그 뒤쪽으로 다양배추 밭이 있었어요. 중국사람 땅이었어요.”

“이 동네에서만 51년 됐어요. / 이 동네에 사신지가 51년이요? / 네. 터줏대감이죠. / 여기가 주안동이죠. / 네. 주안7동. / 그럼 겪으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여기가 철거민 촌이었어요. 만석동, 송현동 이런데서 철거해서 넘어온 철거민 촌이었죠. 완전 시골이었죠. 그때는 다 밭이었고. 중국사람들이 전답을 했었죠. 밭, 논이요.”

### 신기촌에 마을이 들어서다

1965년 6월 24일 주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에서는 주안역과 신기사거리 사이를 상업지역으로, 주안역 북쪽과 현재의 신기시장 동편은 공업지역,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하였다. 이후 상업지역은 주안역에서 옛시  
민회관 사거리까지 축소되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신기시장 인  
근의 공업지역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하였다.<sup>3)</sup>

현재의 신기촌에 마을이 생긴 것은 1968년부터이다. 1967년 항  
공사진을 보면 신기촌 마을 위쪽으로 밭에 띄엄띄엄 집이 한 채씩  
보일 뿐이다. 그러다 동인천 쪽이 재개발에 들어가자 만석동, 북성  
동, 신흥동, 송현동, 송림동 등지의 철거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상  
대적으로 가격이 싼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이곳에 마을이 만들어질 때 구청에서 미군들이 쓰는 텐트를 하나  
씩 주고 헛가루로 10평씩 잘라서 나누어주었다. 집터가 워낙 작아  
개인화장실도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며, 초기에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공동수도가 2개 설치되어 물도 돈을  
주고 사먹었으며, 도로도 포장되지 않아 비만 오면 온 동네가 진  
창이 되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했다.

“옛날 서부동을 신기촌이라 그랬거든요. 저쪽 동인천 쪽 재개발  
할 때하고 이 재개발 이주민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걸 내보내  
고 헛가루로 10평씩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10평이

---

3) 도시마을생활사 【주안동】, 2017.11.20

예요. 그래서 옆집이 팔고 나갈 때 사면 스무 평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전부 10평씩이에요.”

“68년도에 동구에서 송림동, 북성동, 만석동 철거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왔어요. 그 때 저는 없었는데 바로 위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미군들이 쓰는 텐트 하나씩 지급하고 열평 씩 횃가루로 잘라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 집들은 전부 10평씩이에요.”

“여기가 68년도 철거민 정착지예요. 주로 만수동, 도화동쪽에서 철거민들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민들이 10평씩만 배정을 받아 화장실도 없이 살다보니 불편했어요. 철거민들이 살다보니 집값이 싸니까 세입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68년도에 여기 올 적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와서 69년도부터 전기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공동 우물에다 먹고 그러니까 여기 정착민들이 우리나라 팔도 주민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온갖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초창기만 해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신기촌 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술 먹고 싸움 질하는 동네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니 신기촌 하면 인천시내에서 다 알았어요. 험악한 곳으로.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개선된 거고.”

“여기 이 동네가 철거민 이주정착지예요.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색시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했던 그 동네에  
요. 인천이 그때 전국체전(1964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 같은걸 넓  
히면서 송림동, 신흥동, 만석동 이런 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여기 신기촌에다가  
동네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이 동네  
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새끼줄로 표시해서 10평씩 주고 통  
장 같은 사람들은 그걸 2개씩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송현동에  
서 살다가 송의동으로 이사 가서 살다가 청년시절에 여기가 집값이  
싸다 그래서 이사 왔죠.”

“말 그대로 여기가 철거민들이 오다 보니깐 하루에도 싸움이 10  
번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해가 지지 않았어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  
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그때  
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지고 파출소도  
들어오고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깐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  
힌 거죠.”

“도로는 이렇게 안되어 있고. 그전에는 10평, 20평 루핑이나 슬레  
이트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루핑은 이런 종이. 그러니깐 누런 시멘  
트붕지 양쪽으로 기름을 먹여서 썼던 종이. 비가 안 새잖아요. 기름

이 양쪽으로 있으니깐. 그런 걸로 지붕을 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이라는 것은 기와집.”

“어렸을 때는 진짜 시골이잖아요 시골. 주안동하고 신기촌 사이는 완전히 그냥 논밭이었잖아. 전부 다. 지금 로얄아파트 있는 자리니 전부다 논밭이었던데.”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두 군데서 나왔어요. 하인천 파가 있었고, 신흥동, 옥번동에서 나온 데가 있고. 저쪽 담길 저기 위에 6m 도로 있잖아요? / 신흥동에서 온 사람이 신흥아. 그 아래쪽으로 하인천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 / 나머지는 다 개인 개인이 들어와 집 짓고 살았지. / 그럼 여기 시장 건너편 도로 있잖아요. 시장 있고, 큰 도로 있잖아요. / 거긴 다 논이었어.”

“신기촌이라는 데가 원래 저기가 승기천이거든요. 의료보험 공단 앞으로. 그게 승기천이었어요. 그걸 따서 신기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지요. / 공단 앞거리가……. / 네. 그게 냇가가 없고 수로공사를 해서 지금 물이 연수동 남동공단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가 주안2 서부동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 2. 신기촌의 1970년대

---

1973년 중앙도자기회사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진흥요업주식회사에 넘어갔고, 신기촌 마을은 계속해서 각도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 1975년에는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 공식적으로 신기시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주민들이 늘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필요해 1978년에 인천남부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는 구도로를 따라 마이크로버스가 신기시장까지 들어왔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미추홀대로가 만들어지며 5번 버스가 들어오며 신기시장이 활성화된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의 아이들 놀이가 그렇듯, 신기촌 주변의 아이들은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랐다. 사미산에서 놀기도 했고, 승기천에 가서 물고기 잡기, 논에서 미꾸라지와 개구리 잡기, 겨울

이면 논에서 공차기를 하기도 했으며, 진흥요업에서 나온 깨진 그릇의 파편은 소꿉놀이 등을 하는 훌륭한 장난감이었다.

“그럼 거기 개인이 들어와서 집 짓고 자리를 잡은 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73~4년 됐을 거야. 우리 나오고 4~5년 있다가 였으니까 73년 됐을 거야.”

“그때 큰 건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게 지은… 한 3층이나 4층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택으로 조그만 집들이고. 다 10평짜리 되고. 집도 조금 크게 지었다는 건, 여기 차 다니는 신일다방. 거기 2층. 그제 길 넓다고 지은 게 2층, 3층 그런 것들이지. 제일 높이진 거는 저 쪽에… 지금 무슨 자리냐… 거기가 야채가게 지금 들어왔고, 옷가게 들어왔고. 거기가 제일 컸지.”

### **진흥기업(진흥요업)에 인수된 중앙도자기회사**

중앙도자기회사는 적자운영의 출혈 등으로 가동,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1973년 서울 진흥기업에 인수되면서 진흥요업주식회사로 개명하여 제품생산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수출용 접시류의 고급화를 위해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도 하였다. 중앙도자기회사를 인수한 진흥기업은 토목, 건설이 주요 업종이었다. 결국 진흥기업은 1992

년도에 주안8동 요업공장자리 1만 3천 평에 아파트를 지으며 주안의 특산품인 요업산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4)</sup>

그리고 1986년 항공사진으로 볼 때 진흥요업 자리는 1995년에 분양된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추측하건데 1978년엔가 공장을 대폭 확장했다는 말도 있고 1986년 항공사진에 진흥요업의 공장이 반듯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진흥요업이 중앙도자기회사를 인수한 후 확장공사를 하고 그 후 중앙도자기 자리를 쌍용건설에 팔고, 그 다음 1992년 진흥요업을 담고 진흥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중앙도자기였어요. 진흥도자기에서 진흥요업으로 회사가 커가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당시 중앙도자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철거민 비롯해서 토착민들도 전부다 거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쪽이 전부 뺄밭이고 논밭이었어요. 그 당시 여기가 유일하게 진흥요업이라는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도자기 공장에서(일해서) 생활을 하고.”

“우리 엄마가 80년대 초까지 다니셨으니까. 70년대 다니셔서 그래서 알고 있지. 애들이 많아서 할머니를 또 모시고 있었거든. 아버지 옛날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었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

---

4) 레트로 블로그, 주안도자기, 2010.07.15.

니까 엄마가 그 진흥요업에 다니셨던 거지.”

“옛날에 신기촌에 유입된 분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진흥요업에 다니면서 생활터전을 찾아 입주했던 사람들이 부흥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신기촌 자체도 3, 4번 바뀌었죠.”

“저는 그쪽에서 많이 살았어요. 진흥요업, 중앙도자기. 5일마다 중앙도자기가 월급날이었나 그랬어요. 요쪽 길로다는 시장이 남부상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신기시장도 쪽쪽 되어있고, 별로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예요. 나중에 중앙도자기 없어지고 진흥요업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진흥요업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 타면 시장이 좀 되고 그랬죠. 제주도 같았어요. 오히려 중앙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중앙로 지금 시티은행 맞은편 체육사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제주도 같이 외졌지요. 그런데 쌍용아파트 생기고 진흥아파트 생기고 하면서 여기 남부상가가 활성화가 되었지. 그래서 이 길이 그쪽보다 더 활성화됐지.”

“진흥요업(중앙도자기)이 3교대가 아니라 2교대로 8시부터 8시, 맞교대. 1, 2공장에서는 맞교대하고. 12시간씩. 식사는 한 끼 주고 잔업 할 때는 크림빵 주고. / 어떻게 12시간 일하면서 한 끼만 주고……. / 옛날엔 그랬어. 크림빵도 잘 준거지.”

“진흥요업 안다닌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 내가 거기 빵 납품했어요. 크림빵. / 빵 납품을 하루에 몇 개나 하셨어요? / 그때는 700~800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닌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한 10년을 한 거 같아요. 진흥요업으로 바뀌고 나서 납품했고, 거기가 없어지면서 가구점 운영했지. 거기만 했나? 주안5공단, 6공단에도 납품했지. 옛날엔 다들 간식들 먹었어요.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가 많았어요. 70~80%.”

### 변하지 않은 신기촌 마을

1970년대에 신기촌 마을의 집값과 집세가 싸다고 소문이 나자 인천에 사는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이주해 왔다. 그러다 보니 매일 술 먹고 이웃과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싸움질하는 동네로 인천에 소문이 나서 험악한 동네로 알려졌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집도 초창기에는 판잣집에 시멘트종이 양면에 기름을 먹인 루핑지붕과 슬레이트지붕이 주를 이루었다. 70년대도 역시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비가 오면 진창길이었다. 그리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관계로 리어카만 겨우 다닐 수 있었고 소방차는 들어올 수도 없었다.

“70년대에 내가 처음 올라오니깐 여기 수도가 공동수도가 2개 밖

에 없었는데 그래서 초롱 알죠? 함석으로 만든 물동이. 그 물동이로 2개. 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원이었어요. 한 지게, 두 통에 3원. 한통엔 1원 50전. 그래서 길러다 먹었어요. 여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물을 사 마신 거죠. 연탄 때고. 그리고 최고 화력은 석유곤로. 밥 같은 거 하려고 연탄불에 얹어놓고 왔다가 물 받으러 왔다 늦으면 밥이 다 타요. 그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많이 기다리면 4,50명 기다리죠. 그리고 낮에 안 밀릴 때는 몇 명씩 있고.”

“소방서 차는 골목에 못 들어가요. 딱딱 끊어지기만 했지. 지금도 소방차는 못 들어가요. 리어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뉘어서 재건축이 되다보니깐. 그때로 치면 지금은 명동거리지 여기가. 그전에는 루핑집이고 도로가 포장도 안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속된 말로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그랬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당시는 재개발이 안 들어왔으니깐. 나무 사다 때고, 주워다 때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울 때 였죠. 초기에는 많이 안 좋았죠. 이게 뭐 시골처럼 집성촌도 아니고 각지에서 모인 서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 싸우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니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산거죠.”

“여기 온 계기는 없는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집세도 싸고 시내에

서 전세금, 사글세 살 돈이면 여기서 전세를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누가 대성목재를 알선을 해줬는데 목재라는 말만 들었지 나무 자르는 기술도 없지만 거기 가서 노동을 했어요. 그 당시 송림동에서 샷월세(사글세)가 보증금 3만원이었어요. 다니다보니 동료들이 신기촌 가면 그 보증금이면 여기서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건데 여기 옛날부터 속어가 있어요. 신기촌에서 살려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다 보면 여기가 전부 논두렁이고 비가오고 개 울물 늘어나면 진짜 장화 없이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여러 동네서 이쪽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소스로 와갖고 말하자면 신기시장 올라가는데 있죠? 그 중심으로 좌우가 메인도로가 생긴 거죠. 맨 처음에 판잣집 개념이었다가 슬레이트였다가 현대식 기와였다가 시멘트, 말하자면 빌라 일반주택으로 바뀌었다가 빌라로 바뀌고, 슬레이트 전에는 판자. 판자촌에서 한국전쟁 때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죠.”

“여기가 다 천막집이었어요. 이쪽으론 전부. 저쪽 신기촌은 10평짜리 집. 68년도부터 10평짜리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천막집이 많았었어요? 이쪽 동네로는 전부 뭐라 그래요? 루핑

집도 많았고, 굴 파고 지은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판잣집이지.”

### 노점상으로 시작된 신기시장

신기시장은 문학산 언저리에서 농사짓던 아낙네들이 1970년대 중반 진흥요업(구 중앙도자기, 현 쌍용 아파트 자리) 정문 앞에서 푸성귀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다. 이 때만 해도 무허가 골목시장이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설비는 전무했다.<sup>5)</sup>

그러나 신기시장이 생긴 것은 훨씬 더 이전이다. 중앙도자기가 있던 시절,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수가 1천여 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1960년대에 노천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다 1975년에 공식적으로 신기시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상인들이 번영회를 결성했다.

“진흥요업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쪽이 농장이었어요. 그쪽 사람들이 푸성귀 같은 거 농사지는 거(가져다) 아주머니들이(팔았어요)… 진흥요업 후문 신기시장 앞에까지 초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파면 도자기 나와요. 그래서 진흥요업 정

---

5) 도시마을생활사 【주안동】, 2017.11.20

문으로 하나둘 생기게 된 게 신기시장이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내가 지금 설명한 중에서 지금 진흥요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초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후문이었다고. 진흥도자기 망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흥도자기였다가 진흥요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망루가 있고 후문이어서 쪽 신기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뻗어나갔죠.”

“공식적으로는 신기시장이 태어난 해는 1975년도라고 하는데 실은 훨씬 이전이에요. 처음부터 시장하자 하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일이십년 지나가지고 우리 번영회 만들자 해서 됐기 때문에 실시 시작은 십년 더 앞섰죠. 내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번영회 일을 계속 봤어요. 총무도 여러 번 보고 모든 직책을 다 봤으니까.”

“진흥도자기 후문 앞으로 그 때 당시 5번 버스 종점이 이 시장 한 가운데였어요. 가장 핵심이 버스 종점이 신기시장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버스가 다녔다는 자체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진흥요업 후문에서 5번 버스 종점 끝까지. 문학 선학 이쪽 여기 전부 논밭이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지은 거 뜯어다가 양쪽으로 놓고 팔기 시작한 게 버스 종점과 맞물려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 때 부터 시작했지만 정식으로 신기시장으로 등록된 게 75년도예요. 그

때 당시 하나둘씩 가게가 생겨서 번영회가 조직돼서 75년도에 등록 됐죠. 그 이외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면서 5번 버스 종점이 시티은행 앞으로 이사 갔다가 명보주유소 앞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은 인하대 후문으로 이사 갔죠. 5번 버스 종점이 4, 5번 밀려난 거죠. 시장이 발전되면서.”

“신기시장도 원래 시장이 아니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살다보니 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여기가 소방도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이 됐는데 지금은 엄청나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융자도 받고 지금은 재래시장 중에서 꼽히는 시장이 됐지만 원래 시장으로 된 건 없는 사람들이 조금조금 가져다 놓고 장사하다보니까 조성이 된 거예요. 그때는 마이크로버스라고 조그만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화장장 옆에 조그만 터가 있어 거기가 종점이었고...”

“시장의 변천은 합승이 들어오면서 조그맣게 하꼬방 식으로 포장치고 노점상이 생기고 동네가 형성되면서 삼성의원이라고 들어오고 약방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생선장사하고 야채장사하고, 동네가 형성이 되니까.”

“진흥요업 후문 신기시장 앞에까지 초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파면 도자기 나와요. 그래서진흥요업 후문으로 하나둘 생기게



그림2. 추석명절의 밤비 노점상 드로잉

된 게 신기시장이예요. 남부시장은 생긴 지 오래 안됐어요. 남부시장은 광성고등학교 이사장이 그 사람 땅이었어요. 거기 빨밭이었는데 업자들 시켜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남부시장이 제일 얼마 안됐어요. 신기시장 다음으로는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 오래됐죠.”

“68년도에 동네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자리가 버스가 들어오니깐 조그맣게 노점이 생기고, 조그만 미니버스가 들어왔어요. 합승이 25인승 같은 거. 그제 종점이 현 시장 주차장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길을 넓히기 전에. 지금 이게 45m

도로잖아요. 그 전에 조그마한 데까지 들어왔다니깐요. 이쪽이 다논이고 셋길로 들어온 거예요. 광성시장도 없었고. 광성시장이랑 남부시장도 다논이었어요. 그 차가 셋길로 해서 여기 입구까지 왔었어요. 지금 신기시장 푹말 있는데 거기까지 왔었어요.”

### 인천남부초등학교 개교

신기촌 쪽에 사는 학생들은 꽤나 멀리 있던 주안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녔다. 그러다 신기촌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1978년 3월 2일 공립 초등학교인 인천남부초등학교가 개교했고, 저학년들을 위해 당시 1~4학년까지 13학급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자 멀리 걸어 다녔던 저학년들은 가까이에 있는 남부초등학교로 옮겨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부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내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개가 70년생이야. 근데 개가 3학년 때 아마 그리 갔을 거야. 11살.”

“나도 거기서 걸어서 한 4~50분 걸렸던 거 같아요. 어린 나이에 걸어서 가니까. / 신기촌에서 주안초등학교까지요? / 네. / 꽤 되죠. / 그 때는 길이 큰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했어. / 논길로 다니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주안초등학교까지 15분.”

“아무튼 모든 동네가 차가 들어가야 동네가 형성이 되고 한 거죠.

길이 뚫리니깐 남광로알아파트가 생기고 남부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주택도 생기고 동네가 형성되고 유성각이라고 중국집도 있고 그랬어요.”

### 버스가 들어오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았기에 비포장도로 위를 달린 것이다. 눈 한가운데 길을 낸 것인데 잡석을 깔고 불도저로 민 비포장도로이다. 버스가 들어온 길은 주안사거리에서 금성연마를 거쳐 징검다리를 건너고,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로 해서 신기촌으로 들어왔다. 버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처럼 누구나 타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보통 1시간 거리 정도는 걸어 다녔기에, 급한 일이나 짐을 싣고 오는 사람들과 멀리 등교하는 중고생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했다.

1970년대 중반 들어 주안 일대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포장공사가 진행된다. 이때 주안역에서 신기촌까지 직선으로 뚫린 미추홀대로가 개통된다. 그래서 이 길로 5번 버스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종점이 신기시장 앞이었다. 그러다 종점이 시티은행 앞, 명보주유소 앞, 인하대 후문으로 옮기게 된다. 버스 종점의 이동을 통해 그만큼 유동인구가 급속하게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네가 형성되면서 합승이 주안사거리에서 셋길에 금성연마라고 있는데(지금은 없는데) 그 셋길로 해서 똑방 타고서 이 시장 앞으로 왔어요. 그렇게 합승이 다니다가 주안역 시민회관에서 중앙도자기 오는 길, 지금 가스충전소 그 길이 뚫리면서 5번 버스가 다니거예요. 그 길이 조금씩 늘어나서 5번 종점이 지금 명보주유소 있는데였어요. 그 버스가 처음에는 신기시장까지 왔고 지금 시장 순댓국골목 있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신기시장은 아니고 원 구도로는 주안사거리부터 해갓고, 이것도 말하자면 논 한가운데 길이었는데 불도저로 밭 한가운데다 닦고 나가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석들 돌을 깔아서 도로 만들고, 신기촌 형성되면서 5번 버스가 주안사거리 쪽으로 해갓고 금성연마라고 있었는데 그리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인가 그 앞쪽으로가 구도로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게 저 쪽 신기촌까지 가는 길이었던데요. 이렇게 S자 형태로 갔던 부분인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기 논 한가운데를 매립하면서 거기까지 연장한 거예요. 신도로 개넘이지. 그래서 신기시장 입구가 5번 버스 종점이 됐잖아요.”

“주안사거리 있는데 여기가 중앙극장 자리고 여기가 제일시장 수도사업소가 여기 있었고 진흥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이거 엄청 오래돼서 나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이 길이 쪽 넘어와 갓고

신기촌으로 가는 길이 도로였어. 이게 하나, 그리고 도로가 없었어. 지금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그 직선 도로 있잖아요. 그건 아예 없었거든. 그때 유일하게 다닌 버스가 5번 버스가 다녔다고.”

“지금 시장 자리가 버스가 들어오니깐 조그맣게 노점이 생기고, 조그만 미니버스가 들어왔어요. 합승이 25인승 같은 거. 그게 종점이 현 시장 주차장 들어오는 데,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길을 넓히기 전에. 지금 이게 45m 도로잖아요. 그 전에 조그마한 데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이쪽이 다 논이고 셋길로 들어온 거예요. 광성시장도 없었고. 광성시장이랑 남부시장도 다 논이었어요. 그 차가 셋길로 해서 여기 입구까지 왔었어요. 지금 신기시장 풋말 있는 데 거기까지 왔었어요.”

“특이한 거는 이 동네 그때 당시 마이크로버스가 여길 들어왔고, 이 길이 뚫리고 차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그맣게 형성이 된 거죠. 신기시장은 그때 된 거고. 마이크로버스도 없어지고. 마이크로버스 때는 옛날 농로길(작은 길)로 차가 다녔고, 70, 71년도에 도시계획이 돼서 시민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오는 길이 뚫리고,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인하대 가는 길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가 원래 삼거리예요. 이쪽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터미널 가는 길도 생겼고.”

“시장은 버스가 맨 처음 거기로 오다가 두 번째 버스 종점이 어디였냐면 고인돌 있는 데 지금은 없어진 경기은행(시티은행)자리 그 자리였어요. 5번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다가 그게 조금 늘려서 명모주주로 가고, 명모주주에서 학익동 나가는 길, 그게 재운사거리까지 뚫리면서 다 뚫리고 동네가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 어렸을 때 놀던 추억

1970년대까지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놀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가난했기에 장난감 같은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 신기촌의 아이들은 사미산에 가서 뛰어놀거나 논에 가서 미꾸라지나 개구리를 잡기도 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승기천 다리 밑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여자아이들은 진흥요업의 깨진 그릇 집하장에 가서 소꿉놀이 조각들을 주워서 놀기도 했다. 그리고 겨울에는 논에 벼를 베었기에 논바닥에서 공을 차고 놀기도 하며 날가리 속의 짚을 몇 개 빼어내고 아지트로 삼아 추위도 피하고 아이들만의 비밀스런 공간을 갖기도 했다.

“가끔 세미산(사미산)도 가서 노시고? / 세미산(사미산)이 가까우니까 문학산이나 승기산보다 가까우니까. 사이렌 울렸죠. / 그거 기억해요? 4시 50분. 그 다음에 5시. 꼭 그 시간 되면 울렸잖아. / 다

들렸지. 나는 여기 세미산(사미산)에서 놀다가 네 시 오십분에 올잖아. 그러면 얼른 집에 가야지 그때 맞춰서 이제 집에 가자 이려고서는 애들 데리고 갔어요.”

“인주대호가 복개한 거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서 미꾸라지도 잡고 그랬어요. 수봉산 팔부능선 쪽에 원천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승학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그전에 수봉산에 물이 많았어요. 천이라기에는 뭐한데 수로개념에다 천하고 복합된 개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거기(승기천) 냇가 나가서 고기 잡고 논에 가서 개구리 잡고… 주안초등학교 나도 신기촌에서 걸어서 한 4~50분 걸렸던 거 같아요. 맨날 그거 저 학교 갔다 오면은 겨울에는 논바닥에서 공차고 그리고 저 봄, 여름에는 냇가 나가서 놀고 봄 모내기할 때 거기 우리 외갓집이 논이 많았거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그제 놀이문화죠.”

“다리가 몇 개가 있었는데 무서워서 잘 못 다녔어. 어렸을 때는. / 그리고 여름에 놀 때는 다리 밑이 그늘졌으니까 거기서 놀다가 신발도 떼내려가고. / 맞아요. 거기서 많이 놀았지.”

“신기시장하고 진흥요업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시장고 뒤에 허름한 판잣집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판자촌 뒤에가? / 돌

산. / 응, 진흥요업에서 나온 깨진 그릇 집하장이잖아요. 거기서 소  
꿍놀이할거 골라서. / 타이루 주워갖고, 멀쩡한 것도 있으니까.”

“겨울에는 논밭에서 노는 거야. 밭에 작물 없고 그러니까 논밭에  
서 공차고. / 그 저기 뭐야? 학교 가려면 겨울에 날가리 쌓아놨잖아  
요. 그 날가리 속에 들어가서 놀아 봤어요? / 겨울에 공차고 그러면  
은 거기 짚 몇 개 빼 갖고 그 안에 아지트를 짓는 거지.”

### 3. 신기촌의 1980년대

---

남부초등학교(초등학교)가 1978년 설립되고 이곳으로 편입해 다니던 학생들이 1981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1981년 7월 1일자로 승격한 후 주안동 일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주안남부초등학교 설립 이후 인천 최초의 맨션인 남광로얄아파트(1443번지, 1980년 준공), 남광로얄(1441번지, 1981년 준공)로 입주민이 들어오고 이 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과 상가가 들어서며 동네는 급변하게 된다.

#### **늘어만 가는 주민들에 또 다시 분동**

점차 많아진 주민들로 인해 인천주안북초등학교를 1983년 10월 29일 개교하게 되고, 결국 1985년 11월 주안7동은 8동으로 분동 되

어 1987년 5월 주안8동사무소 청사를 신축 설립하게 된다.

이후 1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해외 수출까지 하면서 신기촌 주변을 활기차게 했던 진흥요업은 1987년 몇 십 년 지켜왔던 신기촌을 떠나자 그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되어 많은 입주민을 받아들인다.

도시개발 이후 신기촌 일대도 집장사들이 많아지면서 살던 집을 팔고 외부로 이사 나가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낡은 건물은 새롭게 올려져 길가엔 상가동을, 길가 안쪽으로는 빌라동으로 지어져 신기촌 주변을 변화, 확장시켰다. 신기촌 일대는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 입주민들이 많아지면서 1989년 1월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주안 8동은 주안 4동의 1개 반을 인수 받게 된다.

“그때 우리는 여기 다 동양장까지 주안3동이었어요. 82년도에 7동으로 분동되었어요. 초창기에 동장님한테 상을 받았지. 한명옥 동장님이었어요. 7동으로 와서 8동으로 분동 된 거예요. 그때는 주안3동, 서부동이라고 했어요. 주안3동 때부터 분동이 돼있었어요. 다음에 주안7동으로. 그때 중앙도자기, 쌍용아파트 지어질 때 분동되었어요.”

“한신아파트에서 살 때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 서구 가좌동 미나리깡 있는데 입주권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신기촌에서 뿌

리박혀 살아서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서 저 입주권 대신 1,000만원만 주세요~ 했어요.”

“주안3동부터 7동, 8동 이렇게. 여기 큰길 아랫길을 3지구라 그랬어. 여기가 예전에 논밭이었어. 겨울에 얼면 스케이트 타고 그랬지. 그때 세워진 집들이 단독주택들이었어. 거의 1층 단독. 아직 있는 것도 많지만 빌라들도 많지. 재건축이 많아. 살던 집도 빌라됐는데 뭐. 구획정리되면서 길도 넓어지고. 옛날에 화장터가 여기 있었어. 화장터 자리가 길이 난 거야. 화장터였을 때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판잣집들 짓고, 다 살았어.”

## 4. 신기촌의 1990년대

---

### 이동수단 버스와 환경개선지구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1991년도에 버스가 동네로 들어왔다. 그 버스는 신기촌 일대 사람들을 동인천 방향과 부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처음의 종점은 지금의 신한은행자리에 있다가 두 번째 종점은 지금은 없어진 경기은행이 있었던 곳까지 들어왔었다. 그러다가 운행구간을 조금씩 늘려 지금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있는 재운사거리를 지나서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동네가 변하는 건 길이 뚫리고, 운송수단이 바뀌고 그러면서 동네가 발전한다. 신기시장의 발전 또한 넓은 길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제일의 시장이 되었다.

1997년도부터 환경개선지구가 된 신기촌 일대는 10평, 20평짜리

집들을 대다수 재건축하게 된다. 당시 이곳은 90%이상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해 안가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옆집하고 합의만 잘하면 담을 같이 붙여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 건폐율을 최고 99%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가능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 밀집지역은 당연히 주차난이 심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개선지구로 되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골목길도 넓혀 이면도로를 만들긴 했지만 이웃과 협의로 지어진 주택들이 한 돌이 아니기에 소방차는 여전히 골목길로 진입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큰 문제로 남아 있다.

## 5. 신기촌의 2000년대 이후

---

### 여전한 신기시장 주변

2000년 중반쯤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가속화 되면서 신기시장에도 모자라는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게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신기촌 주변으로 늘어난 인구밀도를 감당할 재간이 없는 노후 된 수도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범람하는 오수로 도로 위를 메우게 했다.

“제가 가게 오픈했을 때는 아이들 관련 업종이 많았어요. 유아용품이라든지 아동복이라든지 문구점도 지금은 저희밖에 없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가게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적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살고……. / 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니까 그런 게 있겠죠. / 주변 분위기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분위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옛날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과 엄마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하니까 유대관계보다는 실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 재개발이 만든 골목집

2000년대 재개발·재건축 붐은 마을마다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잘못된 인식의 불씨는 신기시장 주변에도 찾아왔다. 하지만 신기시장 주변은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단지 단독주택 한두 채를 합쳐 빌라 한 동을 짓고, 그 옆에 한두 채를 더 헐어 빌라 한 동을 더 짓고 그렇게 넓혀져 빌라 단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좀 더 그럴듯한 건물이라 하면 작은 10평짜리 집 몇 채와 빌라 서너 개동, 혹은 주택 서너 채가 합쳐져 우뚝 솟은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선 것뿐이다.

“여기 활성화사업 할 때 재개발 할 때 남구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가 10평씩이라 솔직히 10평이면 한식구가 살기 어렵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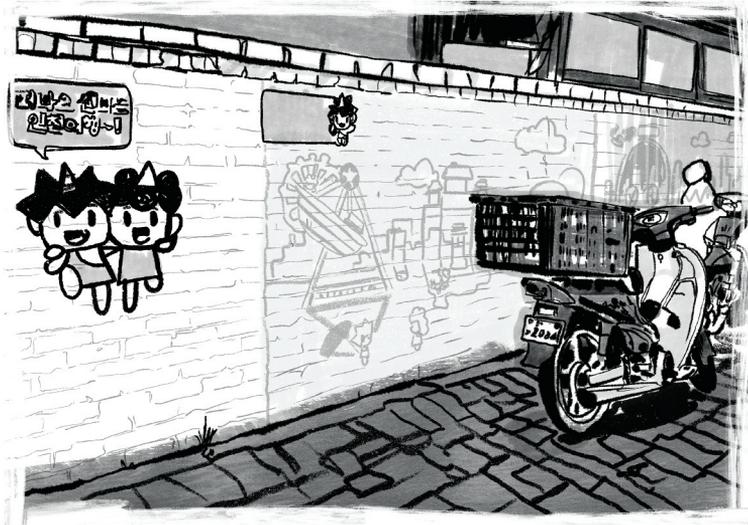


그림3. 신기촌 골목길 풍경 드로잉

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땅을 지금 집을 짓게 되면 길을 내놓고서 짓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10평 다 지어라. 1층이고 2층이고 그렇게 허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10평짜리들이 빼쪽 3층씩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여기 골목이 참 묘한 골목이에요. 이건 지금에 와서 재개발하기도 어렵고…….”



오늘 하루만  
못쓰는 그릇  
망은 그릇  
후리여 패트  
스텐 그릇  
교환합니다

무조건  
낡은

미추홀, 살아가다  
안녕? 신기촌 사람들

오늘하루만  
추석명절  
왕창새일

안녕,  
신기촌

1. 신기촌에 특별한 변화
2. 신기촌 역사 속에서
3. 신기촌의 미래를 읽다
4. 마을에서 희망을 보다

스텐  
X35000

# 1. 신기촌에 특별한 변화

---

## 마을금고 설립과 새마을 운동의 연계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향약·두레 등 마을 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 사업, 공제 사업 등의 생활 금융과 문화·복지·후생 사업, 지역 사회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의 금융 협동조합으로 결성된 마을금고는 1966년부터 재건 국민운동 중앙회에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여 하였고, 그 후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에 의거 부실 금고를 정리하고 1982년 「새마을 금고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새마을 금고’로 명칭을 바꿨다.

마을금고에 관한 특별법으로 「신용 협동조합법」(법률 제 2338호)이 1972년에 공포됨으로 도시 새마을 운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적극 지원·육성하였다. 그 후 1978년 모든 단위의 금고 명칭을 '새마을 금고'로 통일하고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새마을 정신의 상징으로 운영, 마을 수준의 척도, 주민 소득의 원천과 협동의 모체로 만들었다. 당초 새마을 금고는 신용협동조합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1970년대 이후 이곳 신기촌에도 마을금고 바람이 불어 마을 유지들이 합심해서 마을금고를 만들고 지역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금고 창업이라고 하면 과도한 거고, 우리 동료들이 협심해서 마을금고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마을금고를 동사무소에 적을 두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출자금을 받아서 마을금고를 결성을 했는데 마을금고를 지금 이 건너편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주가 현덕수 씨라고 그 당시 이 동네 재벌가였어요.”

“그 분을 이사장으로 모셔놓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당시는 제가 구의원이라고 통장이었기 때문에 통장들 자율로 해서 각 통마다 마을금고 구좌를 만들어 설립을 했어요. 그 양반이 초대 이사장으로 앉고 우리는 이

사로 있으면서 육성을 하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때 대형마트가 들어왔잖아요. 대형마트를 할 적에 우리 그 신기 마을 금고에서 그 분이 금고를 이용해서 구판장을 만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새마을금고 처음에는 파출로 시작해서 걸어서 시장 전체를 수금을 하고 다녔지. 그때가 82년. / 그러면 리어커로……. / 리어커는 나중에 생겼어. 처음에는 가방 하나 메고 도보로 다녔지. 토요일이면 가방을 집으로 들고 갔어. 나 혼자 집으로. 일요일엔 노니까. 우리 집에도 가지고 갔다가 장롱에 넣었다가 월요일에 입금 시키고 그랬어. 그 시절엔 그랬어. 나중에 전동차가 생겨서… 전동차도 늦게 생겼어. 그 다음엔 내가 자전거를 탔어. 자전거를 타고 3,7,8동을 다녔어.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 오토바이로 수금을 다니다가 프라이드 왜건 하나를 사서… 주안 3동 새마을금고 분소장을 만들어서… / 그게 몇 년도? / 90몇 년도? 83년 입사해서… 분소장까지 하고 주안3동 명부주유소 옆에 분소가 하나 있었지. 그게 안되서 폐쇄되면서 명퇴를 하게 되었죠.”

## 2. 신기촌 역사 속에서

---

### 신기시장의 변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신기시장은 당시 진흥요업에 다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랄 것도 없었다고 하니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자신의 집 앞 마당이나 작은 텃밭에서 키운 배추, 무, 시금치 등의 푸성귀를 내어놓고 판 것으로 추측 된다.

신기시장은 1987년 신기시장으로 정식 승인을 받고 2005년 인천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후 지금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거듭났다.

신기시장 주변은 쌍용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진흥아파트, 우진아파트 등의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의 빌라동, 공동 주택과 그리고 단독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있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으며, 생필품과 농수산물 등을 파는 소매 점포가 주종을 이룬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있는 시장이다.

최근 신기시장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치형 지붕을 씌우고, 화재 대비책으로 자동 개폐 장치, 무인 카메라, 무인 화재 탐지기, 소화전 연결 살수 장치, 화재 방송 설비, 자동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한편, 공동 물류 창고를 마련하여 물류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신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시장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시장 청소를 하고, 포인트 카드제 운영, 가격 표시제 실시, 전자결제, 예술 무대 등 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기촌은 당초 주안 2서부동이 주안 3동과 주안 7동으로 분동되고 주안 7동에 인구가 많아져 다시 주안 8동으로 분동 되었으리만큼 거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곳이다.

이렇게 크게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병원과 약국이 들어오고 다양한 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시장을 더 크게 확장시켜 지금은 신기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을 하나의 이름, 신기남부종합시장으로 총칭하고 <신기문화관광시장>으로 도깨비야시장을 개장

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진흥요업 후문 신기시장 앞에까지 초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파면 도자기 나와요. 그래서 진흥요업 후문으로 하나둘 생기게 된 게 신기시장이예요. 남부시장은 생긴 지 오래 안됐어요. 남부시장은 업자가 땅을 광성고등학교 이사장이 그 사람 땅이었어요. 거기 뺄밭이었는데 업자들 시켜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남부시장이 제일 얼마 안됐어요. 신기시장 다음으로는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 오래됐죠.”

“68년도에 동네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리가 버스가 들어오니깐 조그맣게 노점이 생기고, 조그만 미니버스가 들어왔어요. 합승이 25인승 같은 거. 그게 종점이 현 시장 주차장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길을 넓히기 전에. 지금 이게 45m 도로잖아요. 그 전에 조그마한 데까지 들어왔다니깐요. 이쪽이 다논이고 셋길로 들어온 거예요. 광성시장도 없었고. 광성시장이란 남부시장도 다논이었어요. 그 차가 셋길로 해서 여기 입구까지 왔었어요. 지금 신기시장 푯말 있는데 거기까지 왔었어요.”

“그때(82년도 4월)부터 장사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았고, 이 동네가 형성되면서 합승이 주안사거리에서 셋길에 금성연마라고 있는데(지금은 없는데) 그 셋길로 해서 똑방 타고서 이 시장앞으로 왔어요. 그렇게 합승이 다니다가 주안역시

민회관에서 중앙도자기 오는 길 지금 가스충전소 그 길이 뚫리면서 5번 버스가 다닌 거예요. 그 길이 조금씩 늘어나서 5번 종점이 지금 명보주유소 있는 데였어요. 그 버스가 처음에는 신기시장까지 왔고 지금 시장 순댓국골목 있는 데까지 들어왔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그 버스가 중앙도자기로 해서 인하대가는 길이 뚫린 거죠.”

### 비하인드 스토리

오래 전 십대 시절 신기촌에 살았던 적이 있다. 신기시장에서 버스 내려서 진흥요업 지나서 집을 가다보면 다 논이었다. 걸다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개굴개굴 요란하였고 남자애들이 돌을 던지면 개구리 울음소리는 조용해졌다. 신기시장에서 통학하기 위해 버스타려면 신기시장 언덕 위까지 줄을 길게 서야했다. 그때는 버스도 40분 간격으로 다녔던 것 같다. 그래서 통학하는 시간대에 못타면 발을 동동거리며 지각할까 불안해했었다.

학교를 졸업 한 후 취업준비를 할 적에, 진흥요업에서 디자이너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디자이너로 취직하려고 회사에 방문했다. 자리가 없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관계자 분께서 “다 충원됐다!” 며 서울 이태원에 신일전기회사에서 올해 처음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거기 가보라고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주며 친

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진흥요업사원이 참 친절한 사람이란 기억이 아직도 있다. 몇 년 후 결혼할 때 예물로 그릇이 맘에 들어 선택했는데, 뒤를 보니 신일도자기였다. "LEEHAUS"란 이름으로 디자인이 획기적이고 오래 써도 모양과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지금도 쓰고 있다. 지금 봐도 시대에 밀리지 않는다. 내 생각인데, 신일에서 처음 생산하는 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 신경 쓴 것이 느껴졌다. 신일도자기는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진흥요업은 자료도 없고 기억에 남는 제품들도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친절이 넘치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으니, 이 글을 통해서 진흥요업의 이야기가 기록되면 좋겠다. - 한선화 (65년생)

을 아들이 97년에 태어났으니깐요. 그전부터 신기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관교한신아파트가 안국아파트였을 때 88년도 11월 초에 이사 왔지요.

그때는 신기촌 시장보다 석바위시장을 갔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희망백화점 셔틀버스타고 희망백화점에서 배달시켰어요. 들고 오기 힘들어 3만원 이상 사면 배달해줬거든요.

신기시장을 이용했던 건 98년 정도부터 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노점도 많았고 시장에 다양한 가게가 있었

어요. 전집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99년 시택 제사를 모셔오면서 자주 이용했네요. 아주머니가 다정하셨고요 맛깔스럽게 다양한 전을 직접 만들어 파셨네요. 지난 금요일 들러보니 이젠 알바생이 낮에 나와 판매하고 있었네요. 입구에 오래 다녔던 반찬가게는 청과물가게로 바뀌어져 있고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보러 다녔네요. 안국아파트를 지나 지금은 없어진 우전아파트 문을 지나 언덕길을 따라 내려오면 지금 진흥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쪽문 쪽 셋길로 내려오게 되지요. 허허벌판이었던 안국아파트 주변에 신비마을이 들어서고 그 앞길로 마을버스 515번이 처음 다녔고요 진흥아파트가 들어서더니 그새로 빌라들이 들어섰네요. - 백목련 (61년생)

남부상가가 옛날에 논이었어요. 남광로알아파트 자리도 전부 논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우리가 이 도로 통장하면서 동네일을...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당시는 개발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개발위원회 동정자문위원으로 바뀌고,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동네가 비포장도로고 도로도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모금도 하고...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그 선에서 그냥 한 거죠. 누가 인정해주는 사

람도 없고 인정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아는 사람은 알아도 다 예전 사람들이고 돌아가 지금은 생전에 없고. - 박옥균 (37년생)

7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 데 당시 10세 가량 되었던 나는 골목길에 나가 놀기를 즐겨했다. 여름방학이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까치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 종일 놀다 오거나 조금 커서는 돌산이라는 곳을 찾아가 놀다 오곤 했다.

까치산 가는 길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야하는 데 논 보다는 밭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난다. 그 밭을 지나가려면 오이, 가지, 호박 등이 눈에 들어와 어린 맘을 흘렸다. 그러면 우린 주인 몰래 그 야채, 채소 등을 따 먹으며 까치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

돌산을 올라갈라치면 집에서부터 한참을 걸어야만 했는데 올라가는 길이 하도 험해 가끔 발을 다치기도 했다. 그 돌산에 올라가 바라보면 인천 앞바다가 흰히 내다 보여 마음속까지 시원하였다. 돌산에 갔다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앓아누웠는데 알고 보니 더위를 먹어서 그런 것이었다. 돌산을 다녀와 어지럽다고 누워 있으면 할머니께서는 항상 머리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 놔 주셨다. 당시 유년시절 놀던 까치산과 돌산의 기억은 지금에 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있다. - 조영숙 (63년생)

### 3. 신기촌의 미래를 읽다

---

#### 지금 시장의 문제점

시장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계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 지역이 되려면 현재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장 안팎의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높다. 이를 낮추는 것이 바로 미래를 살게 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의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임대료는 부담감을 넘어서 큰 압박으로 온다.

“건물주가 상인회를 들어와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상인회를 해야지 건물주들은 상인회가 안 된다고 하니깐. 그래서 그걸 끌어내야 해요. 내 생각에는 건물주

인도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상인회를 들어와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해요. 상인회 말고 그 윗 단계인 상인회의 이사로라도 해서 뭔가 하나를 구성을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 시대 변화에 맞서야

신기촌은 옛날에 어렵게 지내왔던 생활고 때문에 좋지 않은 인식이 뇌리에 남아있어 신기촌이라 불리우는 단어가 싫을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제 3자의 시선으로 오래된 역사와 함께 찬찬히 밖에서 바라 볼 때는 정이 많은 곳이며. 모든 생활의 원천을 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마을 일을 위해 물신양면 노력한 어른신들과 지금도 마을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 신기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잔함도 시대와 함께 묻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신기촌 일대를 돌아본 사람들은 안다. 도로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이곳이 인천 원도심의 처음이고 그리고 끝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걸.

신기촌의 자그만한 집들을 어떤 방식으로 변모하게 할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을 느끼며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 핵심 도시가 될 꼭 필

요한 전통시장이 바로 이곳 신기촌이길 바라본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지금의 생활사가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져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자료로 남겨질 '마을지 작업'의 현재는 미래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돈 좀 벌면 밖으로 다 나가고 아파트 사갖고 나가고, 없는 사람만 찾아오고 있던 사람은 못 벗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뭐라 그럴까 생활인식이 좀 저조하다 그럴까 사실 한마디로 유능한 사람은 안 오려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살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차라리 재개발해서 고생한 김에 했으면 그 당시 사정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가니까 걸만 번지르르하지 안에 안 들어가 봤죠? 상가 안쪽, 이 도로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그렇구나 하지.”

“신기촌 말만 신기촌이지 지금은 우리가 신기촌이라 안 그러고 주안7동이라 불러달라고 하지…….”

“다닥다닥 이웃이 붙어살다 보니까 인정도 많고 행사 때 나가면 단합도 잘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끼리 합쳐서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냐는 말씀처럼 건물을 올리자는 말씀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주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도 10평짜리 세 사람이면 30평이 되지 않습니까? 3층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10평이 아닌 30평에 사는 꼴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 욕심에 나는 1층에 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대신 차등을 두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집이라도 모델로 해보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잘 안됐고요.”

“지금은 더 힘들지만 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평수대로 다 올릴 수 있으니까(지금은 공지비를 빼고 하면 안 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지금은 다세대 주택보다 편하고 좋지요. 문제가 무엇이 뒤따르냐 하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요즘은 차 없이는 못살잖아요. 10평집에 사는 사람도 차 한두 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주차 공간이거든요. 이쪽엔 주차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옮겨도 봤는데 여러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구에서는 주차공간보다 녹지 휴게소 이런 거… 7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장보다는 쉼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쉼터는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7동도 한군데가 있는데 이웃 사람 몇 대밖에 못 대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구밀도가 낮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뉴딜사업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밀집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 같아요.”

“빈 공간도 없고 공간이 있다면 국유지 같은 데가 몇 곳 있는데 그것들은 개인이 점유해서 쓰고…….”

“국유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공유지로 공동체 모임 등으로 쓰면 되죠.”

“지금 동사무소도 굉장히 좁잖아요.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결국 개인이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동사무소 뒤에 있는 높은 건물이에요. 그 후로도 통일상가를 매입하려고 그거 안 되면 자수정 목욕탕 그거해서라도 동사무소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됐어요. 고민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렵겠어요. 동인구가 줄어가니까 통폐합을 하자, 동사무소를 중간지점에 짓자는 안도 세웠는데 그것도 동끼리 안 하겠다 그런저런 일로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욕도 없어지고 나이도 있고 특별히 해야 한다는 직함도 없는 사람이고 나섰다면 주민들한테 욕만 먹을 판이고 가능하다면 지금 구의원들에게 재촉도 하겠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선거구역이 넓어가지고 주안2, 3, 4, 7, 8동이 한 구역이 돼서 구의원이 3명이에요. 그 분들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잘되기를 바랄 뿐이지 선봉에 서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이요. 만약에 시설을 만들기 힘들면 시장 근처만 허용해준 다던지 구청에서 생각해주셔야 할 거예요.”

“시장 부근이면 노상주차…….”

“지역상인들 살려 줄 거면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 4. 마을에서 희망을 보다

---

### 대안공간 <듬> 과 <꿈>

대안공간 <듬>(이하 ‘듬’)은 2014년 12월에 ‘대안공간듬’으로 시작한 문화공간으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7동 신기시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듬>은 7평 남짓한 전시공간으로 주로 시각예술 전시와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듬> 바로 옆에 비슷한 크기의 작업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공간을 <꿈에 들어와>(이하 ‘꿈’)라고 부르고 있다. <꿈>은 작업실과 교육장소, 그리고 스튜디오 등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영화상영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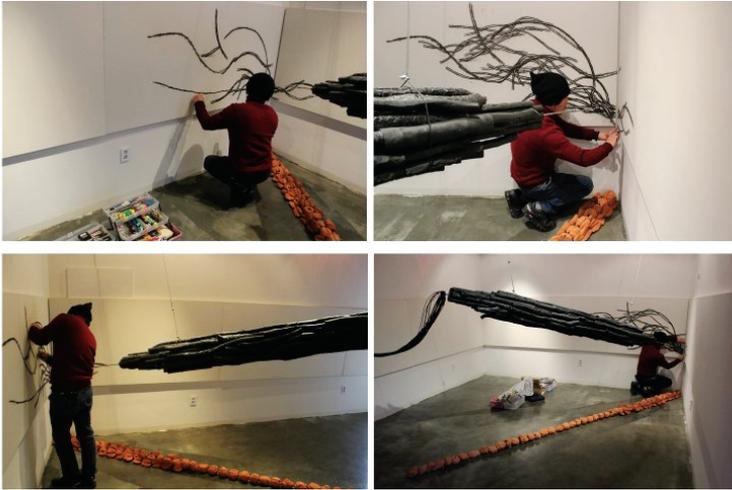
2014년 12월 개관전을 시작으로 2015년 작가들의 개인전 및 프로젝트,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해 온 <듬>은 2016년에는 지역 대학 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로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곳 <듬>은 지역의 젊은 작가 지원 사업인 '바로, 그 지원'의 작가들에게 장소를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2017년은 한 해 동안 '꿈'을 주제로 12명의 작가가 매달 자신이 경험한 '꿈'을 기록하여 각자의 꿈을 공유하는 릴레이 전시를 진행해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을 통해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이 거리낌 없이 토론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 예술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듬>은 개관 당시에 전시위주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기 보다는 전시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꿈>은 처음 카페에서 작업실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전시 외에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공간<듬>과 <꿈>은 점차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에 더 많은 집중을 하여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들이 예술이란 영역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가까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전시 작업 사진 1 (사진 출처/ 대안공간 뚝)

대안공간 <뚝>의 운영은 윤대희(회화작가)가 대표로 있으며 주위에서 항상 같이 일을 도와서 해주고 있는 최바람(전(前)대표) 설치작가, 그리고 <뚝>의 신미선(문화활동가), 차기울(인천대학교 교수, 설치작가) 이렇게 4명을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은 많이 있다.

그동안 <뚝>에서는 2017년 프로젝트 전시 '꿈' 12명(작가 매달 릴레이), 2018년 프로젝트로 전시 '지역의 젊은 작가' 4명을 진행하였으며, <꿈>에서는 2018년에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글방 운영(엄마를 주제로 글로

소책자발간)과 먹거리 나눔 (주변 어르신에게 담금주 나눔)을 진행하였다.

현재 <듬>은 전시공간, <꿈>은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 분야를 확장하여 전시는 물론 음악, 공연, 마을공동체 활동 등도 진행해 구분 없는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뮤지션 이

권형의 공연과, 그동안 음악회, 공연 등 간간히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참고한 ‘윤대희의 드로잉북’을 계획하고 뮤지션과 관객들의 소통을 위한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동네 혹은 지역이 기억해야 할 풍경들을 기록하는 ‘동네지도 만들기’를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

대안공간 <듬>과 <꿈>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하게 될



전시 작업 사진 2  
(사진 출처/ 대안공간듬)



〈주안7동 해체 후 공원이 될 공간의 중심 골목길 (사진 출처/ 대안공간 둠)〉

많은 지역민들이 찾아와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사이트를  
기재해둔다.

<http://cafe.naver.com/daggdum>

<https://www.facebook.com/daggdum>

[https://www.instagram.com/space\\_dum](https://www.instagram.com/space_dum)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69번길 22

연락처 : 032.259.1311

## 예술동아리 <찾아가는 행복연주단>

주안 8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흥락 단장은 2013년 미추홀 아코디언 <찾아가는 행복연주단>을 기타 4명, 색소폰 2명, 가수 2명, 민요 6명과 아코디언 6명, 총 인원 20명의 단원으로 예술동아리를 결성하였다.

100세 시대 젊음이 부럽지 않은 시니어들로 구성된 이 예술동아리의 연령층은 60대 후반으로 미추홀구는 물론 인천 전역을 찾아가는 공연 봉사를 펼치고 있다.

벌써 5년째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예술동아리는 언제든 공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시 연습을 하며 정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커다란 행사인 부평풍물축제, 주안미디어축제, 남구평생학습축제 등 이름난 행사와 그 밖의 부평아트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예술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곳이면 찾아가 공연봉사를 하고 있다.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공유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예술동아리의 앞으로 계획은 인천 158개의 경로당을 찾아가 공연하는 것이며, 연습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한다. 아직 마땅한 연



찾아가는 행복연주단 공연 사진

습 공간이 없어 서구까지 찾아가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공간이 없어 합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함께 모여 공유하고 나눌 공간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이 예술동아리〈찾아가는 행복연주단〉의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합주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되길 바래본다.

### 마을공동체 활동 단체

“통두레”는 인천 미추홀구의 마을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모임이 시작되어 현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로 해결해가는 모임들을 통칭한다. 이런 마

을공동체 모임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겨날수록 활기찬 마을, 행복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신기촌 일대는 2018년 7월 현재 14개 통두레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안2동 마을공동체**

- 공한지 통두레(주안1구역 치안 및 주민소통)
- 은행나무 통두레(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텃밭 조성 및 수확물 이웃 나눔)
- 양지계마을 통두레(양지계-수봉마을 마을계획 수립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 소골목길 통두레(소골목길 벽화그리기 및 모퉁이 미니화단 조성 등 환경개선)
- 잿말 통두레(잿말 골목길 벽화그리기 및 대청소 등 환경개선)

### **주안3동 마을공동체**

- 기흥주택 통두레(마을텃밭 조성, 마을이야기 발굴 및 벽화거리 조성, 주민마당극 배움 및 공연)
- 일오 통두레(신라아파트 담장 화단 조성 및 환경정비 활동)
- 다솜 통두레(천연재료를 통한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 등 친환경 주

## 민모임)

- 그림꽃 통두레(벽화거리 조성을 통한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형성, 발아현미제품, 도자기 등을 만들어 마을 공동기금 조성)

## 주안7동 마을공동체

- 주안7동 통두레(골목길 벽화그리기)

## 주안8동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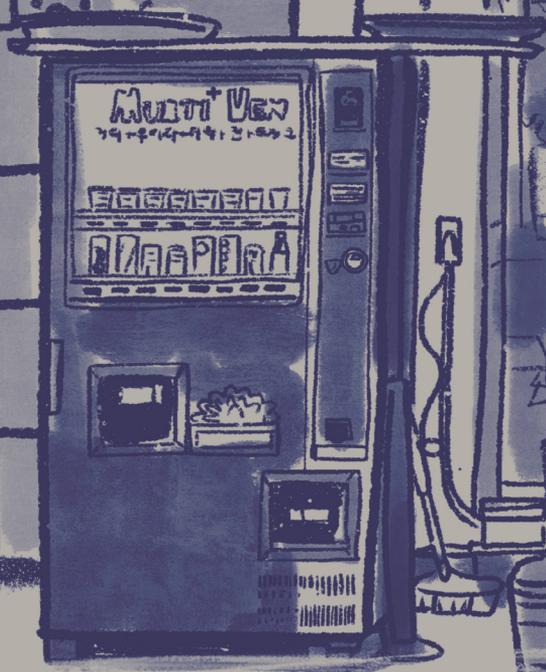
- 승학 통두레(주안8동 예비군훈련장~승학산 일대 환경정비, 꽃길 조성)
- 아이행복 통두레(중고육아용품 기증, 판매, 대여의 육아공동체 조성)
- 깔끄미 통두레(불법전단지 수거 및 벽보철거를 통한 환경정비)
- 밤도깨비 통두레(우범지역 야간순찰을 통한 마을지킴이 활동)

출처: <http://haksanmaeul.tistory.com> [학산마을협력센터]



습피온 체온

뉴사 · 등산용품



# 육사

T.872-9981



미추홀, 살아가다  
안녕? 신기촌 사람들



## 구술기록 (10인)

마을지 제작 과정으로, 2018년 총 9회의 구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고병선님, 김남순님, 김종린님, 박옥균님, 유용호님, 이태승님, 조영숙님, 조옥형님, 최종철님, 한기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외 인터뷰 녹취 및 정리에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영기, 조영숙, 이명순, 이경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의 녹취록은 인터뷰 진행방식에 따라 기록의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지명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진흥요업 후문으로 하나둘 생기게 된 게 신기시장이예요

---

구술자 :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 신기촌 일대 37년 거주)

- 채록일 : 2018년 7월 31일
- 채록장소 :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
- 채록자 : 박성희, 이익록, 유인숙



## 예전에 이 동네가 어땠는지 다 기억나세요?

여기가 옛날 화장터였고 중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농사지었고 그 러던 지역이었죠. 진흥요업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쪽이 농장이었어요. 그쪽 사람들이 푸성귀 같은 거 농사지은 거(가져다) 아주머니들이(팔았어요)... 진흥요업 후문 신기시장 앞 에까지 초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파면 도자기 나와요. 그래서 진 흥요업 후문으로 하나들 생기게 된 게 신기시장이에요. 남부시장은 생긴 지 오래 안됐어요. 남부시장은 광성고등학교 이사장이 그 사람 땅이었어요. 거기 빨밭이었는데 업자들 시켜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남부시장이 제일 얼마 안됐어요. 신기시장 다음으로는 중앙시장이 나 서부시장이 오래됐죠. 남부시장은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니까 이렇다 할 역사는 없고 지역적으로 상권이라는 게, 시장이 잘되면 그 지역이 살아요. 활성화가 되고, 비근한 예로 도화1동 제일시장 같은 경우 옛날엔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시장이 죽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안사거리까지 다 죽었잖아요. 주안사거리 그쪽이 옛날에는 메이커 매장이 다 있었어요. 책방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가 중심지였었는데 지금은 한심스러울 정도예요. 거기 재향군 인회 건물 있는데 그게 지금 보증금을 옛날에 7억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은 2억에 내놔도 안 나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다운이 된 거예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안4동이 개발되면... 주안초등학교 부근 다 부셨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이 살려면 시장이 일단 가치가 있어야 작은 상점들이 다 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자체로는 우리 시장이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시장이 죽어가면 이 지역상권이 다 죽게 돼요.

**제가 들은 얘긴데 실항민들이 중국에 있다가 박대통령 때인가 여  
기로 이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기촌이란 어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새 신(新)자, 일어날 기(起)자, 새로 일어나라. 신기촌 하면 보통 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을 가리키거든요. 여기가 맨 처음에 서부동이었어요. 서부동이었다가 주안3동이었다가 3동에서 7동이 분동되고 7동에서 8동이 분동 된 거예요. 커진 거지 이를테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서부동을 신기촌이라 그랬거든요. 저쪽 동인천 쪽 재개발 할 때하고 이 재개발 이주민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국유

지를 무단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걸 내보내고 횡가루로 10평씩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10평이에요. 그래서 옆집이 팔고 나갈 때 사면 20평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전부 10평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네요.**

네, 10평으로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구요.**

여기 활성화사업 할 때 재개발 할 때 남구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가 10평씩이라 솔직히 10평이면 한식구가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땅을 지금 집을 짓게 되면 길을 내놓고서 짓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10평 다 지어라. 1층이고 2층이고 그렇게 허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10평짜리들이 빼죽 3층씩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네요.**

여기 골목이 참 묘한 골목이에요. 이건 지금에 와서 재개발하기도 어렵고…….

선생님 이거를 기록해놓고 시장 인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여길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좋네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쪽에 한 동네 공간처럼 조그맣게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서부시장이예요. 거기도 꽤 오래됐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숨어있는 공간이어서, 우린 여기를 다 신기시장  
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선도시장이 되면서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중앙시장 큰길  
을 중앙시장이라고 하는데 저 끄트머리…….

여기 전체를?

아니.

동그랗게 돼 있는 곳?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내가 지금 설명한 중에서 지금 진흥요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초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후문이었다고. 진

흥도자기 망루가 있었어요.

**진흥요업(중심으로) 주변 사람들 삶의 패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렌(소리)도 나고...**

그렇죠. 처음에는 진흥도자기였다가 진흥요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망루가 있고 후문이어서 쪽 신기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뻗어나갔죠.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서 안 받아줘서 서부시장이 된 거고 여기는 원래 넓은 길이라 중앙시장이라고 변영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신기시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했고 남부시장은 신기시장으로 합친다고 그래서 이름을 신기시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하고 하니까.....

**연합으로?**

그건 가칭이고 지금은 이거예요.

**신기문화관광시장?**

이거를 다 합친 거예요.

**합의가 다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합의만 됐어요. 서서히 (명칭을) 쓰고 있어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하실 일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기문화관광시장이 된 거예요.

지속발전협의회 통해서 저희랑 같이 두 세명 정도 나와서 인터뷰 하면서 녹취하면서 풀어서 전체편집을 할 거거든요. 지금 회장님이 1차 인터뷰 대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아들이든 누구든 2,3대 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내가 36년을 했잖아요.

신기시장이 태어난 해가 몇 년도예요.

공식적으로는 75년도라고 하는데 실은 훨씬 이전이에요. 처음부

터 시장하자 하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10년~20년 지나가지고 우리  
번영회 만들자 해서 됐기 때문에 실제 시작은 10년 더 앞섰죠.

### **회장님이 산 증인이시네요**

내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번영회 일을 계속 봤어  
요. 총무도 여러 번 보고 모든 직책을 다 봤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사를 시키더라구. 그래서 모든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둘 죽  
고 이사가 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 **그래도 소개 시켜주세요.**

그분들은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지. 그냥 종사만 했으니까.

### **그분들이 기억하는 기억의 편린들만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분들 소개시켜주시고 회장님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  
금 현재 있는 분들 해서 (모으면)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  
아요.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괜찮은 것들로 내년에 극도 만들고,  
주안7동 마당극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됐었잖아요. 좋은 소스가 있으

면 동장님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의견으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나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원장님도 그렇고 동장님이 꼭 형님(회장님)을 찾아뵈라고 했어요. 의형제를 맺었다고… 바쁘시고 해서 동장님을 (먼저) 뵈더니 여기로 바로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남부 시장이랑 같이 있으니까 두 분 같이 만나라는데 그거보다는 회장님을 만나 뵈고 저희가 진행되는 거 공유 하고 회장님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번 하고, 회장님도 인터뷰 하고 골고루 해서…….

나머지는 골고루 하시고 내가 필요한 협조할 부분만 얘기해줘요.

시작할 때부터 회장님은 쪽 형성과정을 큰 틀에서 하고, 회장님을 제일 먼저 해야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회장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모르고 기록도 안되고요.

옛날에 신동아 단지 10평짜리 뒤로는 신동아 단진데, 거기가 다 돌산이었잖아.

혹시 그 때 사진은 어디가면 구할 수 있는지?

있는 데가 없을 걸.

집에 없나요?

없어요.

옛날에 시장에서 찍어냈던 개인사진 같은 거 있는지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옛날에 시장에서 찍어냈던 사진.

변영회할 때 찍은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이나 이  
런 게 있는지...

그걸 자꾸 여기저기서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겨야 해서... 이참에 제대로 남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비치해놓으면 좋은 거고 저희한테도 남구에  
시장이 많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구에서는 크게 하잖아요. 저희는 먼  
멀히 작은 것을 담으려하거든요.

## + 2차 인터뷰

- 채록일 : 2018년 8월 14일
- 채록장소 :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
- 채록자 : 조영숙, 유인숙

학산문화원하고 지속협하고 남구의 역사나 문화 그런 쪽으로 해서 근대사 쪽 저본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역사, 생활면에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콘텐츠 작업을 준비 중이에요.

전체적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실제 거주하는 분들 중에 인터뷰 하실 분들 소개 좀 받았으면 해서 왔고요. 가능하다면 열 분 정도 소개해주시면 좋고요. 다섯 분이나 여섯 분 정도 해주시면 그분이랑 인터뷰하고 그분들 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회장님이 전체적인 신기시장 역사나 이런 거 얘기해주시고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이랑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기시장 역사는 오래되지 않아서 간단해요. 신기시장 이루어진 자체가 철거민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안7동인데 옛날엔 서부동이었어요. 서부동에서 주안3동 갈라지고 주안3동에서 주안7동, 8동 연이어 갈라졌죠. 원래 이 지역은 화장터가 있었고 이

쪽은 돌산 이쪽 중국인 밭이었어요. 68년도에 동구에서 신림동, 북성동, 만석동 철거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왔어요. 그 때 저는 없었는데 바로 위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미군들이 쓰는 텐트 하나씩 지급하고 10평씩 획, 가로로 잘라줬다고, 그래서 이 주변 집들은 전부 10평씩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신기촌이라는 이름이 새 신(新), 일어날 기(起)라고 해서 신기촌으로 명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처음에 진흥도자기라고 처음에는 중앙도자기였어요. 진흥도자기에서 진흥요업으로 회사가 커가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당시 중앙도자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철거민 비롯해서 토착민들도 전부다 거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쪽이 전부 빨밭이고 논밭이었어요. 그러다가 진흥도자기 후문 앞으로 그 때 당시 5번 종점이 이 시장 한 가운데였어요. 가장 핵심이 버스 종점이 신기시장 한 가운데에 들어와서 버스가 다녔다는 자체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진흥요업 후문에서 5번 버스 종점 끝까지. 문학 선학 이쪽 여기 전부 논밭이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지은 거 뜯어다가 양쪽으로 놓고 팔기 시작하게 버스 종점과 맞물려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 때부터 시작했지만 정식으로 신기시장으로 등록된 게 75년도예요. 그 때 당시 하나 둘씩 가게가 생겨서 번영회가 조직돼서 75년도에 등록됐죠. 그 이외 시장



그림4. 서부시장과 이어지는 신기시장 입구 드로잉

이 활성화가 되어가면서 5번 버스 종점이 시티은행 앞으로 이사 갔다가 명보주유소 앞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은 인하대 후문으로 이사 갔죠. 5번 버스 종점이 4~5번 밀려난 거죠. 시장이 발전되면서...그 버스 종점과 연결된 진흥도자기 후문이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 형성된 거죠.

**이사장님은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37년째 살고 있어요. 시장이 들어온 게 37년 됐어요. 37년 전 시장 형성되면서 우 리 아들이 37인데 남자마자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이가 이 시장 나이에요.

**인터뷰에 응해주실 분들 오래 거주 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인이 아니셔도 주변에 거주하셨던 원주민도 좋구요.**

참피온 체육사를 소개해야겠구나. 초창기에 통장을 하고 구의원 을 했으니까 잘 알지. 중앙로로 쪽 내려가면 참피온 체육사가 있어요. 큰 길 바로 앞에 가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이 동네 초창기 분들 잘 알아요. 전화 해둘게요.

# 지금도 10평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

구술자 : 박옥균 (참피온체육사 운영, 신기촌 일대 50년 거주)

- 채록일 : 2018년 8월 14일
- 채록장소 : 참피온 체육사
- 채록자 : 조영숙, 이경희, 유인숙



안녕하세요. 김종린 회장님에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미추홀학산 문화원에서 신기촌과 신기시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자료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에서 오셨는데 특별한 문화적인 말씀은 없고 여기가 68년도 철거민 정착지예요. 주로 만석동, 도화동쪽에서 철거민들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보이지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냐면 1968년도 그 전만해도 철거민들이 10평씩만 배정을 받아 화장실도 없이 살다 보니 불편했어요. 철거민들이 집값이 싸니까 세입자가 자연히 늘어난 거예요.

91년도인가 구의원을 하면서 이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화장실도 짓고... 건물은 당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대지 27평이 되어야 허가가 났는데 여기는 전부다 10평씩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 새 건물을 못 짓죠. 그래서 그걸 집 평수대로 올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서 96년도에 완성했어요. 지금은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 당시에 싹 할고 재개발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걸.....

지금도 10평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곳 일부에는

빈민촌이 많거든요.

1968년도에 여기 올 적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우리들이 들어오고 난 1969년도부터 전기 들어오고… 당시는 수도도 없었고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그랬으니까…….

여기 정착민들은 우리나라 팔도민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으로 초창기만 해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신기촌 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술 먹고 싸움하는 동네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 신기촌 하면 인천 시내에서 다 알아 줄 만큼 험악한 곳으로 인식되어…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개선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여기 학산문화원 하면 인천의 문화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문화적인 행사는 없었어요. 김종린 회장 말씀 다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온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히 변화된 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된 거고 신기시장도 원래 시장이 아니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살다보니 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여기가 소방도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나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융자도 받고 지금은 재래시장 중에서 손꼽히는 시장이 되었지만 원래 시장으로 된 건

없는 사람들이 조금조금 가져다 놓고 장사하다 보니까 조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활성화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버스 종점이었어요. 원래 버스 종점이 어디 였나면 화장터 자리 모르죠? 지금의 주안 8동까지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마이크로버스라고 조그만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화장장 옆에 조그만 터가 있는 데 거기가 종점이었고 그 당시 여기가 유일하게 진흥요업이라는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도자기 공장에서(일해서) 생활을 하고… 신기촌은 말하자면 소비도시죠. 낮에는 전부 외지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소비하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는 생산하는 게 없고 전부다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여기서 소비하다보니까 신기촌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 벌어서 먹고 싸고 버리는 데가 여기니까 신기촌이 장사가 잘되고 빈촌이다 보니까 집값도 싸다고 소문도 많이 났고 처음에 중앙도자기가 아니고 진흥도자기였어요. 전부 다 공동묘지고 그 쪽에서 지금 진흥아파트 저쪽이 산이고 묘지 쪽이었어요. 화장장도 여기 있었고 우리 집 여기가 제일 끝이었고 이쪽으로는 전부 논이고 밭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내용은 알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주거환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점차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 안에는 손을 못 대고 방법이 없어요.

## 여기 오신 계기가 뭐예요?

여기 온 계기는 없는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집세도 싸고 시내에서 월세 살 돈이면 여기서도 전세로 살 수 있었어요. 처음 인천에 단신으로 왔어요. 송림동에 정착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같이 와서 할 게 없고 해서 내가 여기 역사를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내가 목재를 몰랐던 사람이예요. 그 당시 누가 대성목재를 알선을 해줬는데 목재라는 말만 들었지 나무 자르는 기술도 없지만 거기 가서 노동을 했어요. 그 당시 송림동에서 샅월세(사글세)가 보증금 3만원이었어요. 다니다 보니 동료들이 신기촌 가면 그 보증금이면 여기서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건데 여기 옛날부터 속어가 있어요. ‘신기촌에서 살려면 마누라 없인 살야도 장화 없인 못산다.’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다 보면 여기가 전부 논두렁이고 비가 오고 개울물 늘어나면 진짜 장화 없이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래서 그 후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됐죠.

결론은 제가 여기서 일은 많이 했어요. 통장을 보면서 민원이 접수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 기초플뿌리 민주주의 된 때가 1991년도인가 돼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출마를 해야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주민들만 믿고 출마를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선택을 해주

다보니까 구에서 공무원들하고 이 동네 애로사항, 제일 애로사항이 10평짜리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집을 짓게끔 해야겠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했어요. 지정을 해놓고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그대로 주민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92, 93년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붐이 조성돼서 10평짜리에다가 살게끔 화장실도 놓고 부엌도 늘리고 지금도 그때 한 집들이 그냥 있어요. 단층으로 있다가 2층으로 올리고 지금 끝에만 번듯하게 가게가 있지만 이 앞으로 내려가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돈 번 사람들은 늘려서 나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이 신기춘 가면 집도 싸다고 10평짜리 집에 들어오기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게도 하고 생활안정도 되고 여기서 특별히 자랑하고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로 살았고…….

### **이 채육사 내신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에 품목 정할 때…….**

그 얘기를 하려면 역사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금고 있죠. 마을금고 창업이라고 하면 과도한 거고 우리 동료들이 협심해서 마을금고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마을금고를 동사무소에 적을 두고 가 호호 다니면서 출자금을 받아서 마을금고를 결성했는데 마을금

고를 지금 이 건너편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주가 현득수씨라고 그 당시 이 동네 재벌가였어요. 그 분을 이사장으로 모셔놓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서 우리가 동네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당시는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통장이었기 때문에 통장들 자율로 해서 각 통마다 마을금고 구좌를 만들어 설립을 했어요. 그 양반이 초대 이사장으로 앉고 우리는 이사로 있으면서 육성을 하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대형마트가 들어왔잖아요. 대형마트를 할 적에 우리는 그 신기 마을금고에서 그 분이 금고를 이용해서 구판장을 만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하기 전에 뭘 했나하면 구판장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전에 연세점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구멍가게보다 좀 단위가 높은 연세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의원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걸 하다가 경험 있고 하니까 구판장 소장을 맡았어요. 대형마트죠. 어마어마하게 큰 마트죠. 근데 이걸 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목 상으로 안 좋고 구판장 소장을 하다가 마을금고에 분열이 생겨 가지고 소위 말하면 회원끼리 충돌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 물러나 앉고 그러니까 나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분간 쉬었다가 제가 운동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축구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체육사가 없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내가 체육사를 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체육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때가 81년인가, 우리가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유치할 때가 82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육사가 잘 됐어요. 옆에 가게를 터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돈도 좀 벌고 생활에 안정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인심 안 잃고 사니까 구의원도 두 번이나 당선시켜주고 구의원도 내가 하기 싫어서 넘겨줬어요. 김종린 회장 보고 하라니까 안한다 해서 다른 사람 넘겨주고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두 번씩이나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시의원 하라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오십보백보인데 다른 후보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장사에만 몰두했죠.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40년이 더 되었나 (50년 됨) 한 자리에서 오래 하다보니…….

여기 남광로알아파트가 인천에서 제일 좋은 맨션이었어요. 인천 시내 부시장, 연예인들 다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아파트들 하나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그냥… 우리 때 살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우리 (나이)대 되는 사람은 동네에서 일을 보고 대외활동을 했던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37년생이에요. 올해 82예요. 내 나이를 잘 안 밝히는데 기자 분들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남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여기서 산악회도 만들고 조기축구회도 만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남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후세대는 모르잖아요. 남겨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 특별히 동네 발전이야 어디든지 옛날에 비하면 다 똑같이 발전했는데 아직까지 신기촌이라는 때가 안 벗겨졌어요. 그 이유가 돈 좀 벌면 밖으로 다 나가고 아파트 사갖고 나가고 없는 사람만 찾아오고 있던 사람은 못 벗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뭐라 그럴까 생활 인식이 좀 낮다고 할까. 사실 한마디로 유능한 사람은 안 오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살지만 그 당시에 차라리 재개발해서 고생한 김에 했으면 그 당시 사정은 그렇게 안 돼. 지금 이렇게 상가니까 겉만 번지르르하

지 안에 안 들어가봤죠? 상가 안쪽으로 이 도로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그렇구나 하지. 신기촌 말만 신기촌이지 지금은 우리가 신기촌이라 안 그러고 주안7동이라 불러달라고 하지.

옛날에 어렵게 지내왔던 생활 때문에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볼 때는 정이 많은 곳이고 모든 생활의 원천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하시고 지역을 위해 애쓰셨잖아요. 도로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 자그만 집들을 보수해서 2층으로 올리고 보수해서 간혹 두세 집 합쳐서 빌라도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아파트 빌딩이 있는 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우리나라에 남구에 핵심 도시를 만드는 곳이었기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가 우리 역사하고 맞물려져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분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신기시장 신기촌 이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나쁜 의미로 보지는 않거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인정은 많았어요. 다닥다닥 이웃이 불

어살다 보니까 인정도 많고 행사 때 나가면 단합도 잘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끼리 합쳐서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았냐는 말씀처럼 건물을 올리자는 말씀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도 10평짜리 세 사람이면 30평이 되지 않습니까? 3층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10평이 아닌 30평에 사는 꼴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 욕심에 나는 1층에 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대신 차등을 두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집이라도 모델로 해보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잘 안됐고요. 지금은 더 힘들지만 환경개선 지구 사업을 평수대로 다 올릴 수 있으니까(지금은 공지비율 빼고 하면 안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지금은 다세대 주택보다 편하고 좋지요. 문제가 무엇이 뒤따르냐 하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요즘은 차 없이는 못 살잖아요. 10평집에 사는 사람도 차 한두 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주차공간이거든요. 이쪽엔 주차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옮겨도 봤는데 여러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주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지요. 없는데 이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차공간보다 녹지 휴게소 이런 거... 7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장보다는 쉼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쉼터는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안 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7동도 한 군데가 있는 데 이웃 사람 몇 대 밖에 못 대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구밀도가 낮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뉴딜사업 쪽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 같아요.

공간도 없고 공간이 있다면 국유지 같은데 몇 개 있는 것들은 개인이 점유해서 쓰고.....

**다 분할했잖아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우리가 쓰면 되죠.

**7-80년 대에 분할해서 각자 등기했었죠.**

지금 동사무소도 굉장히 좁잖아요.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결국 개인이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한테 넘어갔어

요. 동사무소 뒤에 있는 높은 건물이에요. 그 후로도 통일상가를 매  
입하려고 그거 안 되면 자수정 목욕탕 그거해서라도 동사무소를 확  
장하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됐어요. 고민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렵겠어요. 장승덕  
의원이 의논하기를 동 인구가 줄어가니까 통폐합을 하자. 동사무소  
를 중간지점에 짓자는 제안도 세웠는데 그것도 동끼리 안 하겠다  
그런저런 일로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욕도  
없어지고 나이도 있고 특별히 해야 한다는 직함도 없는 사람이고 나  
섰다 하면 주민들한테 욕만 먹을 판이고 가능하다면 지금 구의원들  
에게 재촉도 하겠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선  
거구역이 넓어 가지고 2, 3, 4, 7, 8동이 한 구역이 돼서 구의원이 3명  
이에요. 그분들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선봉에 서서 좌  
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가나 마찬  
가지겠지만 저희들은 특별한 걸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안 떠오르거  
든요.

**나중에 다른 분들 인터뷰하면서 합일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떤 과정이었는데 있어요. 그때 도움을 청**



그림5. 참피온 체육사 전경 드로잉

**하러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일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 3, 7동 합동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하나 번듯하게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저는 접촉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해 드릴게요.

## 3대째 오는 손님이 계세요

---

구술자 : 유용호 (영아트 신기시장점 운영, 신기촌 일대 20년 거주)

- 채록일 : 2018년 11월 08일

- 채록장소 : 영아트 신기시장점

- 채록자 : 조영숙, 이경희



이 자리에서 영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996년 12월부터 했어요.

20년 정도 하신 거네요.

네.

여기서 가게를 하시게 된 계기는?

자영업하기 전에 가게를 알아보면 여러 군데를 알아보잖아요. 인천 전 지역을 다니다보니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았어요. 많은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재래시장 중에서도 여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재래시장 중심으로 다니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측하셨던 대로 사업은 잘 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20년이면 20년 동안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

**장 내부 환경이 라던가 건축물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건축물이라던가 발전하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구가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반면에 옛 모습이 보존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네, 다른 지역과 다른 가장 큰 장점이 사람 사는 맛인 것 같아요. 요즘 개인화 돼 있잖아요.

**맞아요. 상인회가 활성화 돼 있나요?**

상인회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미흡해요. 상인회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고의 결속이 잘되는 것 같아요.

**주민모임도 조성이 돼 있나요?**

모임은 없어요.

**2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가요?**

네, 여기 특성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타지로 이사 가셨다가 이 곳이 좋다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재개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요. 그 분들도 재개발이 다 되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인 분들도 그대로 계신가요?**

바뀌신 분들도 많지만 오래하신 분들도 많죠.

**업종에 대한 변화도 있나요?**

네, 처음에 제가 가게 오픈했을 때는 아이들 관련 업종이 많았어요. 유아용품이라든지 아동복이라든지 문구점도 지금은 저희밖에 없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가게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적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살고…….

**그러면 상가(업종)들이 식품이나 노인용품점 등이 많나요?**

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게 있겠죠.

**주변 분위기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분위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나요?**

인간적인 면에서 옛날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과 엄마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하니까 유대 관계 보다는 실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건 구매할 때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죠.**

단골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오시는 손님은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200여분 돼요.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그럼 이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시나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죠.

**학생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엄마들이 주로 오죠. 주 고객층이 엄마들이죠.

**처음 오실 때부터 상호를 영아트로 시작하셨어요?**

네. 원래 영아트 체인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본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관리가 잘 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타이틀만 있고 유명무실해요.

**영아트면 굉장히 유명한 회산데, 물건들도 영아트랑 관련 없는….**  
영아트 물건이 남아 있긴 한데 오픈할 때는 90%가 영아트 제품이었던 지금은 30% 정도만 영아트 제품이에요.

**손님 중에 기억나는 분 계세요?**

3대째 오는 손님이 계세요. 처음 올 때는 얘기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얘기가 커서 시집가서 다시 얘기를 낳아서 셋이 같이 와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럼 여기서 3대째 거주하신다는 뜻이네요.**

네, 3대가 이 주변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남기고 싶은 추억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희 가게 계속 왔던 고객들이 지금 같은 상태로 기억해 주는 게 조그만 바람이죠. 여기 참 좋았어요. 이렇게…….

**고객들이 기억해주는 걸 원하시는 거죠.**

\* 어린이 고객 들어와 양면테이프 구매

네, 지금도... 요만할 때(초등 3,4학년 정도) 저희 가게 오다가 커가지고 결혼했는데 다시 이 쪽으로 오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들어와 가지고 '가게 그대로 있네, 가게가 커졌네(예전에는 면적이 반만 했는데 커진 거예요.) 아저씨는 그대로시네, 여기 참 좋았었는데......' 이리하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추억이죠.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개선돼야할 게 있을까요?**

주차장이요. 만약에 시설을 만들기 힘들면 시장 근처만 허용해준 다던지 구청에서 생각해주셔야 할 거예요.

**시장 부근이면 노상주차......**

네, 지역상인들 살려 줄 거면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맞아요.**

주차장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한 차선이라도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그림7. 영아트 전경 드로잉

신기시장공영주차장도 수용 대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마트와 경쟁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주차예요.

그쵸. 그래도 마트에 비해 장점이 어떤 걸까요?

정이 있는 거죠. 마트는 필요한 것만 골라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손님 오면 대화도 많이 하고 사는 모습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그랬던 동네

---

구술자 : 김남순 (주안7동 통장자율회장, 신기촌 일대 51년 거주)

- 채록일 : 2018년 11월 11일
- 채록장소 : 카페 루앤비 구월점
- 채록자 : 조영숙, 이경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이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건축이요.

통장자율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구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세요?

이북. 황해도 장현군.

그럼 혼자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부모님 등에 업혀왔죠.

저희 엄마도 이북이 고향인데 혼자 내려오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들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86세 되세요. 그럼 여기는 아기  
때 오셔가지고 계속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전라도에서 살았어요. 16세까지 살다가 인천에 왔죠.

**혼자 오셨어요?**

오기는 혼자 왔는데 형님이 먼저 여기에 와있어서 오게 됐어요.

**형님이 먼저 정착하셔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거네요.**

네. 형님이 먼저 정착하셔서.

**여기가 살기 괜찮은 데니깐 오라고 하셨겠지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깐 기술배우라고 올라오라고 한 거죠.

**어떤 기술 배우셨어요?**

목수요.

**혹시 대성목재 오신건가요?**

아니요. 거기 대성목재는 주로 합판 같은 거 만드는 곳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롱 짜는 데였어요.

**그럼 장롱 쪽 일을 하시다가 건축 일을 하신 거네요.**

네.

통장 자을 회장님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나요?

3년 됐어요. 통장직은 15년.

오래하셨네요. 이 동에서만 하신건가요?

네. 이 동네에서만 51년 됐어요.

이 동네에 사신지가 51년이요?

네. 터줏대감이죠.

여기가 주안동이죠.

네. 주안7동.

그럼 겪으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여기가 철거민 촌이었어요. 만석동, 송현동 이런데서 철거해서 넘어온 철거민 촌이었죠. 완전 시골이었죠. 그때는 다 밭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전답을 했었죠. 밭, 논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가 신기촌.

신기촌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신기촌이라는데가 원래 저기가 승기천이거든요. 의료보험 공단 앞으로. 그게 승기천이었어요. 그걸 따서 신기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지요.

### **공단 앞거리가요?**

네. 그게 냇가가 없고 수로 공사를 해서 지금 물이 연수동 남동공단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가 주안2 서부동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안3동으로 났다가 여기서 분동으로 돼서 주안7동이 났고 그래서 현재 주안7동이 된 거예요.

###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여기 건물 옆이에요.

### **여기에서만 거주하신건가요?**

아니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이 동네에서만 했죠. 그 동안에 서울 종암동에서 1년 정도 살았고, 또 그 안에 시골에서도 목수 일 배우느라 1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그때 빼고는 거의 이 동네에 서만 살았죠.

그럼 서울이랑 시골에서 사신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으신 거네요. 거의 여기에서만 사셨으니깐.

그쵸. 태어나서 여기를 제일 많이 살았죠.

고향이나 마찬가지로시네요.

그렇죠.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특별한 일 같은 거 없으세요?

사건 같은 거야 많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겠어요~ 말 그대로 여기가 철거민들이 오다 보니깐 하루에도 싸움이 10번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해가 지지 않았어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그때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지고 파출소도 들어오고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깐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힌 거죠.

이런 질서가 잡힌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질서가 잡힌 지는 78~9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었죠. 10월

26일. 그때 좀 일거예요.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강력하게 군법을 사용하면서 더 팍 잡히게 됐지.

### **그때부터 도로 정비 같은 것도 된 건가요?**

도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20년 전 95년도부터 여기가 주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10평, 20평 루핑이나 슬레이트집으로 돼있었어요.

### **루핑은 뭐예요?**

루핑은 이런 종이. 그러니깐 누런 시멘트봉지 양쪽으로 기름을 먹여서 썼던 종이. 비가 안 새잖아요. 기름이 양쪽으로 있으니깐. 그런 걸로 지붕을 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이라는 것은 기와집. 그러다가 97년도부터 여기가 환경개선 지구가 돼서 10평, 20평짜리 집들이 전부 재건축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90%이상. 요즘 건폐율이 60%잖아요. 100평이면 60평 짓는데 그때는 99%까지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옆집하고 합의하에 담도 같이 붙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 나누고. 97년도에 그것이 환경개선 지구로 돼서 주차장 없이. 그래서 이 동네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골목도 조금씩 띠면서 이면도로가 생기고. 소방서 차는 골목에 못 들어가요. 딱

딱 끊어지기만 했지 지금도 소방차는 못 들어가요. 리어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뉘서 재건축이 되다보니깐. 그때로 치면 지금은 명동거리지 여기가.(웃음)

### **새로 건축 했을때는 진짜 좋았겠네요.**

아니 지금 했으니깐 좋았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루핑집이고 도로가 포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속된말로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그랬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갈려면 5번 버스가 저 밑에가 종점이었어요. 지금 신한은행 앞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그대에 비하면 명동거리다 이거지.

### **그대에 비하면.**

그 정도로 좋아진 거죠. 한마디로 하면 여기가 서민촌이에요. 그래서 전부 빌라가 들어와서 빌라촌인데 원룸, 투룸 이런 식이에요.

### **지금도 원룸, 투룸이에요?**

네. 많죠. 10평짜리를 8~9평으로 지었으니깐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 그래도 자기 집

이니깐 지어서 사는 거죠 편하게. 그리고 20평 가진 사람들은 좀 널찍하게 지었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많이 나갔죠. 연수동쪽으로 나가고. 지금은 젊은 어려운 세대들이 많죠. 지금은 빌라 같은 데가 500/35, 300/35. 좀 큰 데는 500/40 선이에요. 다 샅월세로.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거죠?**

맞죠. 우리 통만 해도 20가구 정도가 수급가정이에요. 우리 주안7동에 수급자가 5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주안7동에 인구가 15,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70세 이상이 14,000명이고.

**그럼 대부분이 70세 이상 이시라는 거네요.**

네. 맞죠.

**그럼 70대 이상이 거의 90%네요.**

10분의1이죠. 1,400명이니깐.

**15,000명 중에서 10분의 1이 70세 이상 이네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때도 75세까지로 짧았어요. 많아서. 우리는 구에서 55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수 대접을 했어요. 해마다 해왔어요. 미디어축제도 참여하고. 원래 주관은 자치위원회인데 일은 통장들이 다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27, 28일에 어려운 가정들 김장하기를 해요. 근데 주관만 자치위원이고 일은 통장자리에서 다하고.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분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데 여자고. 통장 분들이 3분의2는 여자 분들이고 남자 분은 1분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여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저도 올해 12월 되면 통장도 그만두고 방제단장도 그만두고 자치위원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려고요.

**왜 그만두세요?**

이제 힘들어요. 지금 현재 67세인데 그만해야죠. 내 일도 해야 하고.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고 동장님은 회장을 1년만 더 봐달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애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전혀 없어요. 어젯밤에도 밤10시 넘어서 교회가 끝났는데 밤에도 쓸고 아침에도 낙엽을 쓸었는데 그 사이에 또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쓸 때가 됐는데. 어제 같이 올라오던 아줌마한테 “이 동네 사람들은 빗자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냥 빗자루 한번 쓸지를 앓으니깐. 그 사람들은 쓸지도 않는데 빗자루를 사겠어요?

**자기 집 앞도 안 쓸어요?**

그럼요. 눈이 와도 안 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기 골목에 사는 사람하고 한참 입씨름을 했어요. 왜 통장이 자기네 집 앞을 안 쓸어 주냐고. 그래서 “통장이 남의 집 앞에 눈 치워주는 사람이 통장이야? 내가 방제 단장이고 하니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위험한 도로는 염화칼슘을 다 뿌리고 있다. 근데 당신 집 앞은 당신이 쓸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그 집 마나님을 내가 반장을 시켜놨어. 그랬더니 꿈쩍을 못해.(웃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분 일 열심히 하세요?**

요즘은 반장을 시키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통장들이 일을 다 해야 되요.

### **보통 한 통에 몇 가구에요?**

우리세대가 270세대거든요. 많은 데는 320세대, 350세대. 적은 데는 160세대 정도 되요. 저도 우리세대가 370세대에서 너무 많아서 분통이 났어요. 15,16통으로. 여기는 16통 이구요. 이번에 여름에 저기 아파트에서 은행잎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은행잎이 줄었는데 보통 가을에 50~100자루를 쓸어 담아야 해요. 40kg짜리 를.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해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는 동에서 치워버리는데 조금 나온 건 50L짜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버리고 해요. 누구랑 쓸어라 말어라 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제일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꽂초, 낙엽. 이게 내년 봄까지 가요. 어째 내년 봄까지 가냐 하면 저런 담장 위에 걸터 있던 낙엽들이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가요. 그럼 계속 쓸어야지. 어떤 사람은 낙엽 낚두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빗자루 질도 안하고 산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기 전에 치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원래 제 습관이 그런 거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깐.

**이 후에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일 텐데.**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여기 뿐 아니라 모든 동네가 다 그래요.**

그래도 동네마다 쓰는 사람들이 한명씩은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사는 거지 너나나나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아까 은행잎을 판다고 하셨는데 그게 판매예요?**

제약회사에서 사간대요.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요?**

아니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파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요?**

우진아파트요.

**다른데서는 안하죠?**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시골지역에는 집이나 뜰 안에 은행나무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사가요. 거의 제약회사가 사간대요.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이런데서.

**한 포대에 얼마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팔고 사는 것만 봐서. 팔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채취해가요. 근데 뭐 얼마나 주겠어요?

**자녀분들도 있으세요?**

네. 2남.

**아까 본 학생은…….**

그건 우리 6촌 손자. 동생네 손자예요. 나하고는 5촌간이죠. 내가 5촌 할아버지예요. 요 밑에 사는데 우리손자하고 1살 차인데 재는 5학년이고 우리손자는 4학년. 단짝이에요. 그래서 저 둘은 6촌 기간인데 멀리 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네는 가깝게 주일마다 만나니깐 교회도 같이 다니고 다정하게 잘 지내요.

**좋네요. 그런 것도 다들 여기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거겠지요?**

그렇죠. 어디가도 우리 형제지간에 우애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7남매인데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든일곱에. 아

버님은 여든셋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손이 62명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증손자 19명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살아 계실 때부터 형제간의 모든 우애는 제가 담당하고, 아버님이 명령을 내리면 형님이랑 누님한테 보고만 하고, 모든 일은 제가 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버님하고 신뢰관계가 깊어서 둘째아들인데도 모든 유산을 나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팔 때는 4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하셨고, 시골에 땅이 5,000평정도 있는데 좀 있음 거기로 가려고 집터도 다 봐두고 다듬어 봤어요.

**시골이 어디예요?**

전남 무안. 무안 공항 그쪽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래 살다 내려가시면 아쉬울 것 같아요.**

거기 집 마당에서 바닷가가 50미터밖에 안돼서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너무 좋으니깐 가려는 거죠. 또 누님이 거기 계시니깐.

**그럼 마을 변천사가 70년대에 파출소랑 동사무소 들어오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73~4년도에 주안2 서부동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 파출소가 들어오고 했죠.

### **6,70년대 기억나세요?**

다른 건 기억에 없고 70년대에 내가 처음 올라오니깐 여기 수도가 공동수도가 2개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초롱 알죠? 함석으로 만든 물동이. 그 물동이로 2개. 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원이었어요. 한 지게, 두 통에 3원. 한통엔 1원 50전. 그래서 길러다 먹었어요. 여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 **물을 사다 드신 거네요.**

그렇죠. 물을 사마신 거죠. 연탄 때고. 그리고 최고 화력은 석유근로. 밥 같은 거 하려고 연탄불에 얹어놓고 왔다가 물 받으러 왔다 늦으면 밥이 다 타요. 그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 **밥을 올려놓고 밥 되는 동안 물 길러 다녀오고 그랬던 거네요.**

네. 초롱이 짝 밀려있으니깐 늦은 적이 많았어요. 순서대로 줄서 있으니깐.

### **몇 명 정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면 4-50명 기다리죠. 그리고 낮에 안 밀릴 때는 몇 명씩 있고.

그럼 물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동 수도로 허가를 내서 팔게 해 놓은 거죠.

관리인이 팔아요?

그렇죠. 집이었는데 여기 그런 집이 2개 있었던 거죠. 수도국에서  
나 준거죠.

그러니깐 한 집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 집 주인이 관리를  
하는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은 주인이 가져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수도요금 내고 그거는 자기들이 가졌겠죠.

그때는 보일러도 연탄보일러였어요?

그렇죠. 거의 연탄보일러였어요. 85~6년 까지도 불 때는 아궁이  
가 있었어요.

재건축이 안됐던 집들이 아궁이가 있었다는 거죠? 10평집 이런

**집들이.**

네. 그때 당시는 재개발이 안 들어왔으니깐. 나무 사다 때고, 주어다 때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이게 정비가 되고 체계가 잡히고 나서도 큰 변화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거였네요.**

네. 집이 조금씩 지어지면서 간이주차장도 조그맣게 3군데 생기고, 간이 공원도 3군데 생겼어요.

**주민들 사이에 단합 같은 건 잘되는 편인가요?**

그 전에 초기에는 많이 안 좋았죠. 이게 뭐 시골처럼 집성촌도 아니고 각지에서 모인 서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 싸우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니깐 그런 것 들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산거죠.

**이 근처에 부평 이씨 집성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거의 다 타(他)성이었어요. 거의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고 몇 집 안 남았어요.

### **잘 돼서 떠나신 건가요?**

잘 돼서 떠나고 잘 안돼서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깐 얼른 못 떠나고. 80년도부터는 설비, 수리, 인테리어... 다 종합적으로 했어요. 이 건물도 97년도에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못 떠나가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정이 있어서 그러 신거 아니에요?**

정이 있긴 있지만 별로.....

### **그런 이 건물 주인이세요?**

아니요. 주인은 이 건물 3층에 살아요. 우리 집은 저기 옆에고.

### **교회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 신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니깐. 아는 목사님하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 같이 개척하신 목사님은 탄 데로 가시고 지금 이분은 제가 모시고 왔죠. 교회에서 장로는 저 혼자고 집사, 권사 그렇죠.

**교회에도 일이 굉장히 많던데요.**

많죠. 살림은 장로가하고,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님과 장로는 직위는 같지만 사명이 틀린 거죠. 목사님은 복음전하고 세례주고, 장로는 교회 살림을 하고 교인들 지휘를 하고, 사명이 틀리지 직위는 같아요. 그래서 재정 같은 것도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사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행복했던 부분도 있으시죠?**

제일 힘들었던 때는 80년대에 제가 5살 먹은 큰딸을 하나 잃었어요. 지금 살아있었으면 43살인데.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니고 가을에 시골에 일 도와드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차에서 김밥을 사서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었나 봐요. 저녁에 탈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깐 죽었다고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큰 아들이 40살 먹고 둘째가 38살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돌 정도로 제일 어려웠었죠. 생애 제일 힘들었을 때죠. 그리고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땠었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면 다 힘들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생존경쟁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구급차라도 부르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깐.

그렇죠.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저도 7살 때부터 형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일찍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잠깐 쉴 때, 80년대에 돈을 좀 버니깐 물질에 눈이 멀었었지. 그러다가 딸 하나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물질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였네요. 좋았던 기억은 있으세요?

그렇게 크게 좋았다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대중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람이 많으시겠어요.

지금도 동에서 보라고 해서 통장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만족할 정도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건 없고. 다들 더하라고는 하는데…….

일단 직책을 맡는 거 자체가 누구라도 선뜻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표창장 같은 게 50장 정도가 되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  
까지.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니네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런 상장 한 장이라도 받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교훈을 하죠.

**자녀분들이 그렇게 교훈 하시는 대로 잘 사시나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말썽 없이 잘 살아요.

**이 마을 일을 하시면서 고쳐졌으면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어떻  
게 하면 더 발전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부분이요.**

마을 일을 해오다 보면 동장들이 동의 일에 많이 협조를 하잖아  
요. 동사무소에 13명의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탁상행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장들이 가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  
같은 거 치워 달라, 도로가 파손됐으니깐 고쳐 달라고도 하고. 이게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진 다니깐요. 그러다 보면  
통장들과 직원들 사이에도 조금 금이 가게 되고. 또 동장님 같은 경  
우에는 구청에서 발령받아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동네에서 살고 여기서 몇 년씩 있으면 동네에 애착감을 가지고 일  
을 할 텐데 여기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철새란 말이에요.

## 직업으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와서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만에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시청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구나 시에서 내리는 명령만 하려고 하지 딴 건 잘 안 해요. 그래도 이번에 온 동장님은 예산도 타오고 내부수리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 전엔 예산 10원도 못 타오는 동장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가 협소해요. 40년이 넘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의원, 국회의원, 시장한테 계속 보고하고 그러는데 대지가 마땅치 않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이려고 있죠. 지금 우리 동에서 보자면 동사무소 다시 건축하는 게 제일 시급하고. 거기에 많은 자생단체들 모임이나 프로그램들 라인댄스, 서예, 오카리나 이런 것들을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좁아요. 동 직원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복지팀이 6명인데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자기 일처럼 안하는 사람도 있고. 복지 팀에서도 불우이웃 돌보러 현장에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 보다보니깐 통장들하고 화합도 잘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온 동장님은 열심히 하고 잘해요. 앞전에 있던 동장님은 10개월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복지과장으로 갔는데 그분도 애 많이 쓰고 갔어요. 저하고 마음도 잘 맞았어요. 그러다 딱 가버리니깐 힘들더라구요. 임기가 짧아

서 안 좋더라구요.

**지금 계신 동장님이 임기가 더 길어지면 좋겠네요.**

그럼 좋죠. 우리 동장님이 동 건축도 많이 협조해주고 있고, 근데 우선은 예산 때문에 시 협조가 필요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구에서 예산 팀장으로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다 보니깐 이번에 예산을 타왔어요. 그래서 동이 좀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 사미리가 주안3동, 주안2동은 몬머리라고...

---

구술자 : 이태승 (사미연구소, 학산학연구소, 주안3동 토박이)

- 채록일 : 2018년 11월 11일
- 채록장소 : 영광교회 인근 카페
- 채록자 : 이경희, 조영숙



**선생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6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7이고 만으로 56세입니다.

**하시는 일은 학산학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개인브랜드는 이거고 (사미 연구소) 공식적으로는 학산학연구회라고 향토사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구 시민리포터 1기.

**일 하시면서 채집한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원주민입니다.

**고향도 여기세요?**

원주민이고 동으로는 주안동입니다.

**주안동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가요? 부모님도 주안이 고향이세요?**

원주민이에요. 부모님이 서울에서 저희 아버님이 막내라 서울 가셨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대대로 여기서 사셨네요.**

제가 부평 이씨거든요.

**흔치 않은 본관인 거 같은데?**

여기가 부평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평 이씨고 원인재(인천이씨 시조의 묘소)는 인천 이씨고 그러다가 다시 합쳐진 거잖아요. 저희가 계양산 밑에가 본산이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상님이 고향으로 낙향 안하고 이쪽 선학동으로 온 거죠. 1600년대부터 지금 미추홀구에 정착한 거죠. 1600년대부터 미추홀구에 전반적인 집성촌 세력이 생긴 거죠.

**그럼 이번에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방향성은 가는 거니까…….

**미추홀구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거죠?**

일단은 남구라는 게 명칭자체를 변경한 이유를 보면 울산도 남구가 있고 여러 구가 있어서 일제시대 때 나는 행정구역이에요. 인천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미추홀구 그쪽에 그것도 주민의견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저는 원래 미추홀구보다 사미로 썼지만 소수의견이라….

### **사미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덴가요?**

사미가 원래 옛날 주안동 하기 전에 지역명이 ‘사미리’예요. 주안 3동에 사미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명보주유소 옆에 보면…….

### **명보주유소도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80년대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이 된 거죠. 여기 주유소가 별로 없었을 때 랜드마크였죠.

### **사미의 뜻을 아세요?**

선비 사(士)자, 아름다울 미(美)자. 1600년대 이후 문헌에도 사미리<sup>6)</sup>가 나오는데 한자가 변동은 됐는데 구한말에 저희 조상 중에 이현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강직해요. 아름다운 선비가 나온 마을이라는 의미로 문헌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 **주안에 신비마을도 있어요.**

---

6) ‘아름다운 선비’라는 뜻인데, 구한말 이조판서 이현경의 출신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마을생활사 주안동편」

신비마을도 저희랑 같은 패밀리예요. 같은 집성촌이라. 친족이예요. 1600년대 이후 집성촌 개념이고 400년 된 종씨죠. 학익동에 제운사거리 있잖아요. 제운선생이라고 그 양반이 원래는 백학초등학교 앞 신동아아파트 3차 있는 쪽이 원래 집성촌이었어요. 근데 제운사거리를 엄한데다가 갖다놓은 거죠. 그건 마음에 안 들지만.

**제운사거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 이신 거죠.**

제운 자체는 백학초등학교 있는 데가 그 양반 집성촌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학익동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 그쪽에 제운을 붙이는데 낫지 않나 어쨌거나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쪽에다 붙여놓긴 했는데……<sup>7)</sup>

**제운 선생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 분도 같은 성씨신지..**

네, 저희랑 파는 다른데 후학을 많이 길러내고 임금님(숙종)한테 칭송을 받은 분이예요.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많죠.

**이 작업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역사를 찾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

7) 학익동 일대는 조선 숙종 대 부평 이씨 제운(霽雲)이라는 인물이 살았다 하여 제운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미추홀향토문화전자대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에 응한 거죠. 용현동에 강씨 정려도 있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병자호란 때 낙섬에서 청나라하고 (싸울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 순직하셔서 남편 따라 바다에 투신하신 강씨 부인을 기념하는 정각이죠.

**열녀문 같은 건가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부평 쪽에 하나 있고 계산 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렇죠.

**정려는 문으로 세워진 기념비 같은 거예요?**

홍살문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 조그맣게 돼있죠. 사당같이.

**사진 볼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자료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런 사진자료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메일로 받아야 제대로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메일 적어 드릴게요.**

네, 역사 얘기하면 시간 다 가는데... 제 고향이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부평까지 하면 천년패밀리이기 때문에 인천하면 원주민이 잊혀진 도시고 그래서.....

**가족사가 기록으로 남겨진 게 있나요?**

가족사로 남아 있는 건 없어요. 80년대 이후로 다 도시개발 되면서 기와집도 초가집도 다 부수고 주민들도 다 아파트나 외부로 나가고 사촌형하고 저하고만 남아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주안 3동에서 매년 사미축제 하잖아요. 사미놀이터에서.....

**사미축제는 어디서 주관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해요. 자기 동마다 축제하잖아요. 용현동은 낙섬축제 하잖아요.

### **사미축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 돼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노래자랑하고 음식대접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올해가 7회 째예요.

### **몇 월에 해요?**

10월 경 해요.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거예요.

###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강사로 돼 있는데 옛날 남구청 있을 때 학산학에서 100여명을 강사로 교육시켜서 20명으로 추려졌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산콜 강좌라고 말하자면 1강 필강으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거기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움을 주고 해보고자 지금도 학산학연구회 홍보 쪽 맡고 있고… 향토사 연구하고 사진을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카메라 만지니까 사진자료하고…….

### **사진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구 소속 자원봉사 했는데

아시안게임 때는 경기장 돌면서 촬영했고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는 보직이 바뀌어서 선수촌, 입촌식, 퇴촌식 기록담당을 했어요. 매 년 2~3회 사진전 그룹전을 하고 있고 한중문화관에서도 두 번 전시 했어요.

**오래된 사진도 있는지…….**

오래된 사진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 갖고 계신지…….**

지금 개항장부터 130년 된 사진은 카페에서 많이 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사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현재 말하자면 옛날 소래포구라든가 수인선 철길 지난 거 원인재 옆에 보면 철길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자료로 남기고 있죠.

**지금은 신기촌, 주안동 중심으로 채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안3동이 원 사미리니까 섹터(sector)가 성덕교회부터 남부초등학교 초입까지가 원 동네예요. 거기가 원래 동산이었어요. 구릉지에서 마을이 형성 됐죠.

### **옛날에 화장터였다고…….**

화장터는 현재 쌍용아파트 앞쪽으로 화장터 굴뚝이 있었어요. 쌍용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 있는 데가 중앙도자기였다가 진흥요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있다가 나갔죠. 옛날에 신기촌에 유입된 분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진흥요업에 다니면서 생활터전을 찾아 입주했던 사람들이 부흥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신기촌 자체도 3,4번 바뀌었죠.

### **세대가 교체가 된 거네요.**

네, 저희 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엄마 따라 어려서 와갖고 자란 세대도 있고 1세대도 있고 2세대 3세대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천 쪽에서 사동에서 왔잖아요.

### **동인천이 사동이에요?**

네, 답동사거리 있죠. 그 앞쪽이 사동이잖아요. 그 동네가 작잖아요. 여러 동네서 이쪽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소스로 와갖고 말하자면 신기시장 올라가는데 있죠. 그 중심으로 좌우가 메인도로가 생긴 거죠. 맨 처음에 판잣집 개념이었다가 슬레이트였다가 현대식 기와였다가 시멘트, 말하자면 빌라 일반주택으로 바뀌었다가 빌라

로 바뀌고…….

**슬레이트 전에는 주택이 어떤 형태였죠?**

판자. 판자촌에서 한국전쟁 때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죠.

**선생님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전쟁이 후 6,70년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기는 동네가 말 그대로 사미리가 주안3동 개념이고 주안2동은 몬머리(뭇머리)라고 있었고, 지금 주안초등학교를 새로 지었잖아요. 이전해갓고, 그쪽에 몬머리 공원이라고 만들어 냈는데 그 섹터가 주안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지금 인주대로가 용현동 4거리부터 인고까지 가는 데가 논이었잖아요.

**몬머리가 어떤 뜻인지?**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논들이 꽤 많았어요. 인천은 원래 평지가 없는 동네예요. 인천은 바다의 도시면서 매립의 도시예요. 평지로 따지면 문학동 있는 데가 평지 개념이고 그것도 평지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인주대로가 복개한 거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서 미꾸라지도 잡고 그랬어요. 수봉산 팔부능선 쪽에 월천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승학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랑… 그전에 수봉산에 물이 많았어요. 천이라기에는 뭐한데 수로개  
넘에다 천하고 복합된 개념이죠. 그래서 남부초등학교 자리도 보면  
물자리에요 물자리. 물 담아놓는 저수지 조그맣게…….

**지역이 변하는 모습을 다 목격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주안2동 자체도 원래 구릉이에요. 높은 산은 아니어도 힐  
(hill, 언덕)에다가 건물들 진 거니까… 60년대 초반부터 말하자면  
슬레이트라고 일반 시멘트 집들이 형성됐죠.

**길도 많이 바뀌었죠.**

길도 원래 여기 시민회관부터 죽 내려오는 길이 신기사거리 옛날  
우리는행 있던 자리 거기까지만 길이 있었던 거예요 원 구도로  
는…….

**만나 뵙는 분들이 시장 있는데 까지만 길이 있어서 마을버스가 들  
어왔다고…….**

신기시장은 아니고 원 구도로는 주안사거리부터 해갓고 이것도  
말하자면 논 한가운데 길이었는데 불도저로 밭 한가운데다 닦고 나  
가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석들 돌을 깔아서 도로 만들

고... 신기촌 형성되면서 5번 버스가 주안4거리 쪽으로 해갓고 금성 연마라고 있었는데 그리로 해서 의료보험 공단인가 그 앞쪽으로가 구 도로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게 저 쪽 신기촌까지 가는 길이었던데요. 이렇게 S자 형태로 갔던 부분인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기 논 한가운데를 매립하면서 거기까지 연장한 거예요. 신도로 개 넘어지. 그래서 신기시장 입구가 5번 버스 종점이 됐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라 부모님이 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인천으로 귀향 해갓고 본가 건너편에 살다가.....

**본가가 어디신지?**

주안3동이요.

**부모님이 본가 건넌방에서 사셨단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제가 3살 때 왔으니까 한 2년 살다가 6살 때 주안2동 쪽으로 가요.

**주안3동에서 주안2동으로 이사하신 거네요.**

네, 셋방살이. 그랬다가 다시 문머리 쪽으로 금성연마 있는 데 그 쪽으로 왔으니까 주안에서 계속 산거죠. 동네만 왔다갔다 한거

고…….

**그러네요. 본가에서 몬머리 쪽으로 이전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5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안2동쪽에 살다가 몬머리 쪽으로 와서 그 일대까지 그때 다시 고1 때 본가로 오죠.

**다시 주안으로, 그럼 그 때부터 주안에서 계속 사신 거네요. 자녀 분들도 다 주안 거주하나요?**

저는 싱글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요. 제가 직장생활을 3년을 외부에서 했다가 제가 KT 나왔는데 신규사원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3년 외부에 나갔다가 연고지로 해서 인천 쪽에서 근무하고 남인천 인천지사인데 만수전화국 개국멤버예요. 송도하고 남인천하고 세 군데 최종적으로 인천지사로 와서 시스템담당 과장하다가 영업담당 과장하다가 끝나고 명퇴한지 9년차 됐죠. 그러면서 제 고향이잖아요. 관변단체 장이라던가 동사무소 일곱, 여덟 개 단체 있는데 그것보다 맨 처음에 시작한게 자원봉사해보자해서 자원봉사하면서 문학산보존회라고 있는데 거기

홍보국장 해달라고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시기자하고 구기자했었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학습강좌 있으면 듣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옛날 남구청에서 학산학이라는 자체를 받고서 강사를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구에서 합병해서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죠.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많으실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죠. 제주도 분이랴…….

**어머니는 아버님하고 만나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섬이니까 나이 들어서 육지로 올라오다가 중매로 저희 아버님이 막내니까 서울로 갔다가…….

**어머니도 계속 주안에서 사셨어요?**

아뇨, 70살까지 직장생활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로얄아파트 청소하다가 나이 많다고 잘렸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병원장도 다 알고 80세 넘으시면 병원 다니시는 게 일이지 뭐.

**2000년대 이후엔 큰 변화가 없었죠.**

2000년대는 80년대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집들이 단지를 형성하면서 집장사들이 많았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빌라를 많이 지었죠. 50평짜리 집하나 부수면 4층 빌라 한 동을 지으니까 문학동이나 만수동쪽은 처음부터 빌라촌이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보면 주택을 부수면서 빌라를 지었죠. 최근 들어서는 두 동 이상을 합쳐서 나홀로 주택 큰 거를 짓죠.

**그런 게 아쉬워요. 기존에 예쁜 집들이 많은데 헐고 빌라를 짓더라고요.**

토건족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안상수 시장 때 인천을 170개 권역으로 나눠 갖고 결국엔 정치적인 거긴한데…….

**정책도 한 몫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60년대, 70년대 개발된 거면 50년도 안 된 거잖

아요. 그런데 지금 다 부수잖아요. 외국 가면 100년, 200년 돼도 리 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인데…….

**수봉산 밑에도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잠식해 갖고 수봉산도 밑에는 형태가 많이 변했어요. 중간에 산도 잘린 거고 고가 있는 데가 깎아서 뚫은 거잖아요. 모양새가 없는 부분이고… 아쉬운 거는 개발하면서 저는 원주민이니까 헐이지 헐.

**저는 원주민이 아닌데도 그렇게 변하니까 아쉬움이 컸어요.**

저희 집안들이야 졸부 돼서 나갔지만 저는 저희아버지가 막내라 답이 없었고 저는 그 터에서 빌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나가 샅시다했는데 어머니는 노인이라 그냥 살게 된 것도 있고…….

**다른 형제분들은 어디 사세요?**

여동생 서울서 살고… 저야 말단공무원이라 그렇고…….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주안 2동쪽 살 때는 여기 논길 따라 걸어오면 20분쯤 됐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있다가 거기가 본가라 할머니 계시니까 점심. 저녁

먹고 큰집도 계속 있었으니까 옛날엔 아무 집 가서 밥 먹고 그랬지.

**지금은 친인척분들도 다 떠나신 거네요.**

지금 사촌형만 백모하고... 사촌누이도 다른 양반이 있는데 다른 데 가게시니까 지금 현재 가족관계는 그렇죠.

**집성촌이면 명절 때면 많이 모이셨겠어요.**

아침에 제사(차례) 지내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거나 집집마다 제사 지내면 점심 때 지나가는 거죠. 한집 지내고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원래 옛날엔 동네 한바퀴 도는 부분이고 사촌 육촌 말하자면 작은할아버지들이 있으니까 오촌 당숙들이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반나절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80년대 이후로 다 나가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 하는 거지.

**최근에는 전체 다 모이신 적은 없으세요?**

최근에는 사촌들 보기도 힘들어요. 생일 때나 그래봐야 사촌형네 사촌들하고나 만나지 5촌쪽 하고는.....

**4촌 5촌 넘어가면 얼굴도 잘 모르죠.**

6촌까지는 기억하는데 7촌까지는… 6촌 동생들이 애 낳고 그랬는데 어려서 보고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결혼식이나 장례 이럴 때 보는 건데 여기도 도시화 돼서…….

**학창시절 추억 있으세요?**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그런 것 밖에 없었어요.

**모범생이셨네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어디 놀러 가지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인천지하철 생겨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교보문고 가는 게 다였죠.

**진짜 모범적으로 사셨네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 상황이고 어려서는 건강하지가 않아서 뛰어 놀고 그런 건 없었으니까..

**음악이나 책으로 취미를 삼으셨나봐요.**

중학교 때 동산중학교 나왔는데 동산중고가 재단이 야구를 하니까 야구공 만지고 그런 건 있었지만 체육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도서관도 있어서 시험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 **그 당시 도서관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그 때는 인천에 을목도서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있었는데, 을목도서관은 지금 약간 리모델링해서 있는데 최근에 가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은 부평고등학교로 많이 갔어요. 저도 원래 꿈은 행정가였는데 옛날 집들 다 그러니까 저는 인문계를 못가고 정석항공고 갔어요.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장학금 못타고 대한항공 (취업)간다고 했는데 대한항공도 많이 못가고 저희 때는 저희가 하이레벨이라 졸업하면서 전문대 많이 갔어요. 대한항공 일부 가고 저도 나름대로 주안공장 해매고 다녔는데 답이 없더라구.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 주안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창설멤버잖아요.

### **그 도서관이 언제 생겼어요?**

다 80년대 초중반. 그 때부터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된 거죠. 지금은 미추홀도서관이 생겨서 1호 도서관이 된 건데 저도 새로

생긴다는 도서관은 한 번씩 다 가봤죠. 최근에는 화도진도서관 많이 가고 있죠.

**도서관 가시면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두 가지죠. 도서관 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화도진도서관은 인천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돼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책이 다섯 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책도 빌리고…….

**네 맞아요. 그럼 남기고 싶은 추억이 있으세요?**

제가 20대 초에 이모부 되시는 분이 경인상가에서 학습지를 했어요. 오래하진 못했는데 땀뽕이라고 하죠. 집집마다 돌리는 일일공부 장학교실.

**알바처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놀고 있으니까 몇 개월 했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논현동까지…….

**엄청 머네요.**

젊은 나이에 놀면 뭐해요. 그 때 말하자면 남구지역을 걸어서 눈

으로 보고 그런 거죠.

**속속들이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활동)근간이 되는 거죠. 지금 주안 남구뿐만 아니라 남동구가 됐지만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연수구도 예전에 남구였다더라구요.**

네네, 나눠 주고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구자체가 인천인 거예요. 다.

**남구가 미추홀이라는 명칭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가 문학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북쪽으로 주안역 뒤가 염전이잖아요. 동쪽으로는 남동공단 있는 데가 염전이었고 남쪽 연수구 쪽 보면 연수구 넘어가면 바닷가잖아요. 서쪽은 용현동도 보면 지금 토지금고 자체도 염전이었고 매립지잖아요. 그러면 볼록한 문학산 해서 따지면 땅이 별로 없는 거죠. 중·동구 자체도 저긴데 중·동구도 개항이 되면서 인천부가 됐고 여기도 인천이었는데 농촌지역이니까 부평하고 합쳐서 부천군을 만들었다가 다시 전제로 흡수되면서 인천이 됐고 부천이 떨어져나갔고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지금은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건물 부수거나 새로 짓거나하

면 촬영을 하죠. 그 다음에 도로 중심으로 촬영하고…….

###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오리지날 원주민이니까 1%도 안 될걸요. 인천 부평 포함해서 성씨들이 있는데 인천 이씨하고 부평 이씨 말고는 그렇게 오래된 주민이 없어요. 다 조선 중기에 낙향해서 산 집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 토박이야’ 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만석동 학익동에 황해도에서 온 양반들이고…….

### **그나마 그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자리 잡은 거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 거고 강화하고 김포에서 지주들 아들이 유학을 와서 말하자면 교육계하고 은행계는 강화 김포파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죠.

###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지역이라는 건 원주민이긴 하지만 지금 도시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와서 지역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고향이란 개념은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인거잖아요. 아버지 때 고향 따지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애들이 자기가 지금 있는데서 형성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가 300만이라고 하는데 사

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명이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동이든 구든 시든 그 섹터가… 연수구 송도같이 저기하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원도심에서 다 털어서 거기 해준 건데 지금은 성남의 분당도시 얘기가 되니까 저기한 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내 집 앞이라도 깨끗이 하고 마을이 깨끗해야 되거든. 또 아파트 빌라촌 나홀로 주택들 나눠지면서 선이 그 어지잖아요. 계층, 계급 간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 **아쉬우신 점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점점 고착화되는데 각 개인이 주민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도 참석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 삶이라는 게 99%는 비슷한 거니까… 주민이 바뀌어야 돼요. 시장군수가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 **개선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그래서 전체가 변하는 게 트렌드가 되어야하는데 거꾸로 나만 내 주변만 생각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계층 간, 계급 간

차이가 형성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죠. 본인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다가 닥치면 내 일이 되는 건데 결국 계층 간, 계급 간 밥그릇 싸움만 되는 이익만 추구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사는 집도 내가 살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는 집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집값이 올라가봐야 뭐해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면…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겠죠.

**차후에 궁금한 점 있을 때 연락 드려도 될지요.**

네 카톡 주시면 돼요.

# 5번 버스가 다녀서 신기촌으로 종점이었거든

구술자 : 고병선(미추홀구 공무원, 주안2동 출생 및 거주),  
조영숙(여주 출생, 용현동 거주, 문화활동가, 시인)

- 채록일 : 2018년 6월 14일
- 채록장소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 채록자 :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 이천에서 와서 거기서 잠깐 살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고병선 : 잘 기억이 안나요?

조영숙 : 근데 우물 있었던 거 기억하고…….

고병선 : 우물? 어떤 우물? 우물이 한두 갠가?

조영숙 : 기계공고 맞은편 쪽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기억 못 해 내가 어렸을 때니까…….

고병선 : 아 거기가 옛날에 라이타 공장 있었어. 기계공고 맞은편 쪽으로 라이터 공장 있었고 거기 우물이 있었어. 찬우물이라고 했나… 그쪽은 내가 살던 데서 떨어진 데고 미추1구역 지금 재개발하는데 그 주차장 큰 데 있죠. 한라아파트.

조영숙 : 동사무소 있는데…….

고병선 : 거기서 더 저쪽으로 주안 4동쪽으로..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주안사거리 쪽에 있었잖아요. 그리로 옮긴 거야.

이경희 : 계속 주안에서 사셨어요?

고병선 : 주안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살고 결혼해서 잠깐 서구 좀 살고 서구 당하동

조영숙 : 그러면 태어나서 주안 2동에서 살았잖아요.

고병선 : 31년간 주안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한 4년 서구에서 살고 다시 신동아 남구로 온 거지.

조영숙 : 30대까지 주안에서 산거네.

이경희 :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고병선 : 그 동네가 옛날에 완전 시골이었죠. 전부 논밭이었어요.

조영숙 : 거기에 조고만 야산 하나 있었잖아요.

고병선 : 야산? 어디 어느 쪽에?

조영숙 : 주안2동 쪽인데 그때가 어렸을 때라 거기 야산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산소도 좀 있고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었어.

고병선 : 위치가 주안2동에 야산이 없었는데 주안2동이 아니고 주안3동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세미산, 세미 마을, 세미 공원이 있어요. 주안3동이야.

조영숙 : 그때는 다 주안동 이라고 통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되고 나서는 내가 몇 동 인지를 잘 기억을 못해.

고병선 : 말산이 있었어요. 말산. 지금 그 부경아파트 라고 있어요. 한라아파트 부경아파트. 거기 말산이라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거기 말무덤이 있었다고... 큰 거 한 두 기.

이경희 : 말을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고병선 :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다 밀어내고 아파트 지은거지.

조영숙 : 그건 말산이고 아까 말한 산은.....

고병선 : 세미산은 주안 3동쪽이야. 지금 어디냐면 명보주유소.

조영숙 : 명보주유소 맞아 명보주유소 쪽이야.

고병선 : 그쪽에 세미산이라고 하나 있지 않나, 세미놀이터 세미공원.

이경희 : 세 자가 아이 인가요?

고병선 :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

조영숙 : 세미가 어떤 세민지 모르지?

고병선 : 모르지.

조영숙 : 그건 확인해봐야겠네.

고병선 : 거기 놀러 많이 다녔지. 우리 그 사촌 형이 자기 딸 이름을  
세미라고 지었어. 그거 생각해 갖고 세미라고 지었어.

조영숙 : 거기 산소가 많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고병선 : 그러니까 그쪽에 내 기억에는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산소  
있는 건 기억이 안 나. 명보주유소 뒤쪽 거기가 세미산이  
야. 그쪽 어디에서 사셨구나~

조영숙 : 신기촌 거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신기시장 쪽에…….

고병선 : 중앙 통로에? 중앙통로 가기 전에?

조영숙 : 네, 큰길가에 있는 교회 바로 뒤편에 살았어요.

고병선 : 아~ 어딘지 알겠다.

조영숙 : 그러니까 거기로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고병선 : 거기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조영숙 : 네.

이경희 : 이 때가 언제쯤이에요?

조영숙 : 유년시절이지.

고병선 : 초등학교 1,2학년.

조영숙 :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고병선 : 내가 67년생이니깐 64, 65년도. 지금 그 인주로 자체가 꽤  
짧잖아요.

조영숙 : 네네.

고병선 : 무슨 천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승기천 인가? 승기사거  
리니까…….

조영숙 : 그때는 승기천이라고 안 했던거 같애.

고병선 : 나도 그 기억은 안 나고.

조영숙 : 새로 만든 이름인 거 같아요.

고병선 : 거기 그냥 천이 있었잖아요. 길게 독쟁이부터 내려오는…….

조영숙 : 네, 이름을 그때는 뭐라 그랬는지.

고병선 :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

조영숙 :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볼 것 같아.

고병선 : 복개를 한 게 고등학교 때 한 거 같은데.

조영숙 : 80년대. 막아놨다가 그래서 그 도로가 넓어진 거잖아요.

고병선 : 네.

조영숙 : 그러면 가족 관계 어떻게 되세요.

고병선 : 없어요. 부모님하고 삼 형제 내가 장남.

이경희 : 어릴 때 뭐하고 노셨어요?

고병선 :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거기 냇가 나가서 고기 잡고 논에  
가서 개구리 잡고…….

조영숙 : 그러면 주안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고병선 : 네.

조영숙 : 그때는 주안초등학교하고 용일초등학교하고 용현초등학  
교 그렇게 세 개밖에 없었잖아. 남구에.

고병선 : 그렇죠. 용일초등학교 오래됐고 그리고 내 동생이 남부초  
등학교가 나중에 생겼어.

조영숙 : 그건 후에 그건 90년대 초에…….

고병선 : 아닐걸. 남부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예요. 개가 70년생이야. 근데 개가 3학년 때 아마 그리 갔  
을 거야. 11살.

조영숙 : 80년대 후반인가 그럼.

고병선 : 네. 80년대 중후반. 그때 거기 그 자리가 전부 다 논바닥이  
었잖아요. 옛날에 그저 천 넘어서는 다 논바닥이었지.

조영숙 : 주안 초등학교에서 남부초등학교로 이렇게…….

고병선 : 분교 비슷하게.

조영숙 : 거기서 멀다 그러면 용일초등학교로 둘로 나뉘지고…….

고병선 : 용일초등학교는 거기까지 갈 일이 없지.

조영숙 : 왜냐하면 주안하고 용일초등학교 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안에서 남부초등학교하고 용일초등학교  
교 딱 가운데야.

고병선 : 학군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도 기계공고 쪽은 다 용일초등학교고 옛날에 이쪽은 주안 다녔고.

조영숙 : 학익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안초등학교 다녔나? 아닌데  
그때는 문학초등학교 다녔지.

고병선 : 문학이 있었죠. 학익동에서 주안초등학교는 멀죠.

조영숙 : 나도 거기서 걸어서 한 4~50분 걸렸던 거 같아요. 어린 나  
이에 걸어서 가니까…….

고병선 : 꽤 되죠. 신기촌에서 주안초등학교까지요?

조영숙 : 네.

조영숙 : 그 때는 길이 큰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했어.

고병선 : 논길로 다니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주안초등학교까지 15분.

조영숙 : 그렇죠. 바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지나서 있으니까…….

이경희 : 같은 학교 다니신 거예요?

고병선 : 그렇죠. 선배님. 우리 어머니도 주안초등학교 나오시고…….

조영숙 : 막내여동생이 남부초등학교 나왔거든. 나랑 아홉 살 차이나는데… 고등학교 가면서는 전혀 그런데 관심을 안 쓰잖아요.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 같아. 초등학교 때만 남은 기억이 있는 거죠.

고병선 : 초등학교 때 그 동네에서 놀고 뭐 하고 있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그 집에서 노는 게 없잖아요.

고병선 : 아예 노는 시간이 없었지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조영숙 : 저 뭐야? 그 보통 뭐 하고 노셨어 어렸을 때?

고병선 : 맨날 그거 저 학교 갔다 오면은 겨울에는 논바닥에서 공차고 그리고 저 봄, 여름에는 냇가 나가서 놀고, 봄 모내기할 때 거기 우리 외갓집이 논이 많았거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그게 놀이문화죠.

조영숙 : 거기 냇가에 장마 오면 넘쳐나잖아요. 우리들은 못 넘어다니니까 그때 기억에 누군가가 거기서 그 비 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애들을 이렇게 넘겨줬던 기억이나.

고병선 : 다리가 몇 개가 있었는데 무서워서 잘 못 다녔어 어렸을 때

는…….

조영숙 : 그리고 여름에 놀 때는 다리 밑이 그늘졌으니까 거기서 놀다가 신발도 떼내려가고…….

고병선 : 맞아요. 거기서 많이 놀았지.

조영숙 : 가끔 세미산도 가서 노시고?

고병선 : 세미산이 가까우니깐 문학산이나 승기산보다 가까우니까…….

조영숙 : 그 쪽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 아니면 뭐 건물 이런 거 명칭 이런 거 있어요?

고병선 : 그때 당시에는 기억에 남는 데가 건물이나 문화공간으로서는 아폴로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조영숙 : 네, 중앙극장.

고병선 : 아폴로극장이었었지.

이경희 :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나요?

고병선 :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지 중앙극장으로…….

이명순 : 거기 제일시장 있었나요?

고병선 : 네, 제일시장이 제일 컸지 깡도 있고… 우리 외갓집에서 아침에 일찍 호박 같은 건 따면 깡에다 갔다 팔고 그랬지.

이명순 : 신기시장보다 먼저 생긴 게 제일시장이에요?

조영숙 : 비슷하게 생겼을거야.

고병선 : 그거 모르겠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제일 시장이... 신  
기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

조영숙 : 그때 신기시장은 좌판 벌려서 있었을 때고 제일 시장은 그  
나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병선 : 맞아요. 쇼핑몰이라는 걸 또 갖추고 있었던.....

조영숙 : 네, 맞아요.

이경희 : 깡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고병선 : 채소나 뭐 그런 깡(채소시장)이 있었어요. 깡이 열렸다는  
건 경매 하는 거지.

이경희 : 규모가 컸겠네요. 경매할 정도면.....

고병선 : 그 시장이 지금도 이렇게 빙 돌아서 있잖아요. 거기 부지  
가 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 시  
장이 있었고 제일 시장이 있었고, 제일시장은 주안사거리  
진흥관 있었던 자리 있었죠. 저 웅진냉면 아시죠?

이명순 : 민주화운동센터 있는데요.

고병선 : 그 길이 주안 사거리에서 지금 보일러 지금 주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안사거리 있는데 여기  
가 중앙극장 자리고 여기가 제일시장 수도사업소가 여기

있었고 진흥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이거 엄청 오래  
돼서 나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하회라 작은아버지가  
하던 데야.

조영숙 : 아~ 거기가…….

고병선 : 응, 이 길이 이 길이 쪽 넘어와 갖고 신기촌으로 가는 길이  
도로였어. 이게 하나 그리고 도로가 없었어. 지금 시민회  
관 사거리에서 그 직선 도로 있잖아요. 그건 아예 없었거  
든. 그때 유일하게 다닌 버스가 5번 버스가 다녔다고…….

조영숙 : 네, 맞아요.

고병선 : 5번 버스가 다녀서 신기촌으로 종점이었거든. 요쪽에 제  
일시장이 또 있었다고. 지금도 제일시장이 있어요. 그리  
고 여기 여기가 자유시장 제일시장이 아니고 자유시장. 여  
기가 제일시장, 여기 시민회관. 큰 건 이 건물 하나밖에 없  
었지.

이명순 : 거기가 무슨 동이었어요?

고병선 : 주안동.

조영숙 : 주안동. 그러다가 1,2,3,4,5,6,7,8 나뉘졌죠.

고병선 : 나뉘진 건 모르겠어.

조영숙 : 남부초등학교 만들어질 무렵 1,2,3,4,5,6,7,8동으로 나뉘진

거야.

고병선 : 우리는 그때 어렸을 때고 우리가 뭐 어디 사냐 그러면 주안 살아요 그러지.

이명순 : 주안이 엄청 넓었구나. 그래서 남구를 주안구로 하자 그랬구나. 이유가.

고병선 : 큰 건물 생각나는 게 아폴로 극장하고 시민회관. 초등학교 졸업식도 시민회관에서 했으니까…….

조영숙 : 맞아요. 학예회도 시민회관에서 하고…….

고병선 : 학예회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 저쪽 신기촌가면 진흥요업 큰 거 있었고.

조영숙 : 맞다. 진흥요업.

이명순 : 그게 한국도자기라면서요.

고병선 : 그 앞에 화장터 있었고 그쪽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나. 진흥요업. 주안 2동 지금 거기 금성연마라고 연마공장 있었고, 그러니까 그라인더나 숯돌 그런거 만드는 공장. 공장이 그냥 주택가에 큰 공장에 있어.

조영숙 : 진흥요업 근처에 가 진흥요업이 워낙 컸잖아요. 진흥요업 옆으로 화장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신기시장이잖아.

고병서 : 그렇죠. 거기 지금 남부상가 있지요 거기가 아마 종점이었을 걸. 5번 버스 종점. 거기서 들어갔다.

조영숙 : 처음에는 남부상가. 신기시장 맞은편 쪽에서 아까 제가 살았던 그쪽이 종점이었다가 그 교회 앞에 거기가 종점이었다가 이게 이제 올라가서 용현동 거기까지 올라갔었다 근데…….

고병선 :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것만 봤지 어렸을 때 버스 탈 일이 없었거든요.

조영숙 : 그죠. 탈 일이 없죠.

고병선 : 종점이라는 게 어렸을 적 버스가 서 갖고 막 비포장인데다가…….

조영숙 : 질척거리는데 빠지고.. 진짜 내가 왜 기억을 하나면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언니, 오빠는 학교 가고 있는데 당신은 출근을 안 하고 거기서 (종점)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출근을 하셨거든. 애들이 학교 가려면 앞뒤 문을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고병선 : 그랬지.

조영숙 : 학교는 가야되니까 그거 안타면 안 돼.

고병선 : 주안초등학교까지 다 걸어 다녔는데…….

조영숙 :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그 차를 타고 동인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고병선 : 동인천이나 주안사거리 가서 갈아타고…….

조영숙 :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꼭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그 난리를 쳤어. 그랬던 기억이 나서 내가 정류장은 거기서 그렇게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고병선 : 그쪽에 정류장이 있었지. 정류장이 아니고 종점.

조영숙 : 그렇지. 눈에 선하네.

고병선 : 완전히 그냥 비포장 도로였지.

이명순 : 그 저기 쌍용아파트가 한국도자기 아니었어요?

고병선 : 거기가 진흥요업이지.

조영숙 : 맞아요. 거기가 진흥요업 자리예요.

고병선 : 한국도자기라 그랬나? 진흥요업이라고 아는데…….

조영숙 : 그때 진흥요업이 망한다 어쩐다 막 이랬잖아.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한 대요. 그러면서 이사를 갔는데 아 거기 한국도자기가 됐다는 거지.

고병선 : 언제쯤 이사 갔는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나네.

조영숙 : 그게 그때 90년대 즈 됐을 거예요.

이명순 : 어머니가 거기 안다니셨어요?

조영숙 : 우리 엄마가 80년대 다니셨으니까 70년대 다니셔서 그래서 알고 있지. 애들이 많아서 할머니를 또 모시고 있었거든. 아버지 옛날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었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진흥요업에 다니셨던 거지.

고병선 : 옛날엔 여자들도 농사짓지 않았나.

이경희 : 근데 왜 없어졌어요. 굉장히 규모가 컸을 텐데…….

조영숙 : 그거는 알아봐야지. 우리는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뭐 이제 그쪽에서 주로 했던 게 뭘지 그런 것만 아는 거지.

이명순 : 오늘 매 시간마다 벨 울렸다하셨는데…….

고병선 : 사이렌 울렸죠.

조영숙 : 그거 기억해요? 4시 50분. 그 다음에 5시. 꼭 그 시간 되면 울렸잖아.

고병선 : 퇴근시간하고 점심시간. 우리집까지 다 들렸으니까…….

조영숙 : 그쪽 일대가 다 들렸죠.

이명순 : 집이 어디시라고 했죠.

고병선 : 주안2동.

이명순 : 꽤 멀리 들린 거네.

고병선 : 안 멀어.

조영숙 : 거기가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고병선 : 건물이 없어서 그때 당시 전부 논바닥이라 다 들리지.

조영숙 : 다 들렸지. 나는 여기 세미산에서 놀다가 네시 오십분에 울  
잖아. 그러면 얼른 집에 가야지 그때 맞춰서 이제 집에 가  
자 이려고서는 애들 데리고 갔어요.

이명순 : 쌍용아파트랑 신기시장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문학동 넘  
어가는 길이 그 때 없었어요?

조영숙 : 없었죠.

고병선 : 없었어. 똥은 거야. 그러니깐 지금 그 학익동에 그 뒤에 문  
학길이 옛날에 그 길이있었어. 뽕 돌은 거지. 그래서 거기  
는 비포장이고 완전 시골이었지.

조영숙 : 신기시장하고 진흥요업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  
기시장 고 뒤에 허름한 판잣집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판  
자촌 뒤에가.

고병선 : 돌산.

조영숙 : 응, 진흥요업에서 나온 깨진 그릇 집하장이잖아요. 거기서  
소꿉놀이할거 골라서.

고병선 : 타일 주워갖고.. 멀쩡한 것도 있으니까…….

조영숙 : 네네.

이명순 : 거기 범죄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영숙 : 범죄자들은 저 학익동 넘어가면 바로 학익동이잖아요. 거기 학익동에 그 주먹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

고병선 : 거기 학익동쪽은 중국 사람들이 농사 많이 지었지.

조영숙 : 그래가지고 학익동 용현동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쪽 동네로 가지를 않았네.

고병선 : 우리는 신기촌을 못 갔다니까. 그쪽 중앙통로 쪽에도 옛날에 허름한 집 있고 그럴 때도 잘 못 갔어.

이명순 : 아까 말한 판자촌은 딴 데죠? 범법자가 많았다는…….

고병선 : 그 동네 신기촌 일대에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됐었지.

이명순 : 어쨌든 농사짓는 사람 그쪽 토박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조성된 거라잖아요. 판자촌은…….

조영숙 : 그 저기 신기시장이 처음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고병선 : 조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시장이 된 거지.

조영숙 :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시장. 그런 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거지. 신기시장에 관련된 거는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가…….

고병선 : 거기는 신기시장 자료조사 하려면 그 쪽 챔피언체육사에  
구의원 했던 분 있어 중앙 통로에 챔피언체육사. 초입 왼  
쪽. 그분들이 오래됐고 장승덕 의원님도 거기서 젊을 때부  
터 사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토박이지. 타지에서 들어  
온 사람이 많지.

조영숙 : 전에 모습은 어떤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병선 : 그 기억은 전혀 안나. 신기촌은 잘 안 갔으니까…….

조영숙 :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항상 시장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전통시장을 좋아하나봐.

고병선 : 지금도 그렇지.

조영숙 : 교회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병선 : 기억이 안 나요. 교회 안 다니고 성당을 다녔지.

조영숙 : 주안1동 성당.

고병선 :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다닌 데지.

이경희 : 성당 다니시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데 그 행사 같은 거  
좀 크게 하면 또 재밌는 일 있죠.

조영숙 : 다 갔죠.

고병선 : 하죠. 먹을 거 주니까… 굴도 주고.

이명순 : 부활절에도 가고.

이경희 : 연극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고병선 : 그런 건 참여 안하고 먹으러 가는 거지.

조영숙 : 행사할 때 이브날 가고 크리스마스날 가고 그랬지.

고병선 : 아마 감리교회가 오래됐을 거야. 중앙감리교회.

조영숙 : 중앙감리교회. 그게 그 신기시장에 있는 거 아니야?

고병선 : 아니에요.

조영숙 : 여기 위에 동네는 잘 몰라요. 주안역 방면은 잘 모르고.

고병선 : 시민회관 우측으로…….

조영숙 : 네, 그쪽으로…….

고병선 : 좌측은 성당인데.

조영숙 : 네 잘 모르고 아래쪽만 아는 거지.

고병선 : 서문통닭 오래된데 아니에요.

조영숙 : 서문통닭이 84년도엔가 생겼어요.

고병선 : 그거 밖에 안돼요? 아닐걸.

조영숙 : 내가 은행에 82년도에 입행을 했는데 그 후에 생겼거든.

고병선 : 우리 아버지가 전기구이를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사 오고 그  
                  했는데…….

이명순 : 인현이 오래됐대요.

조영숙 : 인현통닭.

고병선 : 인현통닭? 거기까지 가서 사 올 리가 없는데…….

조영숙 : 서문 생긴 건 내가 은행에 거기 주안에 인현통닭 갔었거든.

고병선 : 인현통닭이 나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70년대 중반부터…….

조영숙 : 아니에요. 80년대 이후. 82년도에 내가 이제 입학해서 근무 할 때 그때 거기 막 수리하고 있었거든.

고병선 : 제일 오래된 짜장면 집이 진흥관이었어. 지금은 없어졌어. 난 그 기억은 그 진흥관은 어렸을 때 내가 좀 초등학교 때 간 기억이 나 오래된 중국집 한 40년 이상 된 건데 지금 없어졌지.

이명순 : 우리 진흥관은 선배들이 잘 데려가더라고 오래됐다고…….

이경희 : 진흥관에서 음식 드셔보셨어요.

고병선 : 짜장면이지.

조영숙 : 하얀짬뽕?

이명순 : 하얀짬뽕 요즘은 많은데 90년대 갔으니까…….

고병선 : 거기는 하얀짬뽕 했지. 사천짜장도 유명했고…….

이명순 : 그런 게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차이나타운도 하얀짬뽕 없앨 때였어.

고병선 : 지금은 없어졌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진 거 같아.

조영숙 : 작년?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고병선 : 작년인가 없어졌을 거야. 이전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거더라고…….

조영숙 : 문학산 갈 때 그때는 레이더망이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게 했잖아.

고병선 : 우리는 문학산이라고 안했지. 배꼽산이라고 했지. 거기는 못 올라갔지.

조영숙 : 그 근처도 못 갔잖아. 도로만 왔다 갔다 했지.

고병선 : 거기는 초입 레이더기지 아래쪽 마을인데 거기까지 밖에 못 갔지.

조영숙 : 거기 성황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고병선 : 성황당?

조영숙 : 그 학익동인가 문학동에서 그 산 올라가는 쪽으로 문학초등학교 있는 데서…….

고병선 : 몰라 그 쪽에서 그 주변에 지형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자주 간 데가 아니니깐, 기억이 안 나고 어쩌다 사촌형들하고 칠팔리 캐러 가고 거기 뭐 약수터가 있는 것도 몰랐고 문학산에 있는 지금 예비군 교장 있는 걸 우리는 그거를 문학산 이라고 그랬어. 승기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문학산이라고 그랬거든.

조영숙 : 나도 거기를 문학산이라고 그랬어. 거기 통틀어서 문학산이라고 그랬는데...

고병선 : 레이더 있는 산을 배꼽산이라 그랬고. 그게 원래는 문학산이지. 그 저기 그 밑에 있는 산이 승학산이고 거기 약수터 간 기억은 나고 소풍도 거기로 갔거든. 약수터 밑에 계곡 있는데 닭고기집이랑 다 술판이었어.

조영숙 : 그 영양탕집 있는데 그쪽?

고병선 : 아뇨, 산을 딱 넘어가면 승학산을 넘어가면 팔각정 있는데서 밑으로 쪽 내려가면 옛날 약수터가 있어요. 그 운동기 구도 지금 있고 그렇더라고 가끔 가보면 거기가 계곡이야.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뭐 저기 좌판 있고, 소요산 이런데 처럼 그렇게 냇가 옆에 그런 식으로 있었어. 다 없어진 거지 약수터 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조영숙 : 성황당이 문학초등학교 근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황당 자리가 문학산 위쪽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 거기가 성황당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그때 당시는 산 하나를 두고 똑바로 안 가고요 이렇게 돌아서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

금 바로 큰 길이 뚫려서 옮겨진 거 같아.

고병선 : 간 기억이 안나.

조영숙 : 남동 염전이 있었잖아요.

고병선 : 네.

조영숙 : 거기는 갔었어요?

고병선 : 거기는 좀 컸을 때 갔어 중학교 때. 친구가 그쪽 남촌에 살아  
아갓고 한번 놀러 갔었지.

조영숙 : 중고등학교 어느 정도 커야 거기를 가지. 갈 때 거리가 좀  
있어서…….

이명순 : 길어서?

고병선 : 길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

조영숙 : 거기 차가 안 다녔잖아.

고병선 : 4번 버스 있었지.

조영숙 : 22번 타고 다니긴 했는데 그게 뭐…….

이명순 : 거기 남촌동 4번 버스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조영숙 : 제일 오래 됐어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동인천까지 갔잖아.

고병선 : 그 때는 4번 버스를 그 친구 살 때 한번 탔는데 탈 일이 없  
었지. 주안사거리에서 버스타고…….

이명순 : 남촌동에서 7~8년 살았는데 거기서 4번 타고 동인천 출근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

조영숙 : 근데 그 차를 놓치면 학교를 지각을 하니까 기를 쓰고 그 차를 타고 그랬지.

고병선 : 그 옛날에 있던 진흥요업하고 화장터 사이에 길이 있었잖아요.

조영숙 : 네 작은 길이었죠.

고병선 : 그게 인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면 신비가 있었어.

조영숙 : 신비 마을이었어요.

고병선 : 외숙모가 인제 신비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녁에 초저녁에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무서워 거기가 여우고개도 있었고…….

조영숙 : 옛날에 거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고병선 : 화장터에 지나가야 되지.

이명순 : 여우고개가 지금은 어디예요?

고병선 : 내 기억에는 저기 같아. 진흥요업하고 쌍용하고 그 사잇길 이 약간 언덕이 졌잖아요. 거기 같아.

조영숙 : 그랬겠지. 근데 거기가 화장터랑 같이 있으니까 자연히 나온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

고병선 : 무서우니까…….

이명순 : 여우가 그런데 가있잖아. 공동묘지 같은데…….

조영숙 : 신비마을이 산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가  
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 산소도 조금 몇 개 있을 거고.

고병선 : 아니 많았어.

이명순 : 왜 신비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조영숙 :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고병선 : 신비라고했지. 마을도 안 붙였어.

조영숙 : 그래서 거기 아파트도 신비아파트잖아. 여우고개두 한 번  
알아봐야 되잖아.

고병선 : 거기가 숲이 우거져가지고 낮에도 좀 깜깜했어.

조영숙 : 산이라 그런 거 같아. 근데 거기 그 신비마을 그쪽에 당근  
밭이 있었잖아.

고병선 : 당근 밭? 여기저기 많았지.

조영숙 : 사람들이 대부분 당근 재배를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게 신기  
거기 교회 위쪽으로 용현동 쪽으로 그쪽에 밭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았어.

고병선 : 중국 사람이 양배추 농사했지. 학익동이 그랬더라고.

조영숙 : 중국인들이 일해주고 그랬었던…….

이명순 : 양배추가 그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고병선 : 몰라, 중국 사람들이 거기 양배추 농사짓고 그랬어. 똥지  
게 퍼다가 날르고…….

조영숙 : 당근하고… 가까이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갔다가 팔려  
고… 거기 시장 거기도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 교회하고  
그 중국 사람이 재배하는 그 논 밭 근처에…….

고병선 : 어렸을 때 보면 우물이 이렇게 조그만 동그란 그런 소규모  
우물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밭 한가운  
데 가보면 이거(학산 사무실) 반 만한 규모로 석축을 싸갖  
고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었어. 그런 데서 놀고 그랬어. 형들  
은 막 다이빙하고…….

이명순 : 저수지처럼 물대는데 아니에요?

고병선 : 이 사무실 반 만하게 있어서 샘이 나와서 형들이 돌멩이 같  
은 거 던지고 잠수해서 꺼내오고 그랬어.

조영숙 : 어딘지는 기억이 나요?

고병선 : 어렸을 때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쪽 주안 3동쪽이었던 것  
같애.

조영숙 : 여기가 송의4동이잖아요. 주안 3동에서 수봉산 바로 밑에  
그 쪽으로 다 넘어오는 길에…….

고병선 : 거기 언덕이야.

조영숙 : 잘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농사짓고 그러려면 커다  
란 저수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수지가.

고병선 : 잘 모르겠네.

조영숙 : 주안에서 송의동 넘어오는… 그때 논밭에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고병선 : 어렸을 때 내 동선이 주안동 그리고 지금 남부초등학교야.  
그리고 그 외 이제 좀 멀리 가면은 형들하고 승학산 간다  
든지 용현동 쪽은 거의 안 넘어가고 왼쪽으로도 거의 안  
갔어. 동양장 저 쪽은 거의 안 갔어.

조영숙 : 주안동 쪽에 기억이 많겠네.

고병선 : 겨울에는 논밭에서 노는 거야. 밭에 작물 없고 그러니까 논  
밭에서 공차고…….

조영숙 : 그 저기 뭐야? 학교 가려면 겨울에 날가리 쌓아놨잖아요.  
그 날가리 속에 들어가서 놀아 봤어요?

고병선 : 겨울에 공차고 그러면은 거기 짚 몇 개 빼 갖고 그 안에 아  
지트를 짓는 거지. 학교가는 길에는 그게 없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는 다 주택가였어.

조영숙 : 우리는 논밭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놀기는 거기서 놀으

셨네.

고병선 : 집 바로 나와서 2~3분 걸으면 거기니까 그 냷가가 나오니까… 그 때 당시엔 큰 건물이 없어 갖고…….

조영숙 : 허허벌판이었으니까…….

고병선 : 큰 거라야 진흥요업하고 화장터 있었고 뒤쪽은 주택가였었고…….

조영숙 : 초등학교 앞에 다 주택가였고 부자동네였었잖아요.

고병선 : 거기 단독주택 옛날에는 주안2동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명순 : 굉장히 부자였나봐.

고병선 : 아버지가 좀 있었지.

이명순 : 아버지가 왜요?

고병선 : 아버지 고향이 동춘동이에요. 83년, 84년? 2~3년 후에 거기서 보상을 받았다고…….

조영숙 : 그때도 동춘동도 남구에 속해 있었다가 나중에 나뉘졌잖아요.

이명순 : 그 때도 동춘동이었어요?

고병선 : 그 때 동춘동이었지. 연수동, 동춘동.

조영숙 : 그러니까 그게 연수구로 갈라지면서 동 이름을 그대로 가져 간거네.

이명순 : 연수동이 넓어서 연수구로 했나보다.

고병선 : 연수동 동춘동이 남구에 있는 동 두 개. 그리고 선학동 청학동 다 있었어. 91년 당시 내가 들어왔을 때도 거기는 유배지였어.

조영숙 :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떨어져 있잖아. 주안이 중심지였잖아. 주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져있는 그 지금 무슨 교회에 있을 걸.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

이명순 : 순복음교회요?

조영숙 : 응, 순복음교회. 거기부터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분권이 나뉘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고병선 : 주안은 옛날에 잘 사는 동네였는데 완전 구도심이 돼 버린 거야.

이명순 : 연수구가 연수구가 된 게 연수동이 넓었나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남구를 주안구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주안이 넓고…….

고병선 : 주안동, 용현동, 도화동, 학익동.

이명순 : 남구 명칭 제안이 미추홀구랑 주안구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결국 미추홀구가 된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안이 넓으

니까 연수동이 연수구로 가지 않았으면 연수구가 됐을 것  
같애. 근데 계양구에는 계양동이 없어요. 연수구에는 연수  
동이 있잖아.

고병선 : 관공서에서 자기들끼리 지은 거지 뭐.

조영숙 : 신비마을 건너가 남촌리라 그랬었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남촌동이 된 거죠?

고병선 : 신비마을 건너 저쪽으로요.

조영숙 : 워낙 그 쪽에는 땅이 다 논밭이었고 사람이 별로 안 살았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영을…….

고병선 : 그쪽 바운더리를 다 남촌이라고 했죠.

이명순 : 어디서부터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고병선 : 지금 문학경기장 있죠. 경기장 그 뒤로는 다 남촌이라고 했  
거든요.

이명순 : 지금 남촌동이 줄어든 거네.

고병선 : 남촌이라는 데가 있나?

이명순 : 지금 남촌동이 어디냐면요, 지금 남동 IC 출구 옆동네.

고병선 : 그쪽이야 거기 다 낚시대 있고…….

조영숙 : 세무서 뒤쪽으로…….

이명순 : 거기도 아냐. 남동구 초입에 왼쪽에 조그만 그 동네만 남

촌동이라 그랬는데…….

고병선 : 바닷가 쪽까지 었을 거야.

조영숙 : 거기 전체가 남동구일거야.

이명순 : 조금씩 줄어든 거야. 남동구 까지 다 연결이 되겠구나. 남  
동구도 원래 남구였잖아요.

고병선 : 그렇죠.

조영숙 : 연수구, 남동구.

고병선 : 두 개 다.

이명순 : 남구가 엄청 넓었던거네. 주안구라 할 만하네.

조영숙 : 주안이 아니었으면… 워낙 주안 동네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었지.

이명순 : 만수동 이런 데도 다 남구였을거 아녜요.

조영숙 : 그 때는 주안역하고 제물포역 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하  
인천역 생긴 거죠.

고병선 : 주안역하고 제물포역 주변이 번성했지.

이명순 : 제물포역이 종점이었어요?

조영숙 : 네.

고병선 : 인천역도 있었지.

조영숙 : 인천역은 나중에 생겼지.

고병선 : 그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네. 그 제물포역 주변에 있는 수  
봉산 있잖아요. 그 쪽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

이명순 : 맞아요.

조영숙 :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주 고급 주택이 많잖아.

이명순 : 우리 사돈이 거기 사는데 엄청 부자더라구요.

조영숙 : 거기 기억이 나는 게 커다란 저수지가 동그랗지도 않고 거  
긴 저수지가 유선형에 길을 따라서 있었고 그 집에 포도나  
무가 거의다 있었던 거 같아. 어린 마음에 먹고 싶잖아. 근데  
손 닿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침만 흘리고 갔었던 기억이 나.  
여기 송의동 여기 이쪽에는 김윤식 선생님이 거기서 어렸  
을 때 사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재밌어. 오랫동안  
안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고병선 : 주안이 중심지 역할을…….

조영숙 : 그 때는 주안이 중심지였죠. 그 때는 인천 시청도 주안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 보건소자리. 거기가 시청이었다가 시  
청이 중구로 이사한거지.

고병선 : 그건 몰라.

조영숙 : 아버지가 거기 다니셔서 알지. 거기 있다가 배다리 쪽으로  
시청이 중구로 이사하면서 내가 거기를 놀러 갔었거든 아

버지 얼굴 보러…….

고병선 : 어렸을 땐 관공서에 대한 관심이 있나.

조영숙 :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으니까 관공서하고 친하고 또 은행하고 친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 보니 그런 행정 쪽으로 많이 알게 된 거지.

고병선 : 옛날 남구청 자리가 시청이었구나.

이명순 : 그래서 미추홀구로 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도 여기 있었고…….

조영숙 : 주안이다 중심지였다니까.

이경희 : 지금 시청이 옛날 남구청에 있었다고요?

이명순 : 지금 보건소 있는 데가 시청이었고 그다음에 남구청이었던대요.

고병선 : 난 그때 남구청 거기 있을 때 발령 났어.

조영숙 : 그랬겠죠. 한참 후니까 그때는.

고병선 : 91년도에 남구청이 여기로 이사 왔거든.

조영숙 : 아마 그랬을 거야. 여기 학교가 계산동으로 이사하면서 남구청이 이쪽으로 온 거지.

이경희 :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 없었어요?

고병선 : 어렸을 때 유명한 사람 누구 알아.

조영숙 :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들었다거나…….

이경희 : 황신혜가 인천 출신이라던데…….

고병선 : 백옥자도 인천출신인데.

이명순 : 황신혜가 인하공전 다녔잖아.

고병선 : 백옥자가 주안초등학교 나왔어.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투포환 선수인데 백옥자 있었어.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야. 백옥자하고 주안초등학교 동창이야.

이경희 : 그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고병선 : 없어요.

조영숙 : 몇 년생이셔?

고병선 : 우리 엄마가 76이니까. 70년 방콕 아시안게임 74년대 테헤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68세 밖에 안 됐어? 주안초등학교 나왔는데.

조영숙 : 지금 현재 68이라고? 그럼 50년생이야.

고병선 : 우리 엄마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다고 들었는데… 인천 출신 투포환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조영숙 : 유명한 사람들 좀 알아봐야 되겠다. 유명한 정치인이라던지…….

고병선 : 정치, 그건 알 수가 없지.

조영숙 : 그래도 이렇게 겹쳐지는 기억이 많아서.

고병선 : 같은 동네니까.

이경희 : 두 분이 대화가 잘 통하시네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사신 거니까…….

고병선 : 어렸을 때는 진짜 시골이잖아요 시골. 주안동하고 신기촌 사이는 완전히 그냥 논밭이었잖아. 전부 다. 지금 로얄아파트 있는 자리니 전부다 논밭이었던데…….

조영숙 : 주안2동 이쪽에만 조성(개발)이 되었죠.

고병선 : 그렇죠. 시민회관 주변으로…….

조영숙 :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만들어졌고 시청이.

고병선 : 옛날에는 단독주택 좋은 주택들만 있었는데 지금 빌라가 다 들어섰지.

이경희 : 추수 때나 명절 때 동네잔치나 그런 거 있었어요?

조영숙 : 그런 건 없었지.

고병선 : 그런 건 없었고 정월대보름 때면 동네 청년들이 얼굴에다 까맣게 칠하고 오곡밥 얻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오곡밥하고 나물 같은 거 엄마가 이렇게 내다 주고 그랬어.

이명순 : 쥐불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조영숙 : 논밭에서 하는 거야. 보름날이 되면 음식을 해 가지고 조

그만 창문을 열어 놔요. 그러면 집어다 먹게…….

이명순 :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병선 : 그러면 형들이 양동이에다가 밥 얻으러 다녔어. 축제 같은 건 없었어.

조영숙 : 옛날에 문화행사는 없었지. 기껏 가야 아폴로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다야. 그래도 그때 당시 나는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때 박물관이 자유공원 밑에 있었어요.

고병선 :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갔나?

조영숙 : 지금은 이사갔어요. 그때 박물관도 갔었지 도서관도 갔었지.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들이더라구.

고병선 : 초등학교 4,5학년 때, 5,6학년일거다. 자유공원에 식구들끼리 놀러가고 그랬지.

조영숙 : 자유공원에 많이 놀러갔지.

고병선 : 그 때 놀이기구가 거기 있었으니까…….

조영숙 : 수봉공원에서 제일 많이 놀았지.

고병선 : 수봉공원은 잘 안 올라가고…….

조영숙 : 나 어렸을 때는 수봉공원은 잘 안 올라가고 문학산 일대에 서만 놀았어.

고병선 : 수봉공원은 놀이기구가 자유공원에 있던 거 옮겨서 나중에

조영숙 : 나중에 옮겼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경희 : 어린 시절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조영숙 : 소풍가서 찍은 거 있잖아.

고병선 : 있나 모르겠네.

이명순 : 소풍은 어디로 갔어요?

고병선 : 맨날 거기야. 가는 날마다 비 오면 산에 나무 자르다 용대  
가리 잘랐다고…….

조영숙 : 우리 저 약산사 거기도 갔었는데…….

고병선 : 우린 안 갔어.

이경희 : 왜 용대가리 잘랐다 그래요?

고병선 : 용이 승천하느라 비 온다고 맨날 소풍갈 때 이런 전설이…….

조영숙 : 그 용일초등학교는 갈 때마다 비가 와 가지고 맨날 문제잖  
아. 근데 우리 주안초등학교는 소풍날 비가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와서 비가 왔다가도 소풍갈 시간이 되면 해  
가 쨍하고 뜨는 거야. 그래 가지고 소풍을 한 번도 연기하  
거나 그래서 안 가 본 기억이 없어.

고병선 : 용일초등학교는 맨날 비 온다고…….

조영숙 : 거기는 맨날 애들이 잠 못 자고 그랬다는데…….

고병선 : 맨날 승학산 걸어서 진흥요업 앞으로 이렇게.

이경희 : 도시락은 뭐 싸가셨어요?

고병선 : 김밥 싸갔죠. 사이다하고… 물병에다 물 담아 가고…….

이명순 : 김밥이 (역사가) 오래됐군요.

조영숙 : 그 때는 김밥에 몇 개 안 넣었잖아.

고병선 : 그 때는 가족이 다 갔어.

조영숙 : 나는 나만 갔어.

고병선 : 왜냐하면 이모 쪽 식구들이 다 주안에 사니깐 사촌들이 또  
레가 비슷하니깐 이모들하고 할머니랑 다 와갖고 그늘에  
돏자리 깔고

이명순 :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동네 잔치였어.

조영숙 : 운동회 때는 그랬는데 소풍 갈 때는…….

고병선 : 소풍갈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쫓아오고 그랬어.

이명순 : 날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농사일 바쁠 땐 안 돼. 어르신 다  
노는 거야 구경하고…….

조영숙 : 그게 재밌었지. 운동화 할 때.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명순 : 그리운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아니면 뭐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고병선 : 현재에 만족해.

조영숙 : 아니 그래도 왜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명순 :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거 없어 있잖아.

고병선 : 냇가 없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있었으면 거기 지금 휴식 공간으로 얼마나 좋아. 수변공원같이 해 놓고…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책이었겠지. 그때는 지금 보면 그런 거 없앤게 참 아깝더라고 거기서 고기 잡아다가 먹고 그랬으니까…….

이경희 : 지금 그 자리가 지금 뭐예요?

고병선 : 지금 인주로. 인주로를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조영숙 : 그거는 복개를 다시 못하고 승기촌 그쪽만 살린 거잖아.

고병선 : 다 뜯어내야 돼 사실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주 놀이터여름에는 주 놀이터가 거기였지. 비 한번 딱 오고 나면은 물고기가 더 많아 그럼 거기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 형들하고.

이경희 : 많이 잡아 가지고 뭐 하셨어요?

고병선 : 잡아 갖고 먹기도 하고 그 땐 집집마다 닭도 기르고 그랬잖아요. 닭모이 주고 개구리 잡아서 닭 주고 그랬지 뭐.

조영숙 : 그 저기 뭐야? 남동염전에서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동염전에 가서 뭐 안 잡았어요?

고병선 : 나는 고향이 주안이지만 어렸을 때 동춘동에서도 살았잖아. 2년 이상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쪽 동춘동에 염전 가면 뭐 맨날 낚시하고 동죽 잡고 할아버지 마차 타고 바다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LNG 기지 있는데다가 그물을 1km 치고 좀 마차 두 대 타고 가서 거기서 생선 같은 거 걷어다 우리 친할아버지 신포동에 다 팔았지.

조영숙 : 그 때는 신포동에 어시장이 좀 크게 형성돼 있었죠.

고병선 : 몰라요. 그건 모르고 일본 애들이 많아 갖고 생선 비싼 거는 개네들이 다 사먹었어. 농어민어 같은 거 개네들 개네들이 할아버지도 그물에서 고기 잡아다가 거기 다 갖다 팔고 그랬지.

조영숙 : 거기 횃집이 많잖아.

고병선 : 그 저 안에 경남 횃집이나 뭐 이런 데가 다... 거기 가보면 노인네들 엄청 많잖아요. 옛날 노인네들 그 생각에 오는 거야. 양지 부대집도 그렇고... 됐죠.

이경희 : 네 감사합니다.

# 우물이 있었고, 그 밑으로 개울이 있었어요

---

구술자 : 최종철 (1931년생, 88세, 경기도 오산 출생)

- 채록일 : 2019년 7월 11일

- 채록장소 : 주안7동 경로당

- 채록자 :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종철.

지금 연세가?

88세.

31년생이세요. 하시는 일은?

하는 일 없어요. 이제 나이 먹고 뭘 해요.

네~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태어난 데는 평택군 오산원 서탄면이라고. 평택군과 화도군 경계.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주소는?

1342번지 26호.

얼마나 사셨어요?

1969년 5월 20일 이사 와서 계속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50년이 넘었네요. 이곳으로 오게 된 계기

**가 있나요?**

인하대 앞이 거기가 갯벌이었어요. 하꼬방도 잔뜩 지어서 살았어요. 거기가 철거가 되는 바람에 여기 이리로 나왔지. 토지금고 있지요? 거기가 다 빨이었어요.

**용현동에서 이곳으로 철거 나오신 분은 인터뷰 중에 처음이시네요.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집은 얼마나 했어요?**

시에서 10평씩 불하를 받아서 살게 되었지. 여기는 중국 사람이 농사를 지었던 곳이었어요.

**50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참 많았지. 그런 거는 자세히 잘 모르고 새벽이면 일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네일을 잘 알지는 못하지.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 송도도 만석동도 다 걸어서 갔단 말이야.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건축일 했어.

건축 붐이 있었던 때라 바쁘셨겠어요. 기억을 떠올려서 신기시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별한 건 잘 모르고. 여기 여자들이며 남자하고 진흥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거기 다니고, 노동일 하는 사람은 거기 나가고. 우리 안식구도 도자기 공장에 새벽에 나가서 일했지.

자녀분들은?

아들 둘, 딸 둘. 큰 아들이 58살이고, 그 다음이 56살.

저희 또래네요. 저희가 63년생이거든요.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녔  
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라 가지고 문학초등학교 다녔지.

여기서는 문학초등학교 다녔어요?

문학 다녔어요. 이걸 나중에서야 생겼지.

문학초등학교 다니다가 주안초등학교로…….

아니. 거기서 졸업했어요.

나중에 나온 친구들이 주안초등학교로 다녔군요. 여기 그때, 신  
기시장 이쪽에 차가 안다녔었잖아요.

마을버스라고 하나, 몇 대 생겼어요.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었어  
요. 여기 순대골목 있죠? 전부 주차장 자리예요. 그때는?

**그때 번호를 5번 달고 있었나요?**

마을버스인데 몰라. 지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차도 조그만 거였어.  
거기 주차장에 그게 1시간에 한 번씩 다니거나 말거나 했어. 그것도  
나중에 들어왔지. 여기 길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왔지.

**선생님이 여기 처음 이사 오셨을 때 그때 이쪽의 상황이 어떠셨  
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69년도 5월에 처음 입주했고…….**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두 군데서 나왔어요. 하인천 파가 있었고, 신  
흥동에서 나온 데가 있고. 저쪽 담길 저기 위에 6m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학익동 아파트, 여기 신동아 아파트 있는 데가 하  
인천에서 온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니 신흥동에서 온 사람이 신동아. 그 아래쪽으로 하인천에서 나  
온 사람들이 있었지.

그럼, 도로 밑으로 여기는 용현동 토지금고 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 신흥동. 거기는 신흥동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여기 일대에 밑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개인 개인이 들어와 집짓고 살았지.

그럼 여기 시장 건너편 도로 있잖아요. 시장 있고, 큰 도로 있잖아요.  
거긴 다 논이었어.

그럼 거기 개인이 들어와서 집짓고 자리를 잡은 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70년? 3~4년 됐을 거야. 우리 나오고 4~5년 있다가니까  
73년 됐을 거야.

그때 큰 건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게 지은, 한 3층이나 4층  
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택으로 조그만 집들이고, 다 10평짜  
리 되고, 집도 조금 크게 지었다는 건, 여기 차 다니는 신흥다방. 거  
기 2층. 그게 길 넓다고 지은 게 2층, 3층 그런 것들이지. 제일 높이  
진 거는 저 쪽에… 지금 무슨 자리냐… 거기가 야채가게 지금 들어

왔고, 옷가게 들어왔고. 거기가 제일 컸지.

**그럼 거기가 시티은행 자리였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무슨 자리지... 여러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를 해서 뭐... 기억이 별로. 집에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 새벽이면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세히 알면... 그렇게 지었다는 것만 알지. 잘 몰라.

**여기 도자기 공장에 사모님 다니실 때. 그때 도자기 공장 다니셨던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도자기 공장 이야기는 자세히 몰라요. 집에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남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냥 동네에서 당기는 사람들, 여기 동네에서는 아줌마들, 여자들이 많았지.

**진흥농협에서 퇴근 시간 출근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아침 7시에 나가고. 저녁은, 오는 시간은 5시 반에 끝나는데 시간 일하고 나면 8시, 9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때는 3교대였었지요?**

그때는 2교대 했었어요. 3교대한 건 자세히 잘 몰라.

**오후 타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5시 반에?**

오후에 들어간 사람이 새벽에 나왔지.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면.

**12시간 근무를…….**

거기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 때 일을 다니셔서 마을에 대한 기억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 삶의 형편은 어떠셨던 거 같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요.

**사모님이 진흥요업에 일 다니실 때, 시장이 있었나요?**

여기 시장 없었어요. 우리 나오고 3~4년 후에 생겼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집 짓고 그러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신기시장 주변에서 사실 때 추억거리 있을까요?**

추억거리 그런 건 잘 모르고. 여기 길 있는데 하꼬방이 있었고, 우

물이 있었고.

**우물이 어디 있었어요?**

요기 나가면 다음다음에 도로가 있었어요. 우물이 여기 올라가면 버스 서는데 있죠? 거기 근방에 우물이 있었어요. 버스 서는데 또 개울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고, 그 밑으로 개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거기가 또랑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메어서 보이지를 않고.**

길은 다 논자리고.

**여기 양계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양계장은 저 밑에 가 있었지.

지금 커다란 건물. 뽕죽한 건물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거기도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10m 도로 있죠? 도로 옆에 하나 있었어요. 깊은…….

**거기 우물을 퍼 다가 식수로 썼나요?**

그거 식수로 먹고 여기로도 식수 먹고. 우진아파트 앞에 지금 목욕탕 자리가 중국집 자리인데 거기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진아파트 앞에 지금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기도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 자리는 중국사람 집이고, 우물도 거기 중국 우물 하나 있어요. 우리네가 더운 거 같다 그러면 여름에 수박 하나 사면 거기다 넣었다가 건져다 먹고 그랬어요.

**양계장 위쪽 동네에 중국 사람이 마 농사짓고, 당근 농사짓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목욕탕 밑으로 쪽 내려가면서 다 중국 밭이에요.

**거기도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우물이 중국사람 집, 목욕탕 자리에 있었다니까. 10m도로 중간에 하나 있고.

우진아파트라고 했나요?

우진아파트 앞에 목욕탕 있어요. 그 자리가 우물.

여기가 많이 변했지요? 지금 필요한 거나 바뀌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혹시 옛날 사진 있으세요?

없어요. 있긴 했는데 못 쓰는지 알고 애들이 다 버렸어.

그때는 그게 추억이긴 하는데 귀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자료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경희  
쌤 여쭙볼게 있어요?

혹시,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중에 70대 중후반이나 80대 초반이나  
소개해주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  
80, 몇 년도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팔  
고 이사 가고, 또 다른 사람 팔고 이사 가고... 우리 집만 남았지. 사  
람들이 몇 번씩 다 바뀌었어.

**선생님 집도 수리하셨지요?**

수리 몇 번 했지. 살다가 조금 나쁘면 다시 고치고, 나중엔 몇 해 살다가 위에 슬라브 치고 담 하나 들었지.

**2층으로 올리신 거지요?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1층이었을 때 이 동네 지붕이 어땠어요?**

전부 슬레이트였지. 슬레이트 아니면 루핑 검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슬레이트지. 뭐. 다. 우리도 아직 슬레이트야.

**슬레이트나 루핑 지붕 했을 때, 비 오고 그럴 때 소리 들으면...**

세진 않았어. 소린 나지만... 우린 2층 지어왔으니까 소리 못 듣지. 방 하나만 들었지. 옥상 바닥을 장독대 놓느라고 방 하나만 들었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고. 안올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2층 짓고 서 슬레이트 덮은 사람도 있고 대중없어요.

**그때는 집도 따닥따닥 붙어 있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10평씩 잘라서 줬다고. 그리고 다 한 자 이상 떨

어져 있어요. 공간이 한 자 이상 떨어져 있어요.

**밖에서 보면 다 붙어 있는 거 같아서요.**

다 떨어져 있어요.

**현득수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기억 있으세요? 마을에서 새마을  
이사장도 하고…….**

그 양반이 양계장 했어요. 마을금고 생기는 바람에 이사장 하다가 이사장 2대인가 하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양반 돌아가신 지도 몰라. 나보다 4살인가 5살인가 위예요.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터널 가는데, 순복음교회(구월동) 가는데 아파트인가 사신다던데.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좀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료가 나오면 선생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 말씀해주세요. 고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그때 말씀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 루핑 집도 많았고, 굴 파고 지은 집도 많았어요

구술자 : 조옥형(78세, 1942년생, 전(前) 구의원(2대) 진흥아파트 거주)

- 채록일 : 2019년 7월 11일
- 채록장소 : 주안7동 경로당
- 채록자 :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선생님 성함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조옥형. 42년생. 고향은 충청도. 여기 이사 온 것이 74년도에 이리  
이사 왔어. 바로 뒷집. 여긴 허허벌판이었어.

**74년에 오셨으면…….**

45년 살았지. 32살 결혼해서 왔어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셨어요?**

인천에 일거리 찾아서 왔지요. 원래 빵 배달을 했어요. 빵 배달 하  
다가 대리점하고, 가구점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그만 회사 빌  
딩관리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왔어요.

**45년 사셨으면 이 동네가 달라지는 모습을 다 보셨겠어요.**

여기가 다 천막집이었어요. 이쪽으론 전부. 저쪽 신기촌은 10평  
짜리 집. 68년도부터 10평짜리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선생님께서도 10평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 난 여기 사서 왔어요. 처음엔 중앙도자기라고 했지. 진흥요  
업 있을 때.

**천막집이 많았어요?**

이쪽 동네로는 전부 뭐라 그래요? 루핑 집도 많았고, 굴 파고 지은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판잣집이지.

**진흥요업 안다닌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빵 납품했어요. 크림빵.

**빵 납품을 하루에 몇 개나 하셨어요?**

그때는 700~800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닌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한 10년을 한 거 같아요. 진흥요업으로 바뀌고 나서 납품했고, 거기가 없어지면서 가구점 운영했지. 거기만 했나? 주안 5공단, 6공단에다 납품했지. 옛날엔 다들 간식들 먹었어요.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가 많았어요. 70~80%.

**직접 만드시기도 했어요?**

납품만 했어요. 대기업에서. 옛날 삼립 뭐... 그렇게. 집을 짓고 가게도 했지요.

**가게는 잘 됐어요?**

전두환 시절에 노났지. 그 시절에 번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그  
뎌 또 젊기도 했고, 건축도 많았고… 나한텐 황금기였어.

**사람들 사는 방식은 어땠나요? 집도 좀 넓히고…….**

거기 조그만 집 샀다가 새로 지어서 갔지. 내가 3지구 개발할 때  
에 체비지<sup>7)</sup> 58평 사서 크게 빵 대리점이랑 사는 집이랑 했지.

**빵 대리점 할 때도 부자셨나봐요?**

아니요. 먹고만 살았지. 가구점 할 때가 나왔어.

**체비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구획정리. 주안3동부터 7동, 8동 이렇게. 여기 큰 길 아랫길을 3지  
구라 그랬어. 여기가 예전에 논밭이었어. 겨울에 얼면 스케이트 타  
고 그랬지. 그때 세워진 집들이 단독주택들이었어. 거의 1층 단독.  
아직 있는 것도 많지만 빌라들도 많지. 재건축이 많아. 살던 집도 빌  
라가 됐는데 뭐. 구획정리 되면서 길도 넓어지고. 옛날에 화장터가  
여기 있었어. 화장터 자리가 길이 난 거야. 화장터였을 때는 사람이

---

7)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많지는 않았지만 판잣집들 짓고 다 살았어.

**자녀분들은 학교를 어디로?**

문학초등학교 다녔어. 한기순씨도 여기 오래 사셨어. 다 알고 살았지. 내가 통장제도 생기면서, 76년도 생겼나? 그때 1통 했지.

**통장일 하실 때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일용직이 많았지. 취로 사업도 하고, 그땐 아무래도 어렵게 살았어.

**주민자치활동도 하셨어요?**

8동 때 조금 했어요. 서부동에서 주안7동, 또 8동 그렇게 변했어.

**인구가 늘어서 동이 변한건가요? 그만큼 살기도 좋고 취업도 되고 그러니까.**

응. 옛날 판잣집 있던 걸 밀어내고 안국아파트가 됐잖아. 지금은 다른 게 됐지만, 자꾸 잊어버리네. 아 우진아파트로 됐어. 그 두 개가 관교 한신 아파트가 됐지.

**옛날에 살기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정은 옛날이 좋지. 살기는 지금이 좋아.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불러다 먹고, 그래서 이사도 못가고 여기 사는 거지. 이사 갈 생각 없어요. 살던 데서 살아야지.

**힘들었던 일이나 좋았던 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교통도 좋아지고. 뭐. 다.

**동네가 달라졌으면 하는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도 뭐... 좋아요.

**통장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옛날에는 통장 볼 적에 판잣집 있을 때 돼지를 많이 길렀어. 사료를 동사무소에서 축협에서 구해다 줬어. 구청에서 배당이 나오면 사료를 부천축협에서 타 와서 나눠줬지. 돼지 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일종에 배급 같은 건데 돈을 좀 싸게 받아서 왔지. 얼마에 타서 팔았는지는 생각이 안나.

가게라 오래 못 있어서... 감사합니다.

# 저 어렸을 때...

## 중앙도자기 안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

구술자 : 한기순(68세, 1952년생, 논산출생, 새마을금고 이사)

- 채록일 : 2019년 7월 11일

- 채록장소 : 신기시장 인근 카페

- 채록자 :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 여기서 태어나셔서 계속 사신 건가요?

태어나지는 않고요. 제가 20대 좀 못 되서 부터 주안8동에서 살았어요. 주안8동이 어디냐면 화장터 옆에... 옛날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아가씨 때부터 살아가시고, 제가 결혼을 그 자리에서 했지요. 하고서 8동에서만 애들 학교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7동에 이사 온지는 4~5년 좀 안됐어요. 워낙에 활동을 7동에서, 직장이 있고 해서 더 오래 했지요.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도 7동에서 했고. 부녀회나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8동에서 좀 했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다 정리 하고서. 제가 어디서 살았냐하면 한신아파트 밑에 보면 텃밭 하는 데가 있어요. 진흥아파트 뒤에.

### 그때가 몇 년이예요?

거기는 우리 아이가 5살 때. 화장터 옆에 살다가 72년생 우리 아이 5살, 6살 되었을 때 이사를 갔어요. 몇 년인 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반장 일을 오래 봤어요. 우리 아이들 문학초등학교 다니고. 문학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지금 47살, 48살 연년생 아이들이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거기 텃밭 거기 다 토개공에서 정리하면서 보상받아가시고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산동네 살다가. 오래 살았어요. 한 40년 살았지요.

**한신아파트 있는데, 그 뒤에 보다 여기가 집값이 더 비쌌어요?**

여긴 비싸지요. 현재도 비싸지요. 한신아파트 위에는 산동네니까. 유아원 바로 그 위엔데 산동네니까 공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오래 살았고. 우리 친정이 거기 화장터 있고, 중앙도자기 있고, 중앙도자기 나가면서 쌍용아파트 짓고, 쌍용아파트 짓고 진흥요업이 생기면서 중앙도자기가 진흥요업이 생기면서 요업은 쌍용아파트를 좀 차지했어요.

**52년생이시면 저보다 11살이 많으세요. 50대 후반 저 또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연세가 꽤 있으셔서... 너무 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언니는 늙지도 않아 그래요. 주름살 생기려면 살이 찌고, 생기려면 찌고 주름살이 없어 지나봐 했지. 중앙도자기였을 때 화장터가 있었지. 지금 부평화장장으로 이사 갔잖아요.

**주안8동에 오셨을 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우리 아이가 72년생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양띠(67년생)인데 개가 4살 때 왔나봐. 우리 아버지랑 모래마을에 살다가 왔어요.

**71년도이네요. 그러면 자녀분 태어났을 때 오셨네요.**

내가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는데 우리 아이 낳아가지고, 3,4년 다른 동네에 살다가…….

**여기가 마을이 조성된 지는?**

그러니까 중앙도자기, 화장터 있는 데로 신비마을을 넘어 다녔어요. 미원상사도 있었고, 공장이 화장터 이쪽으로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광명아파트 그 쪽으로 논이 있고, 발은 광명아파트 이후로, 지금 쌍용아파트 맞은편 농협 그 뒤쪽으로 다 양배추 밭이 있었어요. 중국사람 땅이었어요.

**거기가 언덕이었지 않아요? 언덕을 까뭉개고 사람들이 와서 집 짓고… 그랬지요?**

네. 언덕이었어요. 쌍용아파트 정문에서 지금 농협 쪽으로 5번 종점이었었어요. 거기가 다 양배추 밭이었고, 땅이 질었어요. 다 장화 신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농협 쪽이 5번 종점이었다가 종점이 두세 번 바뀌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요만큼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온 게 주안3동 쪽으로

나오고, 더 위에 가고 5번 종점 있는데 있다가 주유소 있는데 있다가, 좀 아래로 인하대 쪽으로…….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여기 살으셨더랬어요?

**저는 신기촌에 살았어요.**

저는 그쪽에서 많이 살았어요. 진흥요업, 중앙도자기. 5일마다 중앙도자기가 월급날이었나 그랬어요. 요쪽 길로는 시장이 남부상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신기시장도 쪽쪽 되어 있고, 별로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예요. 나중에 중앙도자기 없어지고 진흥요업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진흥요업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 타면 시장이 좀 되고 그랬죠. 제주도 같았어요. 오히려 중앙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중앙로 지금 시티은행 맞은편 체육사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제주도 같이 외졌지요. 그런데 쌍용아파트 생기고 진흥아파트 생기고 하면서 여기 남부상가가 활성화가 되었지. 그래서 이 길이 그쪽보다 더 활성화됐지.

여기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데가 중앙로 말씀하신 데죠? 중앙로 쪽에 양계장 앞쪽으로 우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물이 있었다고, 그때는 8동에 살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는 8동 화장터, 진흥요업, 중앙도자기는 확실히 알지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아가씨도 중앙도자기 안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도 웬만하면 중앙도자기 다니고. 나는 공장 다니기 싫어서 유일하게 안 다녔어. 내 동생(56년생)도 다녔어. 지금도 메어서 공장 다니는 게 싫어. 새마을금고 처음에는 파출로 시작해서 걸어서 시장 전체를 수금을 하고 다녔지. 그때가 82년.

### 그러면 리어카로?

리어카는 나중에 생겼어. 처음에는 가방 하나 메고 도보로 다녔지. 토요일이면 가방을 집으로 들고 갔어. 나 혼자 집으로. 일요일엔 노니까. 우리 집에도 가지고 갔다가 장롱에 넣었다가 월요일에 입금시키고 그랬어. 그 시절엔 그랬어. 나중에 전동차가 생겨서... 전동차도 늦게 생겼어. 그 다음엔 내가 자전거를 탔어. 자전거를 타고 주안3, 7, 8동을 다녔어.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 오토바이로 수금을 다니다가 프라이드 왜건 하나를 사서..... 주안3동 새마을금고 분소장을 만들어서......

### **그게 몇 년도?**

90몇 년도. 83년 입사해서 분소장까지 하고 주안3동 명보주유소 옆에 분소가 하나 있었지. 그게 안돼서 폐쇄되면서 명퇴를 하게 되었죠. 명퇴하면서 거기 지금 우리 가게 그 앞에 동강 매운탕 있는데서 제가 가게를 8년을 했지. 8년 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에 나가서 선거해서 당선이 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직 이사지.

### **그때 시장이나 상점 도시면서 수금하신 거예요?**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 공제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공제를 해서 내가 인천에서 1등을 했어요. 상으로 백두산에도 가고, 태국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연합회에서 다 보내줬어요. 강의도 다녔어요. 전라도 한 번 갔다 오고, 주안1, 5, 6동 직원들한테 강의해서, 지금 여자 이사장님이 전무였을 때 강의하러 갔었어요.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주안 지금 동사무소 있는 자리 위쪽으로 사미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쪽 일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안3동? 사미공원일 때는 거기 다 주택이었잖아요.

위쪽으로는 주택이었는데 아래는 아니지 않았나요? 주안7동 동사무소 있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 다 동양장까지 주안3동이었어요. 82년도에 7동으로 분동되었어요. 초창기에 동장님한테 상을 받았지. 한명옥 동장님이었어요. 7동으로 와서 8동으로 분동된 거예요. 그때는 주안3동, 서부동이라고 했어요. 주안3동 때부터 등본이 돼있었어요. 다음에 주안7동으로. 그때 중앙도자기, 쌍용아파트 지어질 때 83년도에 분동 되었어요.

**여기 도로 미니 5번 버스 다니기 전에 풍경은 어땠어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8동에서 오래 살았지만 3동에는 살지는 않았는데. 마을금고 다니면서… 3, 7, 8동인데. 3동에는 5번 종점이 쌍용아파트 앞에 있다가 다방 있다가 인하대 있는 쪽으로. 3동은 동사무소 자리도 그 자리 아닌가요?

**제 어릴 적 기억은… 동사무소 있던데 돌산. 학익동 돌산 말고 조그만 고인돌 같은 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면서 동사무소가 들어왔던 걸로…….**

나는 동사무소 있을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은 지금

김종린 회장이 과일가게 하다가 방앗간 하는데 그분 가게도 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거기가 요지잖아요. 김종린 회장을 3대째 알고 있어요. 우리 친정이 화장터 앞이었으니까. 우리 엄마, 나, 아들은 주안3동 의향소방대 총무부장 맡고, 아이들까지 알고 있으니까. 개가 용현동이 처갓집이니까 거기서 사는데 용현동에서 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니까... 우리는 4대째 김종린 회장을 알고 있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임홍락씨(52년생)가 주민자치위원장 했었거든. 임홍락 위원장님이 그분이 추천하셔서 전화했다고 했는데. 아코디언 봉사하고 다니시고, 나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 일했지.

**이 분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셨어요?**

제작년까지 하셨을걸요. 시장에서 오래 되셨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했어요. 김종린 회장님보다 더 오래 하셨어요. 아이들 꼬끄만 할 때만해도, 아이고 코를 찔찔 흘리고 있으면 아버지는? 물어보고 그랬지. 애들 참 착하게 컸지.

**시장사람들에 대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도 계신 분도 있고, 그때는 집주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형님, 언니 하면서 가족같이 살았지. 돈 같은 거 별면 나한테 다 맡기고 그랬지. 지금도 럭키마트 사장님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야. 여자 사장님인데 그분이 오라고 하면 검은 봉지에 이만큼 돈을 주고 그랬어. 가서 입금시키라고. 어떨 때는 1~2만원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러면 사장님 여기 얼마 모자라요 그러면 믿고 맡기고 그랬어. 그렇게 다니다보니까 신용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형님 보험 들어줘봐 하면, 응, 하루에 얼마씩 받아갈게, 하면 그렇게 주시고 그랬어.

#### **그때는 통장을 수기로 쓰고 그런 때잖아요?**

수기로 쓰고 그랬어도 다 믿고. 제가 나쁘게 마음먹었다던가 하면 다 늙고 죽고. 지금도 신기시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래요. 먹는 거 있으면 고구마도 내놓고 감자도 내놓고. 마을금고 아래 직원부터 분소장까지. 동네 사람들 하고 화합 같은 것도. 그때는 하루하루 일수를 찍었어요. 일수 적금 말고도 통장 가지고 가고 이튿날 가지고 가고. 나름대로 내가 적고. 믿고 주고 그랬지. 지금도 주인이 하는 데는 얼마 몇 집 안돼요. 찬수네 그 앞에 신신정육점, 지금은 몇 집 안 돼. 노점이고 뭐고 주인이 다 했지. 기억이라는 건 이리와~ 들어와 먹고 가~ 그런 인심 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

가면 뭐라도 하나 있으면 야채 같은 거 가지고 가~ 하고. 정답게 살고.

**여기 8동에 살았을 때, 7동에서부터 신동아아파트 그 밑에까지  
철거민들이 온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는 만석동 만석부두에서 많이 왔어.

**그때 철거민들이 여기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거주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는 철거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어요. 8동 같은 데는 원주민들도 많았고, 외주에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았고. 조옥형 구의원도 했지만 통장도 했었어. 그 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많이 알았어요. 지금도 진흥아파트에 살고 계셔. 양배추 밭 있을 때, 지금 농협자리가 가게고 그 밑에 빌라가 살림집이야. 연세가 78세고, 2대때 구의원도 했어.

지금도 부평 쪽으로 직장 다니셔. 상가 관리하시는데 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구의원 하셨을 때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아겠어요. 주안7동에는 박옥균(1,2대), 이영재씨도 했었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상황에 맞물려서 궁금한 것도 있고,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의 주안3동, 신기시장, 길 건너 주안7동 동사무소 공간에 살고 계신 분 소개해주실 분 있으세요?

김종린 회장님이 오래 살았고, 임홍락 회장님은 건어물 가게를 했  
고…….

임홍락선생님께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진흥요업(중앙도자기)이  
3교대가 아니라 2교대 했었나요? 교대시간이 언제였을까요?

8시부터 8시, 맞교대. 1, 2공장에서는 맞교대하고, 12시간씩. 식사  
는 한 끼 주고 잔업 할 때는 크림빵 주고.

어떻게 12시간 일하면서 한 끼만 주고 그랬을까요?

옛날엔 그랬어. 크림빵도 잘 준거지.

우리 엄마도 거기서 일했는데… 그렇게 고생한지 몰랐지.

휴식시간이나 있었나. 애구 그래서 우는 거야?

지금 같아선 못했을 거야. 은행권 다닌 사람들은 최고로 쳤지.

우리 아들도 군대 가기 전부터 영진상고 나와서 부평4동에서 일

했지. 전동차 모델이었지. 거기서부터 해서 퍼졌지. 그 전동차 생기고도 나도 몇 년 다녔지.

### **떠나시라고 하면 못 떠나실 것 같아요?**

한신아파트에서 살 때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 서구 가좌동 미나리깡 있는데 입주권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신기촌에서 뿌리박혀 살아서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정이 들어서 저 입주권 대신 천만 원만 주세요~ 했어요. 지금 사는 집이 이영재씨라고 주인이었어요. 우체국 취급소였어요. 주안7동에 박옥균 구의원님하고 1대인가 2대인가 같이 했지. 10년 전에 그 집을 사서 이사 온 건 4~5년 됐어요. 3, 7, 8동은 지금도 통장들 많이 알지.

예전에 2억 몇 천을 보상을 받고, 입주권 대신 1,000만 원 더 받아서 그걸 보태서 샀지. 진짜 신기촌 떠나기 싫었어. 지금 이 가게 엄마도 내가 마을금고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어. 사람 미운 사람도 왜 없겠어. 그래도 또 며칠 지나면…….

### **시장의 변화도 많았겠어요? 마을 활동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가서 사귀고 혼자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먹는 것도 돌아가면

서 팔아주고.

미디어 축제도 제가 간사일 때 했고. 불우이웃돕기 김장, 꽃 가꾸기, 구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라던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두 번이나 받고 수료증도 받고. 통두레 같은 거는 임흥락씨랑 마을금고 지하에서 같이 하기도 했지. 1회 때라 종이로 계획 짜고 그랬던 거 같아. 워크샵 같은 거. 미디어축제 때는 남부 초등학교에서 음식 같은 거, 해서 해마다 김장봉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니까 다 해서 각 가정에 나눠 드리고.

**신기시장 주변에서 발전해야 할 거라 던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변화라면 신기시장이 5개로 나뉘져 있잖아요. 신기시장이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통합해야 발전 있게 해야 되요. 여기가 남부시장이고, 서부시장은 위쪽에 있고, 중앙시장은 체육사 앞으로 있고, 제 생각에는 통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 분해있지 말고 통합해서 신기시장으로 알게 해야 한다. 현재는 이름이 네 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상인회가 각각 다르고... 모여서 해야 할 일은 같이 하겠지만 남부시장이나 신기시장은 이권이 있다지만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엔 그런 혜택

도 없는 거 같아. 시장도 잘 되는 쪽이 있는 거구. 자기네끼리는 친목회가 있겠지만 상인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큰 도로면에 개울천이었니까 물이 흐르고 그랬잖아요. 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어떠세요?**

정창규 시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새 주민들이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주안 7동 같은 경우에는 불평불만이 없는 편이라 서로 어우러져 사는 옛날 정서가 많은 것 같아. 어제도 17통장님이 남자분인데 봉지를 내미는데 텃밭에 심었다고 주는데. 텃밭이라 봤자 옥상에 조금 심은 거겠지. 나는 참 정겹게 느껴지더라고. 난 어디서나 잘 얻어 먹지만 주민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서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나눔이 있고, 우리가 있고... 오늘도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셔서 바로병원 다녀왔는데 우린 아직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봐서. 어제도 6시 반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미꾸라지 탕을 끓여서 잘 얻어먹고 일찍 집에 가서 자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아. 많고 적고, 못살고 잘 살고가 아니라.

**옛날에 철거민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여전히 10평짜리에서 사시고요.**

10평짜리 집이지만 늘려서 쓰고, 그냥 사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시장도 많이 개발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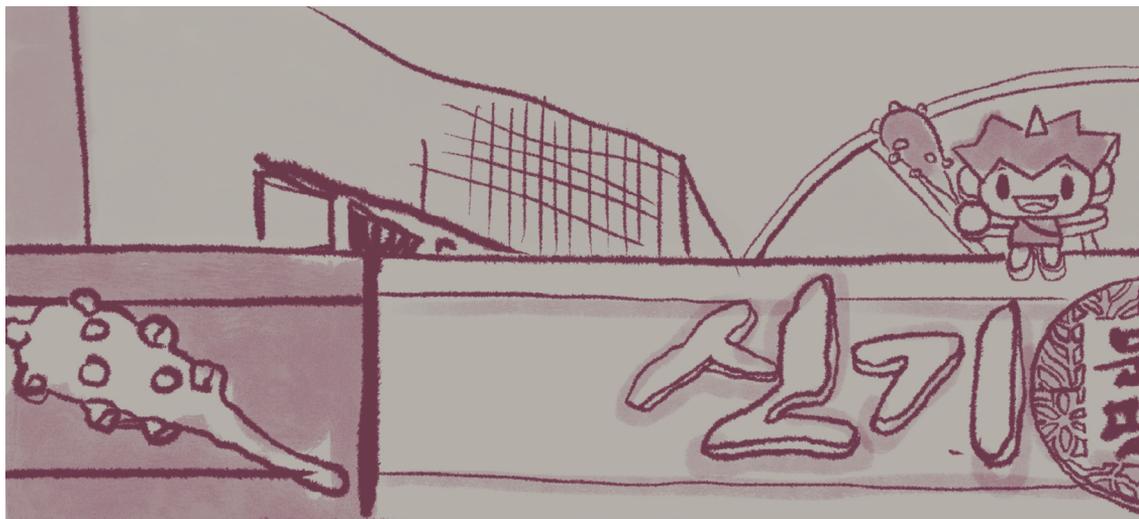
**주차장이 더 있어야 할까요?**

신기시장은 잘 해놨잖아요. 남부시장은 요구가 많아요. 지금 생선 집(우리 앞)까지 9채인지 요구하는 거 같아요. 김난영 구의원 네 집까지 되어 있어서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봉투 집, 생선 집 그 앞으로 몇 집. 그 생선집하고 봉투 집은 반대하는 거 같아요. 시하고 구하고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남부상가 총무님 밖에 계시네.

**작성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향은?**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고향은 충남 논산이에요. 10대 때 가족들과 같이 올라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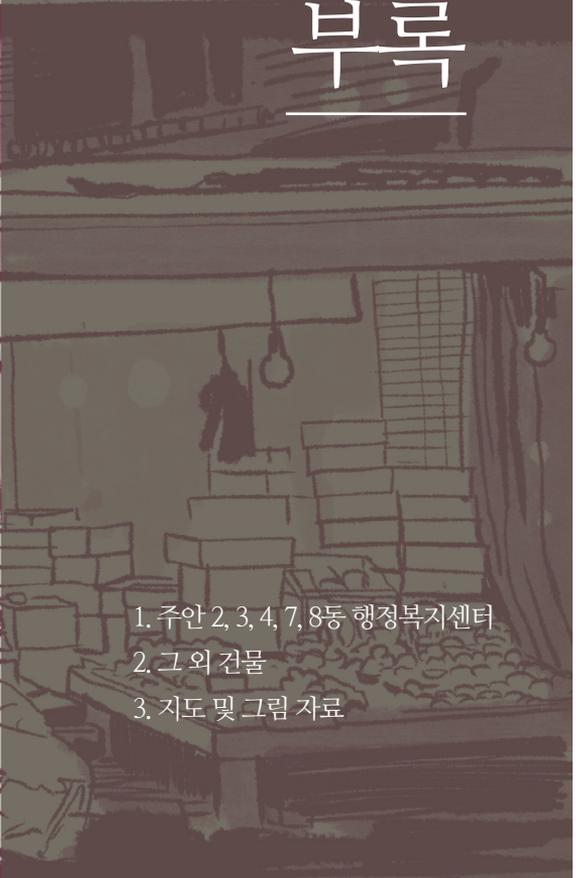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미추홀, 살아지대  
안녕? 신기촌 사람들



## 부록



1. 주안 2, 3, 4, 7, 8동 행정복지센터
2. 그 외 건물
3. 지도 및 그림 자료

# 1. 주안 2, 3, 4, 7, 8동 행정복지센터



## <주안 2동 행정복지센터>

1968년 1월 1일 주안 2동 사무소로 설립  
2007년 9월 1일 주안 2동 주민 센터로 개칭



## <주안 3동 행정복지센터>

1977년 5월 10일 주안 3동사무소로 설립  
2007년 9월 1일 주안 3동 주민 센터로 개칭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

1979년 1월 1일 주안 2동에서 주안 4동이 분동

※ 주안도서관(1990년 2월 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 4동에 있는 공공 도서관)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1967년 2월 12일 주안동이 주안1, 2동으로 분동된 것이 효시. 주안2동이 동부동과 서부동으로 되고 주안2동 서부동이 현재의 주안3동으로 명칭 변경됨

1982년 9월 1일 주안3동에서 분동되면서 현재의 주안7동이 파생

1984년 10월 20일 신청사를 신축 이전

1985년 11월 15일 인구증가로 인해 주안8동 분동



###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 1985년 11월 15일 주안7동에서 분동. 당시 자체 청사를 마련하지 못함.
- 1987년 5월 주안8동 1530번지에 대지 991.7㎡, 연건 446.2㎡의 현청사를 신축하여 신개발지에 급증하는 민원 및 행정수요에 대처
- 1989년 1월 1일 주안4동 1개반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수받음.
- 2007년 9월 1일 주안 8동 주민 센터로 개칭(2007년 8월 29일 행정 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 [행정 자치부 지방 조직 발전팀-2445호])됨

## 2. 그 외 건물



### 〈주안3동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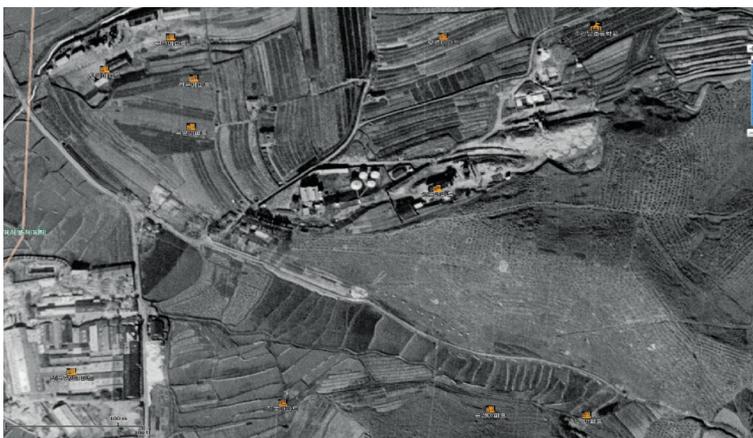
- 1975년 1월 18일 주안(현 주안1동) 본당과 용현동 본당·고잔 본당에서 주안2동 본당으로 분리되어 설립.
- 1975년 2월 ‘주안2서부동 성당 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
- 1975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0월 건물이 완공.
- 1977년 5월 주안3동 본당으로 개칭  
(초대 신부로 블라워즈(이상철) 프란치스코 신부 부임)
- 2000년 11월 본당 설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안3동 본당 25년사〉를 발간.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 미추홀향토문화전자대전

### 3. 지도 및 그림자료



1947년 신기촌 인근 위성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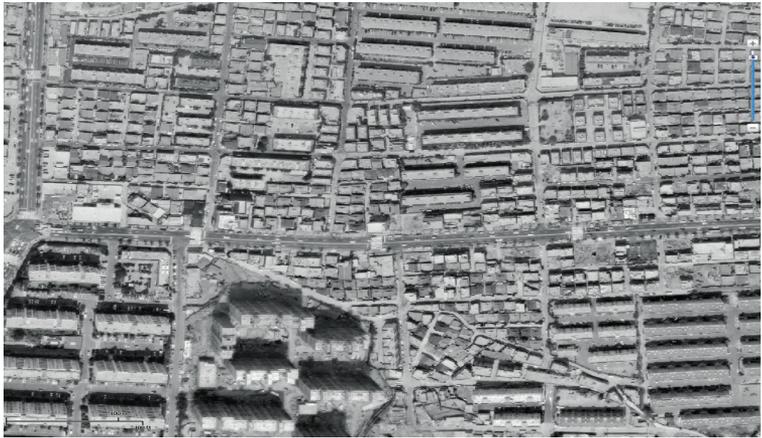


1967년 신기촌 인근 위성지도

254 안녕? 신기촌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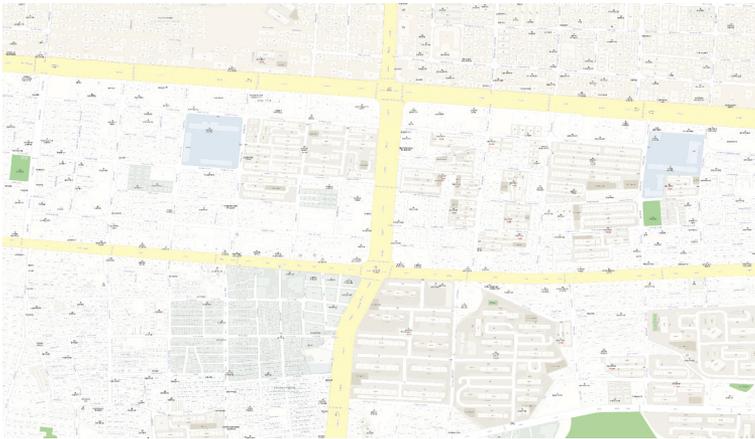
1986년 신기촌 인근 위성지도



1995년 신기촌 인근 위성지도



2011년 신기촌 인근 위성지도



2018년 신기촌 인근 지도([지도 출처 인천시 지도포털, 네이버 지도])



그림8. 신기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드로잉



그림9. 신기시장 전경2 드로잉



그림10. 남부종합시장 입구 드로잉



그림11. 북적이는 신기시장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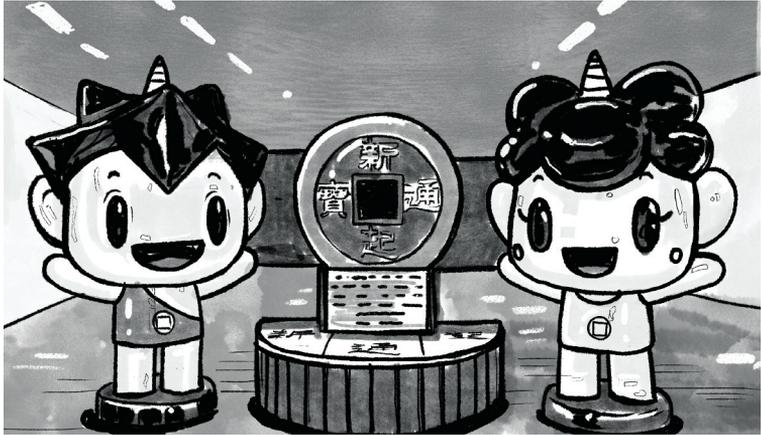


그림12. 신기시장 도깨비 캐릭터와 신기통보 동상 드로잉



그림 13. 신기시장 메인 간판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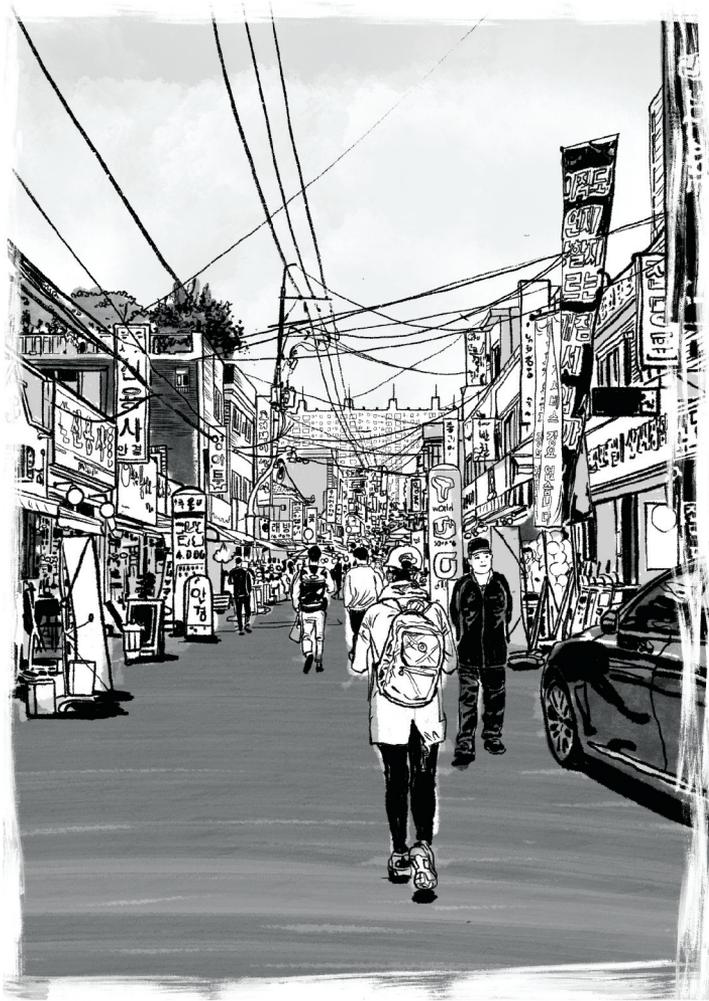


그림 14. 신기시장 인근 골목 드로잉

# 미추홀, 살아지다 안녕? 신기촌사람들

2018년 12월 30일 초판 발행

2020년 2월 28일 개정판 발행

펴낸이                   이회만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획 및 제작           미추홀학산문화원  
자료조사 및 집필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희, 이명순, 조영숙, 천영기

디자인                   문성예  
삽화                     윤언수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용현동)  
Tel. 032-866-3993~4 Fax. 032)866-3971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68891-3-5  
979-11-968891-0-4 (세트)